

Contents

Special Theme: Naming the East Sea

- A Case Study of Dual Name Usage for the East Sea Area in Old Maps ..... Shim, Jeongbo · Jung, Inchul
- Toponymy and the Analysis of Toponym Conflicts ..... Sang, Sunhee
- A Suggestion for a Rebuttal to the Jap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Sea of Japan" Publicity Site  
..... Kim, Hodong
- Preliminary Study on Effective Overseas Public Relations Strategies for East Sea and Dokdo  
..... Yoon, Okkyong · Choi, Jongnam

Research Papers

- Japanese Perceptions of Ulleungdo and Dokdo Seen in Japanese Geographical Gazetteers of Joseon in the Modern Era: Focusing on the Confusion of Appellation ..... Yoo, Mirim

Introduction of Historical Sour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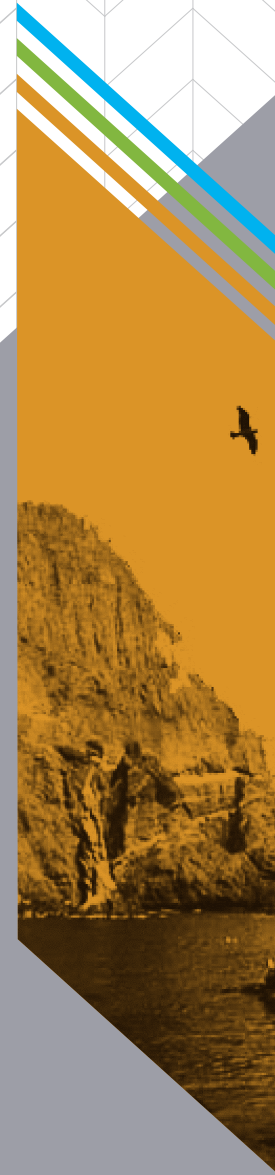
- Discovery and Implications of Ulleungdo Jeolmok (*Administrative Guidelines on Ulleungdo*) ..... Kim, Youngsoo
- The An Yong-bok Incident in the Higher Civil Service Examination of the Joseon Government ..... Yoo, Mirim

Discussion

- The Current Status and Future Prospects of the Naming of the East Sea ..... Shim, Jeongbo

Book Review

- European Perceptions of Dokdo*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011) ..... Yoon, Yusook



특집주제 \_ 동해 지명 표기

세계 고지도의 동해 해역에 나타난 지명 병기의 사례 연구  
지도에 나타난 해역 명칭에 대한 이해와 분쟁사례 연구  
일본 외무성의 '일본해' 홍보 사이트에 대한 비판적 검토  
동해와 독도 지명의 효과적인 해외 홍보를 위한 기초 연구

연구논문

근대기 조선 지리지에 보이는 일본의 울릉도 · 독도 인식

사료해제

'울도군 절목'의 발굴과 그 의미  
안용복 사건, 과거시험에 출제되다

기획좌담

동해 표기 문제의 현황과 전망

서평

「유럽의 독도 인식」

영토 · 해양 관련 일지

---

**편집위원장**

이 훈 \_ 동북아역사재단

---

**편집간사**

조윤수 \_ 동북아역사재단

---

**편집위원**

김병렬 \_ 국방대학교

오상학 \_ 제주대학교

이석용 \_ 한남대학교

이성환 \_ 계명대학교

이종원 \_ 일본 릿쿄 대학

허영란 \_ 울산대학교

한현철 \_ 한국지질자원연구원

Peter M. Beck \_ 아시아재단

Kenneth Robinson \_ 동북아역사재단

김영수 \_ 동북아역사재단

김용환 \_ 동북아역사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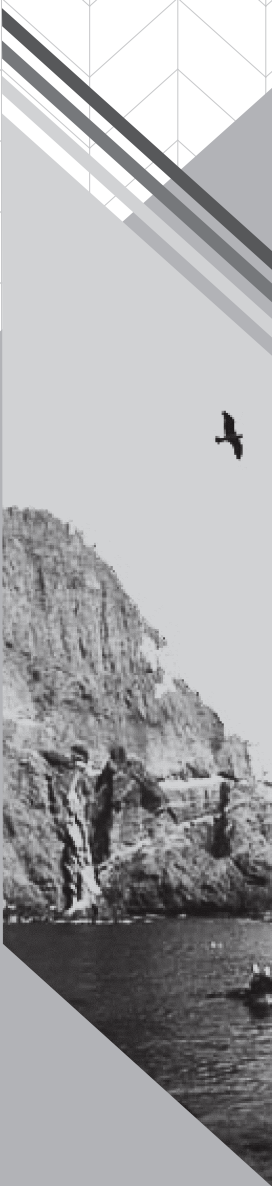
심정보 \_ 동북아역사재단

이명찬 \_ 동북아역사재단

Territory and Seas

# 영토해양연구

vol.2 Winter 2011





## 차 례

### 특집주제\_동해 지명 표기

- 심정보·정인철 | 세계 고지도의 동해 해역에 나타난 지명 병기의 사례 연구 6
- 상선희 | 지도에 나타난 해역 명칭에 대한 이해와 분쟁사례 연구 30
- 김호동 | 일본 외무성의 '일본해' 홍보 사이트에 대한 비판적 검토 58
- 윤옥경·최종남 | 동해와 독도 지명의 효과적인 해외 홍보를 위한 기초 연구 86

### 연구논문

- 유미림 | 근대기 조선 지리지에 보이는 일본의 울릉도·독도 인식 104

### 사료해제

- 김영수 | '울도군 절목'의 발굴과 그 의미 134
- 유미림 | 안용복 사건, 과거시험에 출제되다 138

### 기획좌담

- 심정보 | 동해 표기 문제의 현황과 전망 150

### 서평

- 윤유숙 | 『유럽의 독도 인식』  
(민유기·최재희·최호근·민경현, 동북아역사재단, 2011) 160

### 영토·해양 관련 일지

- 조윤수 | 영토·해양 관련 일지 168

- 『영토해양연구』 간행 및 논문 심사 규정 170



## 동해 지명 표기

- **심정보 · 정인철** | 세계 고지도의 동해 해역에 나타난 지명 병기의 사례 연구
- **상선희** | 지도에 나타난 해역 명칭에 대한 이해와 분쟁사례 연구
- **김호동** | 일본 외무성의 '일본해' 홍보 사이트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윤옥경 · 최종남** | 동해와 독도 지명의 효과적인 해외 홍보를 위한 기초 연구

# 세계 고지도의 동해 해역에 나타난 지명 병기의 사례 연구

심정보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정인철 부산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 I. 머리말

한국 정부는 1990년대 전반부터 동해 해역의 명칭으로서 동해/일본해 병기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성과 중 하나가 2010년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국제수로기구(IHO) 실무그룹에서 프랑스와 호주가 동해와 일본해 병기를 제안한 것이다. 또한 가시적인 성과로서 해외의 지도제작사가 제작한 지도에 동해/일본해 병기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즉 일본 외무성과 한국 외교통상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0년(일본 조사)에는 2.8%만이 동해/일본해를 병기하였으나 2005년(일본 조사)에는 10.8%, 2007년(한국 조사)에는 23.8%, 2009년(한국 조사)에는 28.07%가 동해/일본해를 병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외교통상부 홈페이지).

이러한 동해 해역의 지명 병기를 주장하는 논거의 하나로 사용되는 것이 고지도에 나타난 동해 해역의 지명 병기 사례다. 그러나 현재까지 발굴된 동해 해역의 명칭이 병기된 지도 수는 매우 제한적이며, 지도의 저자와 내용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못한 상태다. 따라서 동해 해역의 명칭이 병기된 지도를 발굴하고 그 내용을 고찰하는 것은 정책적인 관점에서

매우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동해 지명에 대한 연구는 동해 단독 표기와 관련된 연구만 존재한다. 서정철(1997), 김신(1997), 오일환(2002), 양보경(2004), 이상태(2004) 등의 연구가 그것이며, 이들 연구는 모두 동해 해역 명칭에 있어서 단독 표기의 정당성을 주장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동해 해역의 명칭이 병기된 세계 고지도의 사례를 조사함으로써 동해/일본해 병기의 정책적 근거 자료로 활용하는 데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 연구자료 수집은 기본적으로 문헌자료와 현지조사를 병행하였다.

현지조사는 미국, 영국, 독일,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국가에 소장된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프랑스 국립도서관(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만 직접 방문하여 해당 지도들의 이미지를 촬영했으며, 프랑스 이외에 다른 나라의 자료는 기존에 확보한 이미지를 활용하였다.

둘째, 동해 해역의 지명이 병기된 서양 고지도와 일본 고지도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해석했다. 마지막으로 동해 해역의 명칭이 병기된 고지도가 실제 오늘날의 동해/일본해 병기 주장에 어떤 시사점을 갖는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 II. 서양 고지도에서 동해 해역의 지명 병기 사례

### 1. 서양 고지도의 바다 명칭 표기 방식

18세기 이전 서양 고지도에 나타난 바다 명칭의 표기는 크게 해양분지식 방식(Maritime Basin Perspective)과 해양축 방식(Ocean Arcs Perspective)으로 구분되며, 그 외에도 국가 명칭을 연안에 부여하는 방식도 있다. 해양분지식 방식은 바다를 크게 방향에 따라 몇 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명칭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해양축 방식은 17세기 중반에 등장한 것으로 해역을 구분하지 않고 해역을 가로지르는 축을 설정하여 바다 명칭을 부여하는 방식

이다(M. Lewis, 1999).

해양분지식 방식으로 바다 명칭을 표기한 지도제작자는 리베로(Diego Ribero), 오르텔리우스(Abraham Ortelius) 등이 있는데, 리베로의 1529년 지도는 당시 바다 구분에 대한 하나의 전형적인 유형이다. 그는 대양을 동서남북, 즉 남해(Oceanus Meridionalis), 북해(Oceanus Septentrionalis), 서해(Oceanus Occidentalisl), 동해(Oceanus Orientalisl)로 크게 구분했다. 그리고 하위 바다로 중국해(Mare Sinarv), 에치오피아해(Mare Ethiopicum), 북해(Mare Hyperboreum), 벵갈만(Sinus Gangeticus) 등으로 구분했다(L. A. Vigneras, 1962). 이러한 해양 분지식 방식은 지리정보 확충에 의해 보다 세분되었다.

그래서 서양 고지도에는 17세기부터 태평양을 3~4개의 명칭으로 구분하여 표시한 지도가 많아졌다. 대표적인 방식이 태평양을 위치에 따라 중국해, 서양해, 남해, 태평양으로 구분한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결국 바다를 방향에 따라 대양으로 구분하여 해역에 각각의 명칭을 부여한 것이다. 그리고 이 방식은 1700년대에 들어와 새롭게 발전했는데 그것은 프랑스의 지도제작자 기욤 드릴(Guillaume Delisle)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당시 가장 저명했던 지도학자 기욤 드릴은 1600년대 중반에 널리 사용되었던 해양축 방식을 벗어나 다시 해양분지식 방식으로 돌아가는 데 기여했다.

기욤 드릴은 장 도미니크 카시니(Jean-Dominique Cassini), 즉 카시니 1세에게 수학과 천문학을 배운 정통 지도학자로 왕실 지리학자였다. 그는 천문학이나 수학에 익숙하지 못하여 지도 편집만 수행하는 다른 지도제작자와는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른 사람이었다. 드릴은 18세기 최고의 지도학자로 1702년 프랑스 왕실의 학생이 된 다음 1718년 왕실과학원 회원이 되었다. 그는 루이 15세(Louis XV)에게 지리학을 가르쳤고, 왕실 수석지리학자(Premier Géographe du Roi)가 되었다. 또한 그는 지도가 영토 분쟁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다.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에서 영국과 프랑스 간 식민지 전쟁을 지도를 통해 수행하기도 했다. 따라서 그가 바다에 부여한 지명 표기는 당시 시대적 상황과 지리적 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림 1〉 분지식 방식 반데르아의 1713년 지도



〈그림 2〉 해양축 방식 자요의 1694년 지도

기욤 드릴은 1705년 「인도와 중국지도(Carte des Indes et de la Chine Dressée sur Plusieurs Relations Particulières Rectifiées par Quelques Observations)」에서 분지식 방식을 채택했다. 그는 현재의 동해 해역에 ‘동양해 또는 한국해(Mer Orientale ou Mer de Corée)’라는 명칭을 부여했으며 중국해 표기는 하지 않았고, 벵갈만(Golfe de Bengale), 시암만(Golf de Siam)과 같은 만의 명칭만 기록했다.

기욤 드릴의 1714년 『북반구도(Hemisphere Septentrional)』 역시 만의 명칭만 부여했다. 네덜란드의 반데르아(Pieter Van der Aa)도 드릴과 유사하게 1713년 「아시아 지도(Asia in Praecipuas Ipsius Partes Distributa)」에서 분지식 방식을 채택하였다(그림 1).

한편 해양축 방식은 지역 간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표시법으로 연안에 만의 이름을 부여했지만 해역을 자르지 않고 가로질러 하나의 축을 설정하여 바다 명칭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의 지도제작자는 니콜라 상송(Nicolas Sanson)과 보곤디(Didier Robert de Vaugony), 자요(Alexis-Hubert Jaillot), 자크 카시니(Jacques Cassini), 코로넬리(Vincenzo Maria Coronelli), 호만(Johan Baptist Homann) 등이 있다(정인철, 2011).

니콜라 상송은 1667년 「아시아 지도(ASIA VETUS)」에서 벵갈만 등 작은 만을 표시했지만 다른 지도와 달리 연안 쪽에 매우 작은 글씨로 이들 바다의 명칭을 표시하고, 동양해(Oceanus Orientalis Sive Eous)를 남지나해에서 현재 동해에 이르는 큰 축으로 표시하였다. <그림 2>와 같이 1694년 자요의 「신세계지도(Nova Orbis Tabula, ad Usum Serenissimi Burgundiae Ducis)」는 전형적인 해양축 방식의 사례를 보여주는데 연안에는 국가 단위의 바다 명칭을 사용했지만 희망봉의 좌측과 우측을 아우르는 바다를 남해 또는 에티오피아해(Ocean Meridional ou Ethiopian)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항로를 강조했다. 병기 지도의 전형적인 사례로 인용하는 보곤디의 「일본지도(L'empire du Japon Divisé en Sept Principales Parties, et Pubdivisé en Soixante et Six Royaumes)」는 한국해와 일본해 두 명칭을 각각의 국가에 가까운 해역에 표현한 해양축 방식 표현이다.

## 2. 서양 고지도에서 동해 해역의 지명 병기 유형

병기 지도란 하나의 지리적 대상에 두 지명을 모두 표기한 것으로 그 방식은 지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애매한 경우도 존재한다. 즉 하나의 지도집에 한국해로 표기된 지도와 일본해로 표기된 지도가 병존하는 경우, 그리고 계층질서가 다른 명칭을 부여한 경우다. 그 특색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하나의 지도집에 한국해와 일본해로 각각 표기된 지도가 병존하는 사례는 각각 다른 해역 명칭이 표기된 지도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지도 집들이다. 예컨대 1796년에 발행된 『캐리 아틀라스(Carey's General Atlas)』는 세계지도에서 동해를 한국만(Gulf of Corea)으로 표기했지만 아시아 지도에서는 일본해로 표기한 지도를 사용했다. 그리고 1836년 와일드(James Wyld)의 『개신교 선교 지도집(An Atlas of Maps of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역시 동해 해역을 아시아 지도에서 한국만, 그리고 세계지도에서는 일본해로 표기하였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지도집의 저자는 편찬자 역할만 수행했다.

즉 지도를 수집하여 책으로 편찬하는 역할만 수행했던 것이다. 간혹 편찬 자체가 의미를 갖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국가 지도집의 경우에 해당한다.

이는 편찬 자체가 국가의 영토성과 국민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본 연구에서 조사한 민간 지도집은 여기에 해당

하지 않기 때문에 지도집을 병기 사례로 다루는 것은 비논리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이러한 지도집은 병기 지도 사례로 고려하지 않았다.

둘째, 바다 명칭의 계층질서가 다른 경우다. 동해 해역의 한국 연안을 한국만, 그리고 동해 해역 전체를 일본해로 표기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례 지도를 살펴보면 한국만 영역이 현재의 동한만과 대체로 겹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해(Sea)와 만(Gulf)<sup>1</sup>의 구분이 반드시 크기와 중요성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만’은 ‘해’보다 하위

1 여기에서는 지도상에서의 일반적인 표기 명칭에 근거하여 ‘Gulf’를 만으로 번역했지만 정확하게는 해만(海灣)으로 번역한다. 만에 해당하는 영어는 정확하게 ‘Bay’다. 해만은 비교적 넓은 바다 부분이 육지 쪽으로 깊이 들어와 육지로 둘러싸인 대규모 해역이다. 육지 쪽으로 뻗어 나와 있는 바다의 일부분으로서 바다 쪽으로는 협을 통해 외양으로 연결되는 수역으로 해(Sea)보다는 작고, 만(Bay)보다는 크다. 반면 만은 해안선이 육지 쪽으로 굽고, 바다가 육지 쪽으로 파고 들어와 있는 지형이 해안의 단순한 굴곡을 넘어 입구 폭에 비하여 현저하게 육지로 둘러싸인 해역이다.



차원의 바다 명칭이므로 한국만 표기 지도를 병기 지도 사례로 고려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동해를 일본해의 하위개념으로 인정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동해와 일본해 모두 하나의 지도에 표기된 경우만 병기 지도로 간주하였다.

하나 더 고려할 사항은 한국과 일본의 연안에 별도 명칭을 붙여 표기하는 것이 과연 병기라고 할 수 있는가 여부다. 이것은 엄밀히 말해 해역을 표기하는 방식이 다른 것이지 하나의 해역에 이중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론적인 문제는 논외로 하고 여기에서는 동해 해역에 둘 이상의 명칭이 사용된 경우를 병기로 보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서양 고지도에서 동해 해역에 명칭을 병기한 사례를 조사한 결과 <그림 3>~<그림 7>과 같이 다섯 가지 유형의 지도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이들 병기 지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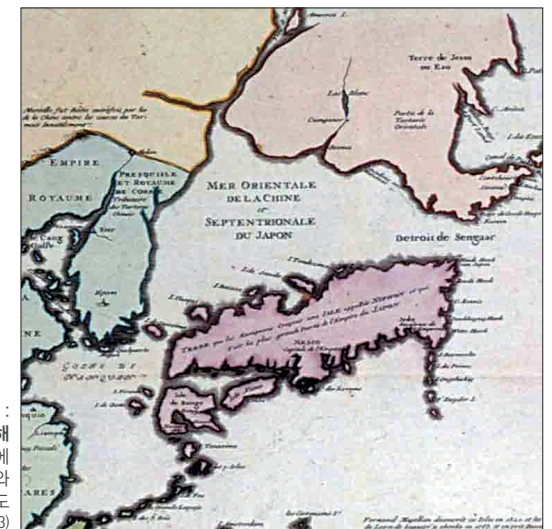
서양 고지도에 나타난 동해 해역의 지명 병기 유형



<그림 3> 병기 유형: 동해(동양해) + 일본해 세계지도 (니콜라 뱃젠, 17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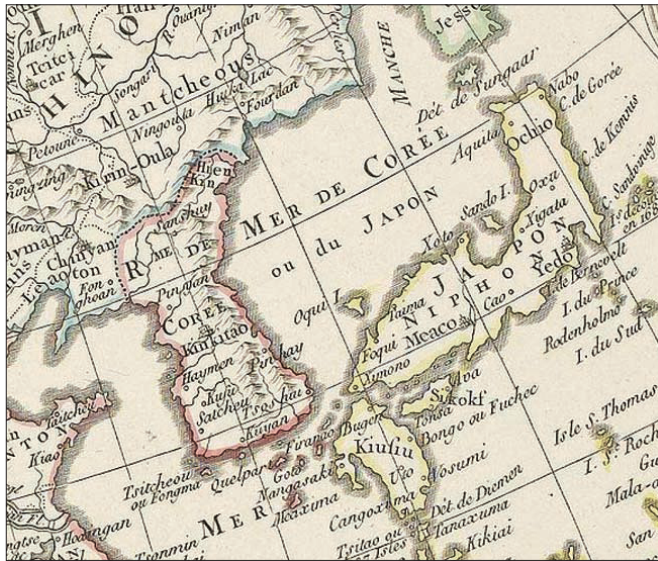
<그림 4> 병기 유형: 동해(동양해) + 한국해 인도와 중국지도 (기욤 드릴, 1705)



<그림 5> 병기 유형: 중국동양해 + 일본북해 태평양과 태평양에 접한 아메리카와 아시아 해안지역 지도 (드 페르, 1713)



〈그림 6〉 병기 유형:  
각국 연안에  
한국해 + 일본해  
일본영국도  
(보문디, 1750)



〈그림 7〉 병기 유형:  
한국해 + 일본해  
교육을 위한 아시아 지도  
(드조서, 1827)

첫째, ‘동해(동양해) 또는 일본해’로 표기한 지도 유형으로는 니콜라 빗젠(Nicolaas or Nicolaes Witsen, 1641~1717)의 1717년 「신대달단지도(Carte Nouvelle de la Grande Tartarie)」, 1730년 「세계지도(Mappemonde ou Globe Terrestre en Deux Plan-hémisphères Dressés Surles Observations de MM de l’Académie des Sciences)」 등이 존재한다. 지도제작자로서 그의 최고 역작은 「달단지도(Map of Tartary)」다. 20년 동안 연구 끝에 1690년 시베리아 지도를 편찬하였다.

그리고 1692년 후속편으로 달단 전역의 지리지에 해당하는 「북동달단지(Noord en Oost Tartarye)」를 편찬하였다. A4 크기의 양단 편집으로 1,000쪽이 넘는 이 책에는 하멜이 습득한 조선에 대한 내용이 하멜 표류기 형식으로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두 지도 중 「신달단지도」는 이전 달단지도를 수정한 것이며, 1730년 세계지도는 그의 사후 출간된 것이다. 이 지도에는 둘 다 ‘동양해 또는 일본해(Mer Orientale ou Du Japon)’라고 불어로 표기되어 있다. 1712년 위트레흐트 조약(Treaty of Utrecht)이 프랑스와 연합국가(Provinces-Unies; 네덜란드와 벨기에) 사이에 맺어져 이후로는 프랑스와 네덜란드 사이에 활발한 교류가 있었으므로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프랑스에서 빗젠의 지도가 프랑스어로 출간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왜 빗젠이 한국해 대신 일본해 명칭을 사용했는가는 네덜란드의 관심이 한국보다는 일본에 있었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당시 네덜란드 상관을 나가사키에 운영하던 동인도회사의 경영자를 역임한 빗젠에게는 당연히 한국보다는 일본이 관심의 대상이었다. 따라서 그가 한국해 대신 일본해 명칭을 사용한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병기를 하면서 동해 해역에 소동양해를 의미하는 ‘Mer Orientale’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미 네덜란드 지도학자인 반데르아가 동해 해역을 ‘Mer Orientale’로 불렀다는 사실과도 관련이 있다.

둘째, ‘동양해 또는 일본해(Mer Orientale ou du Japon)’ 표기 지도는 기욤 드릴의 1705년 「인도와 중국지도」를 들 수 있다. 기욤 드릴은 18세기 프랑스 최고의 지도제작 가문을 형성하였다. 그의 부친

2 세계 고지도에서 동해 해역에 명칭이 병기된 경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동해 명칭의 경우 혼돈이 있을 수 있으므로 여기에서 동해는 소동양해의 의미를 갖는 동해(Oriental Ocean, Mer Orientale)로 한정하며, 우리가 동해 명칭과 동일하게 여겨온 한국해(Corean Sea, Mer de Corée)는 한국해 명칭으로 간주하여 분류하기로 한다.

클로드 드릴(Claude Delisle)은 법학과 지리학 그리고 역사학에 정통한 지도 제작자였다. 기욤 드릴은 아버지 영향으로 일찍부터 지도수업을 받아 1718년 최초의 왕실 지리학자가 되었다. 그가 그린 「루이지애나와 미시시피 지도」는 최초의 세부적인 미국 내륙 지도로 알려져 있다. 기욤 드릴은 프랑스 지형도 제작의 태두인 장 도미니크 카시니로부터 수학과 천문학을 배운 지도 투영법에 정통한 지도학자였다. 그는 프랑스 과학원의 측량자료를 그 자신이 개발한 투영법을 사용하여 지도화했는데 특히 측량자료가 없는 곳의 지도를 자신의 투영법을 이용해 보간(Interpolation)하였다. 기욤 드릴은 또한 지명 표기를 정확하게 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일찍이 아메리카 대륙 특히 루이지애나와 미시시피를 대상으로 영국과 지도 분쟁을 벌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지명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깊이 인식하고 있었다(A. Godlewska, 1999). 기욤 드릴이 동해 해역을 ‘동양해 또는 한국해’로 표기한 것은 그의 초기 지도에서다. 그 이전의 지도에서는 동양해라고만 표기했으며 이후 지도에서는 한국해로만 나타내었다. 그 이전의 지도에 동양해라 표시한 것은 아마도 인도양과 태평양을 합친 의미인 동양해가 소동양해로 의미가 축소되는 시대적 상황에 기인하여 표기하였을 것이다(정인철, 2010). 그리고 한국해는 예수회 선교사들이 중국에서 수집한 명칭과 두들리(Robert Dudley)의 「세계 해양 아틀라스(Dell' Arcano del Mare)」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 지도집은 1646년과 1647년에 걸쳐 3권으로 간행되었는데, 유사한 아시아 지도가 1권과 3권에 각각 수록되어 있었다. 1646년에 간행된 1권에 수록된 아시아 지도에서 한국 연안은 한국해(MARE DI CORAI)로 표시하였지만 대부분의 동해 해역을 일본북해로 표기하였다(정인철, 2011).

셋째, ‘중국 동양해와 일본북해(Mer Orientale de la Chine et Seprtrionale du Japon)’로 표기한 지도는 니콜라 드 페르(Nicolas de Fer)의 1713년 「태평양과 태평양에 접한 아메리카와 아시아 해안지역 지도(Carte de la Mer du Sud et des Costes d'Amerque [sic] et d'Asie, Situées sur Cette Mer)」를 들 수 있다. 니콜라 드 페르는 프랑스 왕실 지리학자로 12세에 지도제작에 입문하여 23세에 독립적인 지도를 발표할 정도로 뛰어난 지도제작자였으며, 600여 장의 지도를

제작하였다. 국왕인 루이 14세(Louis XIV)의 정복활동에 관한 지도와 당시 토목 건축가로 유명한 보방(Vauban)에 의해 만들어진 요새화된 도시들을 지도화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였다. 사후에는 조카인 다네(Guillaume Danet)가 그의 지도사업을 이어 받았는데 다네는 동해 해역을 한국해로 표기하였다. 그렇지만 드 페르는 결코 동해 해역을 한국해로 표기하지 않았다.

드 페르는 우리가 흔히 접하는 지도인 「달단인들이 말하는 동해」의 지도 저자다. 그런데 이 지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도에서 동해 해역을 일본해로 표기하였다. 이 지도에서는 ‘중국 동양해와 일본 북해’라고 정확하게 기술하였는데, 드 페르가 당시 한국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중국의 동양해라고 부른 것은 아니다. 1705년 지도에서 그는 조선을 반도며 왕국이라고 기술하였다. 그리고 이 나라는 중국의 달단, 즉 청나라에 조공을 바친다고 기재하였으며 제주도와 부산 등의 지명을 표기하고 있다. 한국해로 표기하지 않고 중국인이 부르는 동해라고 기술한 것에 대해 우리로서는 안타까울 수도 있지만 동해의 개념 자체가 한국인이 부르는 ‘한국의 동쪽 바다’가 아닌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바다’라는 것을 고려할 때 이 지도는 오히려 동해와 한국해 병기 정책을 추진하는 우리나라 입장과 부합한다.

드 페르가 당시 프랑스의 지도제작자들과 달리 한국해나 동양해(Mer Orientale)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일본해 명칭을 그가 제작한 대부분의 지도에서 사용하게 된 원인을 필자는 다음과 같이 추정한다. 그는 1702년 스페인의 왕실 지리학자가 되었으며 1711년에는 스페인과 프랑스의 왕실 지리학자가 되었다. 이것은 두 나라 왕가가 밀접하게 연결되었기 때문이다. 당시 두 나라는 신교도 국가이던 ‘연합국가(네덜란드, 벨기에)’와 전쟁을 치렀다. 그는 당시 가톨릭 국가였던 스페인과 프랑스의 지원을 받아 부르봉 왕조의 업적을 선전하는 지도제작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였다. 그리고 루이 14세의 영토 확장이 얼마나 탁월한지 선전하는 지도를 제작하는 역할도 수행하였다.

그의 업적 가운데는 프랑스와 네덜란드와의 전쟁을 다룬 지도들도 많았는데, 이 지도제작 과정에서 네덜란드 동아시아 지도 정보를 확보하게

되었으며 네덜란드 전통에 따라 일본해 명칭을 채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넷째, 한국 연안에 ‘한국해’, 그리고 일본 연안에 ‘일본해’ 명칭을 부여한 지도는 1750년 보곤디의 「일본왕국도」가 대표적이다. 보곤디 일가는 부친인 질 로베르 드 보곤디(Gilles Robert de Vaugondy, 1688~1766)와 아들인 디디에 로베르 드 보곤디(Didier Robert de Vaugondy, 1723~1786)로 구성되며, 18세기 프랑스의 실증주의 지도학을 이끈 가문이다. 질 로베르 드 보곤디는 17세기 프랑스 지도학을 이끈 상송 가문의 상속자로 18세기 드릴 가문과 일종의 경쟁관계를 형성하였다. 드릴 가문의 대표는 필립 부아쉬(Philippe Buache)로 그는 당시에 뛰어난 자연지리학자였다. 부아쉬는 모르는 것을 탐구하고 지도의 여백을 채우는 것을 좋아했지만 보곤디는 확실히 아는 것, 실증적으로 검증된 것을 지도화하였다(I. Laboulais, 2006). 보곤디가 1757년에 펴낸 「세계 아틀라스(Atlas Universel)」는 18세기 중반 최고 걸작이다. 여기에 수록된 지도들은 당시로서는 가장 정교했는데 중요한 특징이라면 모르는 해역에 대해서는 하나의 단정적인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각각의 연안에 이름을 붙여주는 방식을 채택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보곤디가 1750년에 펴낸 「터키 연안 지도」를 살펴보면 모든 연안에 각각의 명칭을 표기했다. 1750년에 펴낸 보곤디의 「일본왕국도」는 한국과 일본 연안에 각각 한국해와 일본해 명칭을 표기하였다. 이 지도는 유럽 전역에 많은 영향을 주어 번역 출간되었으며 1812년 체코 프라하에서 출간되었다.

마지막으로 ‘한국해 또는 일본해(Mer de Corée ou du Japon)’로 표기된 지도인데, 드조셔(Dezauche)의 1819년 「교육을 위한 아시아 지도(Carte d'Asie Dressée pour l'instruction)」를 들 수 있다. 이 지도는 기욤 드릴과 필립 부아쉬의 지도 사업을 물려받은 드조셔가 1805년과 1819년에 각각 출간한 것이다.

드조셔는 지도출판가로 그 자신이 직접 지도를 만들지 않았다. 그는 드릴과 부아쉬의 이름을 빌어 지도를 편찬했지만 이미 드릴은 약 70년 전, 그리고 부아쉬는 약 40년 전 사람이었다. 따라서 그의 지도는 사람들에게 향수를 자극할 수는 있었지만 당시 지도제작의 주류에서는 배제되어 있었다. 프랑스

에서는 라페루즈의 영향으로 인해 동해 해역을 일본해로 표기하는 것이 대세였지만 드조셔는 끝까지 한국해로 표기하였다. 그래서 동해 해역은 ‘한국해 또는 일본해’로 병기된 것이다.

### III. 일본 고지도에서 동해 해역의 지명 병기 사례

일본 고지도에서도 동해 해역의 명칭을 병기한 사례를 볼 수 있다. 그것은 조선해와 북대양, 조선해와 일본서해, 조선해와 대일본해, 조선해와 일본해, 동조선해와 일본해 등 다섯 가지 유형이다(〈그림 8〉~〈그림 12〉). 한국 측에는 조선해, 그리고 일본 측에는 북해와 서해, 일본해를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또한 이들을 응용한 것이다. 북해와 서해가 토속지명이라면 조선해와 일본해는 서양에서 수입된 외래지명에 해당한다. 이들이 표기된 지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해와 북대양’이 병기된 「대일본총계약도(大日本總界略圖)」는 1865년에 제작된 지도로 관허 『대일본국세도 상, 하(大日本國細圖 上, 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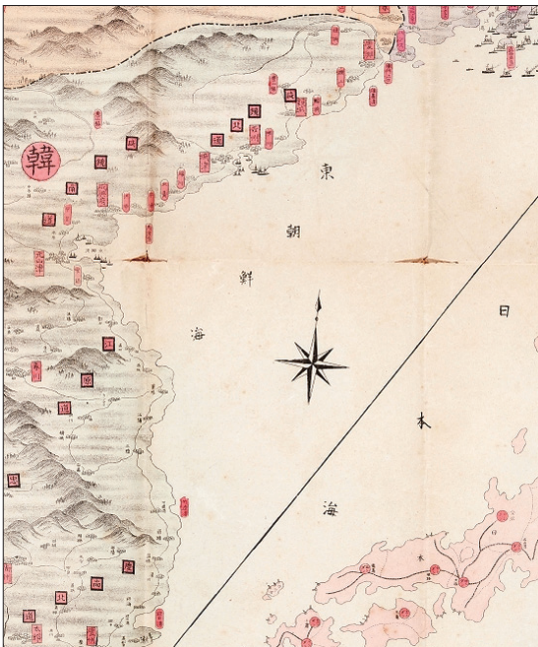
일본 고지도에 나타난 동해 해역의 지명 병기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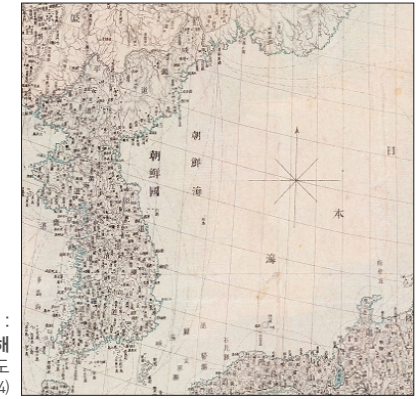
〈그림 8〉 병기 유형 : 조선해 + 북대양  
대일본총계약도 (1865)



〈그림 9〉 병기 유형 : 조선해 + 일본서해 관해 대일본사신전도 (1868)



〈그림 10〉 병기 유형 : 동조선해 + 일본해 일로청한진경지도 (1894)



〈그림 11〉 병기 유형 : 조선해 + 일본해 일청한삼국전도 (1894)



〈그림 12〉 병기 유형 : 조선해 + 대일본해 만국신도 (1874)

라는 지도집 상권에 수록된 것이다. 상권 동국지부(東國之部)에는 세계만국전도, 대일본총계약도, 기내(畿內)의 5개국 지도인 동해도(東海道), 동산도(東山道), 북륙도(北陸道) 등의 지도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하권 서국지부(西國之部)에는 산음도(山陰道), 산양도(山陽道), 남해도(南海道), 서해도(西海道) 등의 지도를 담고 있다. 「대일본총계약도」는 일본의 지역을 간략하게 구분하고, 이웃 조선의 일부분을 나타내었다. 일본 열도를 중심으로 주변 바다에는 태평양에 해당하는 동측에 동대양(東大洋), 서측에 서대양(西大洋), 북측에 북대양(北大洋), 남측에 남대양(南大洋)을 각각 표기하고, 조선의 부산 부근

에는 조선해(朝鮮海)를 표기하였다. 동해 해역 명칭으로서 북대양은 일본 열도의 북쪽에 있는 큰 바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

둘째, ‘조선해와 일본서해’가 병기된 「관허 대일본사신전도(官許 大日本四神全圖)」는 1868년 제작된 지도다. 제작자 하시모토 교쿠란사이[橋本玉蘭齋]는 풍속화가로 지리와 지도의 지식으로 조감도 그리는 것을 즐거움으로 여겼던 인물이다. 특히 에도 막부 말기에 개항장 요코하마의 조감도, 거류 외국인과 그들의 풍속도, 문물 등을 소재로 에도시대 풍속화를 다수 남겼다. 그는 각 지역의 지방도와 일본도, 세계도 등 여러 지도를 제작하였다. 이 지도는 일본 혼슈[本州]를 중심으로 서측에는 일본서해(日本西海), 동측에는 일본 동해(日本東海), 남쪽에는 일본남해(日本南海)로 각각 바다 명칭을 표기하였다.

한국의 서측에는 바다 명칭을 나타내지 않았지만 동쪽 바다는 조선해로 표기하였다. 이 지도는 당시 일본 메이지 정부의 관허 지도로서 동해 해역 명칭을 병기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셋째, ‘조선해와 대일본해’가 병기된 「만국신도(萬國新圖)」는 영국의 세계 지도를 원도로 1874년에 제작되었다. 그 결과 영국을 비롯한 유럽이 지도 중앙에 놓여 있고, 남북 아메리카는 우측, 그리고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는 좌측에 위치해 있다. 오로지 항해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해양의 형세는 치밀하지만 내륙 지역은 간략히 묘사되어 있다. 지도 외측 테두리에는 각국의 만국기를 제시했으며, 또한 주요 인종의 형상도 그렸다.

그 외의 지도에는 세계 주요 도시의 시가지를 약도로 나타내었다. 다른 지도와 비교하면 해로나 해양 지명 등이 상세한 편이다. 한국의 서측에는 황해(黃海), 그 아래에는 동해(東海)로 표기하였다. 한국과 일본 사이의 해역 명칭은 한국 북동부와 현재 러시아 남쪽에 걸쳐 조선해(朝鮮海), 그리고 동해 해역 정중앙에 대일본해(大日本海)로 표기하여 동해 해역의 명칭을 병기했다.

넷째, ‘조선해와 일본해’가 병기된 「일청한삼국전도(日淸韓三國全圖)」는 1894년에 제작된 것이다. 일본에서는 1868년 메이지[明治] 유신 이래 진전된 서구 문물을 받아들이고, 동시에 제국주의의 팽창에 의해 여러 유형의

지도가 만들어졌다. 특히 1894년 청일전쟁을 전후하여 관찬 및 사찬 지도가 가장 많이 제작되었다. 당시 일본의 주요 관심 대상이었던 유라시아 대륙의 청, 조선, 러시아 등 국가별 전도 이외에 이들 국가와 일본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일로청한(日露淸韓)의 동북아지도가 다수 발간되었다. 이 지도는 이러한 배경 하에서 한국, 중국, 일본 등 3국을 개관할 수 있도록 민간에서 제작한 것이다. 주목할 사항은 한국과 일본 사이의 해역 명칭을 표기함에 있어서 한국의 동해안에는 조선해, 그리고 일본 측에는 일본해로 병기했다는 점이다. 당시 일본인들도 서양과 마찬가지로 동해 해역을 둘로 나누어 한국 측은 조선해, 일본 측은 일본해로 표기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동조선해와 일본해’가 병기된 「일로청한진경지도(日露淸韓眞景地圖)」도 청일전쟁이 발발했던 1894년에 제작된 지도다. 전쟁을 이해하기 위해 한국과 만주 주요 지역을 비교적 상세하게 나타내었다. 지도에는 제작연도가 1894년으로 적혀 있지만 러시아군의 모습이 그려진 것으로 보아 러일전쟁까지 시야에 넣고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군과 러시아군의 모습이 지도 양측에 그려져 있고, 또한 양국 전력을 알 수 있도록 군대에 대한 각종 정보를 기재하였다. 일본 사이의 해역 명칭에서 주목할 사항은 한국에 가까운 동해 해역에는 ‘동조선해(東朝鮮海)’, 그리고 삼도로 처리한 일본 해역에는 ‘일본해(日本海)’로 표기했다는 점이다. 비록 이 지도는 민간에서 제작되었지만 이 지도를 통해 19세기 말까지 일본에서 일본해 명칭이 정착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과 일본 사이의 해역 명칭으로 ‘동조선해(東朝鮮海)와 일본해(日本海)’로 병기한 역사적 사실에서 현재 한국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동해/일본해 지명 병기는 합리적인 주장임을 알 수 있다.

#### IV. 맺음말

본 연구에서는 동해 해역의 지명 병기 고지도를 조사하고, 주요 사례를 제시하였다. 조사를 통해 기존에 국내에 소개되지 않은 고지도를 발굴하고 지도 표기의 이론적 원칙에 의거하여 이를 고찰한 것은 동해 해역의 지명 병기와 관련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일반인들이 기대하는 바와는 달리 실제 조사 결과, 동해와 일본해가 병기된 지도 수는 양적인 측면에서는 단독 표기 지도보다 적었지만 질적인 측면에서는 병기된 고지도가 이 지역의 바다 명칭 표기에 가지는 의미는 상당하다.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8세기 최고의 서구 지도학자인 놀린과 보곤디, 보웬과 세빅스 등은 한국해와 일본해 명칭을 병기하였다. 이 지도들은 ① 동해(동양해) 또는 일본해(일본북해 포함), ② 동해(동양해) 또는 한국해, ③ 중국 동해와 일본북해, ④ 한국 연안은 한국해 일본 연안은 일본해, ⑤ 한국해 또는 일본해 등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서구에서 제작된 지도는 일본에도 수입되어 지명 병기에 영향을 미쳤다. 즉 19세기 일본 고지도에도 ① 조선해와 북대양, ② 조선해와 일본서해, ③ 조선해와 대일본해, ④ 조선해와 일본해, ⑤ 동조선해와 일본해 등의 지명 병기가 발견되었다.

둘째, 보곤디의 지도제작 원칙은 실증주의다. 그는 프랑스의 왕실 지리학자로 18세기 중반 가장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관점에서 지도를 제작하였다. 18세기 중반 프랑스 지도학계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지도제작 방식 관련 논쟁에 빠져 있었다. 미지의 세계란 아직 탐험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으로 동북아시아와 남극지방, 남미의 내륙이 여기에 해당된다. 당시 프랑스의 또 다른 왕실 지리학자 부아쉬는 미지의 세계를 당시의 지리학 이론에 의거하여 지도화하는 입장을 취했지만 보곤디는 알려진 것만 지도화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부아쉬와 보곤디 간에는 격렬한 학문적 논쟁이 있었는데 이 논쟁은 프랑스 과학원의 학술지에 각자의 논문을 발표하고 이를 비판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이 논쟁에서 누가 우위를 차지했는지는 가려지지 않았지만 보곤디의 「일본도」가 수록된 『세계지도집

(Atlas Universel)』은 18세기 중후반에 가장 많이 판매된 지도집이 되었다. 그리고 그의 지도는 다른 나라에서 출판된 아시아 지리지에 복사되어 수록되었다. 즉 보곤디는 반드시 실증주의적 관점에서 미지의 세계를 지도화했고, 하나의 지명으로 확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두 개의 명칭 모두를 표기하였다. 이 논리는 주변 국가의 동의가 없는 단독 표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논리로 발전이 가능하다. 유엔지명표준화 회의에서는 지명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 관련국 간 합의에 이르기 전까지 잠정적으로 병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만큼 동해 해역을 여러 유형으로 병기한 고지도들은 한국 정부의 지명 병기 주장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이다.

셋째, 보곤디가 동해 해역을 한국해와 일본해로 병기한 것은 연안을 따라 해양 명칭을 표기한 해양축 방식에 의거한 것이다. 이러한 표기 방식의 도입은 하나의 바다를 분지로 간주하여 표기하는 해양분지식 방식이 아닌 해양축 방식에 의한 것이다. 이 방식의 채택은 한국과 일본 모두에게 동해와 일본해 병기의 정당성에 대한 논거를 제공해준다. 즉 하나의 바다를 분지로 보지 않고 해양 축에 근거하여 각각의 연안을 표기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도 동해 해양 명칭 표기에서 승자와 패자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 발굴한 동해 해역의 지명이 병기된 고지도는 활용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확인하였다. 2011년 7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국제지도학대회에서 보곤디의 병기 지도를 모티브로 한 티셔츠를 배포하였는데 외국인들 반응은 예상보다 좋았다. 이에 대한 호응은 질이 좋은 티셔츠를 무료로 받았다는 측면도 있었지만 티셔츠의 디자인 배경에 대한 설명이 주효했기 때문이다. 티셔츠를 배포하면서 ‘영국해협(English Channel)’과 ‘라망시(la Manche)’의 병기를 언급하고 동해와 일본해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설명했는데 이에 대해 많은 참석자들은 호의적인 반응이었다. 만일 우리가 동해 단독 표기만 주장했다면 이들은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낼 수도 있었겠지만 병기에 대해서는 전혀 거부감이 없었다. 이는 지명 병기가 특정 국가의 입장을 편들기보다는 두 나라 주장을 동시에 배려하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향후 국제사회에서 동해/일본해 병기를 계속 추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홍보 정책을 정부 차원에서 보다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병기 추진이 보다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두 나라 사이의 해역 명칭에 대한 병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다른 나라 사례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대표적인 사례가 ‘영국해협’과 ‘라망시’에 대한 연구다. 유럽의 해양 지명 병기 사례 연구는 포레스트(Forrest, 2009)에 의해 개략적으로 진행된 바가 있지만 아직은 소개 정도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들 해협이 어떠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절차를 거쳐 병기에 대해 양 국민의 거부감이 사라지게 되었는지에 대해 연구하고, 이를 동해 해역의 명칭 선정에 적용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 국문초록

본 연구 목적은 동해 해역의 지명이 병기된 세계 고지도를 조사하여 이를 동해/일본해 병기 정책에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단순히 병기된 지도의 개수를 세기보다는 해양명칭 표기의 이론적 관점, 즉 해양축 표기와 해양분지식 표기의 이론적인 측면에서 병기 지도의 의미를 논의하였다. 둘째, 서양 고지도 중 동해 해역의 지명을 병기한 지도 유형은 ① 동해(동양해) 또는 일본해(일본북해 포함), ② 동해(동양해) 또는 한국해, ③ 중국 동해와 일본북해, ④ 한국연안에 한국해 일본연안에는 일본해, ⑤ 한국해 또는 일본해 등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셋째, 일본 고지도 경우는 조선해와 일본해에 각각 방향에 관한 접두어를 첨가하여 명칭을 부여한 지도들이 존재하였다. 넷째, 지명 분쟁이 발생하는 해역의 경우 지명 병기가 우선이라는 국제수로기구와 유명지명위원회의 규정을 고려할 때 보다 많은 병기 지도를 발굴하고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 〈주제어〉

동해, 일본해, 병기, 서양 고지도, 일본 고지도



## ABSTRACT

## A Case Study of Dual Name Usage for the East Sea Area in Old Maps

Shim, Jeongbo

Research Fellow,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Jung, Inchul

Professor, Dept. of Geography Education, College of Educ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rvey the old maps with dual names for the sea area betwee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Japanese Archipelago and make a list of these maps with annotation on the maps.

Firstly, we introduced the cartographic methods by which the mapmaker names the sea. In general, there are two methods: maritime basin perspective and ocean arcs perspective.

Secondly, the western old maps which depict East sea with dual names have five different types of dual naming: ① Oriental Sea or Sea of Japan, ② Oriental Sea or Sea of Korea, ③ East China Sea and Northern Sea of Japan ④ Sea Name on Each Seaside, ⑤ Sea of Korea or Sea of Japan.

The mapmakers who used dual names for East sea are Nicolas Witsen, Robert Dudley, Emanuel Bowen, Isaac Tirion, Jean-Baptiste Nolin, Robert de Vaugondy, etc.

Thirdly, even if Japan insists that only the name "Sea of Japan" should be designated for the East Sea, there were some Japanese maps with dual names. Some Japanese cartographers like Hashimoto Kyokuransai used dual name. They designated East Sea like ① Sea of Joseon and Northern ocean, ② Sea of Joseon and Western Sea of Japan, ③ Sea of Joseon and Sea of Japan, ④ East Sea of Joseon and Sea of Japan.

Fourthly, according to the IHO and UN Resolution, until Korea and Japan agree on a common designation for naming the East Sea area, it is reasonable to use dual names. Old maps which depict this area support this resolution. But we still have to develop more reasonings and justifications to have Japanese government adopt the dual name use for East Sea. So we need to extend our research to other areas which have similar situation to our case.

〈Keyword〉

East Sea, Sea of Japan, Dual Names, Sea Name, Old Map

## 참고문헌

- 김 신, 1997, 『잃어버린 동해를 찾아서』, 두남.
- 서정철, 1997, 「고지도의 동해-일본해 명칭에 대한 인지언어학적 고찰」, 『동해 지명 표준화를 위한 국제 세미나 발표 논문집』.
- 양보경, 2004, 「조선시대 고지도에 표현된 동해 지명」, 『문화역사지리』 제16권 제1호.
- 오일환, 2002, 「서양 고지도 속의 동해 표기-18세기를 중심으로」, 『동해 명칭에 대한 학술 세미나: 동해 명칭의 국제표준화와 향후 대책』.
- 이상태, 2004, 「서양 고지도에 나타난 동해 표기에 관한 연구」, 『문화역사지리』 제16권 제1호.
- 정인철, 2011, 「부아쉬의 산맥체계에 의한 바다분류가 동해 표기에 주는 시사점」, 『한국지도학회지』 제11권 제2호.
- A. Godlewska, 1999, *Geography unbound: French geographic science from Cassini to Humboldt*,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I. Laboulais, 2006, "Les système: un enjeu épistemologique de la géographie des lumières", *Revue d'histoire des Sciences* 59(1), pp. 97~125.
- L. A. Vigneras, 1962, "The Cartographer Diogo Ribeiro", *Imago Mundi* 16, pp. 76~83.
- M. Lewis, 1999, "Dividing the ocean sea", *The Geographical Review* 89(2), pp. 188~214.

# 지도에 나타난 해역 명칭에 대한 이해와 분쟁사례 연구

상선희 신시내대대학 교수

## 1. 머리말

지명과 바다 명칭은 지명학에서 주로 다루어지는데, 특히 바다를 접하고 있거나 해역을 경계로 한 나라들 대부분은 역사적으로 사용해오던 민족 고유의 토착명칭이 있어서 분쟁 가능성이 있다. 웹스터(Webster) 영어 사전에 따르면 지명학(Toponymy)은 지역이나 언어, 민족에 의해 불리는 장소의 명칭이나 혹은 그 명칭에 대한 어원학적 연구를 뜻하는데 그간 지명에 관한 국내외의 연구는 주로 역사와 서지 등을 중심으로 수행되었지만 지리적 접근방법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지리적 접근방법은 장소에 여러 원근법적인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균형 있는 시각을 부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현재 다수의 해외 지도제작사가 시각을 달리하여 그동안의 지도상 명칭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명 혹은 바다 명칭에 대한 수정을 시작했다.

최근에는 식민시대에 언어의 식민화로 인한 지명 표기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 문제에 대한 식민시대 이후의 해법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이라는 불합리한 역사적 배경이 국제 해양과 수로에 관한 규정 및

지도제작이 이뤄지던 시점과 일치해 그때에 이루어졌던 많은 국제회의에서 제외되었다. 그로 인해 그 당시 지도 제작과정에서 지명 결정에 불리한 영향을 받았으며 그 영향이 지금까지 미치고 있다. 근래에 들어 이를 바로 잡기 위한 정부와 민간단체들의 관심과 노력이 증가하였고 지도에서 동해와 일본해의 병기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합리적인 주장으로 인식되며 실제로 동해/일본해 병행사용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세계화에 따라 국제사회는 단일한 체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경제와 정책뿐만 아니라 문화와 사회 전반적으로 전 세계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됨을 깨닫고 일률적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반면, 문화적 유산의 세계화에 대한 활발한 논의로 지역토착문화 유지와 복원에 대한 관심이 늘고 경제 강대국 중심의 세계화에서 탈피하려는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그로 인해 제국주의 치하, 식민시대에 잃어버린 지역문화를 되돌리려는 움직임도 이는 중이다. 세계관과 더불어 변화하는 세계지도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때에 맞춰 시기적절한 연구와 이에 대한 지지기반 마련이 시급하다.

이 연구는 주로 영어로 된 자료들과 지도를 바탕으로 유럽과 아시아의 바다 명칭과 관련하여 역사적, 지리적 배경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비교적 영어 자료가 풍부한 연구 지역들에 대한 지리적, 역사적 자료들과 현재 진행상황 등을 소개하고 결론에서는 각 지역 명칭과 관련하여 동해/일본해 표기 문제와의 연관성과 함축적 의미를 찾아보며, 이들이 정치적, 경제적,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고찰한다.

본 연구에서는 세계 여러 곳의 해역 명칭에 대한 지리적,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이해를 넓히고 명칭과 관련된 분쟁에 대한 요인과 해결점 등을 개별 사례 중심으로 분석한다. 아울러 동해와 일본해 명칭 분쟁에도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검토한다.

## II. 국제사회에서 해역 명칭의 분쟁사례

### 1. 북해(North Sea)

#### 1) 지리적 특성

북해는 지리학적으로는 영국 동부인 노퍽(Norfolk) 지역 관점에서만 북쪽 방향에 위치하고, 덴마크에서는 서쪽에 위치하여 'Vesterhavet(Western Sea : 서해)'라고 불린다.

국제수리기구(The International Hydrographic Offices)의 편의를 위해 제안 출판된 『해양과 바다의 경계』(1953)에 따라 경계를 가진다. 이곳은 비교적 얕은 바다로 주변에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 영국 등 7개국이 접하고 있는데 이 나라들에는 북해로 흐르는 많은 하천이 있다. 또한 이 나라들은 인구밀도가 높고 산업화가 고도로 발달해 있으며 북해로부터 많은 자원을 얻을 뿐 아니라 문화적인 영향도 주고받는다. 그중 한 단면이 바로 바다 명칭이며, 그 명칭의 역사를 보면 다양한 이름과 기록을 가진다.



〈그림 1〉 북해(North Sea) 출처 : worldatlas.com

### 2) 북해 명칭의 역사

오하이오 주립대 두에인 롤러(Roller, Duane W., 2006) 교수의 저서 『고대 로마제국 연구(Roman Exploration)』에 따르면 북해의 시간별 자세한 명칭 변화는 다음과 같다.

- 고대 :  
Maybe 'the sea' without specific parts
- 다양한 명칭의 시작 :  
Amalchium mare, Britannie, Frisie mare, Fresonicus Oecenus, Magnum Mare(Western Sea), Occidentale Mare(Ocean), Occidentalis Oceanus
- 그리스-로마 시대 :  
- Septentrionalis Oceanus (=Northern Ocean)  
- Germanicum Mare, Germanikos Okeanos (= German Sea)
- 중세 시대 :  
- Morimaru (=Dead sea) by Celts  
- Morimarusa (=Dead sea) by Germanic people  
- Mare Frisicum (=Frisian Sea) by Latin  
- Mare- or Oceanum Gemanicum (=German(ic) Ocean, sea) by Latin  
- (Great) GermanSea by German, Swedish, and others  
- Mercator's 'map of Europe' used 'Oceanus Germanicus(1572)' or 'Mare Germanicum(1590)'  
- Oceanus Cimbricus by Danish  
- Oceanic Britannicus by English

또한 지도 자료에서도 다양한 명칭들을 볼 수 있는데, 브리티쉬 해(British Ocean), 게르만 해(Oceanus Germanicus, Oceanus Germanicus), 북해 + 게르만 해 병기(North Sea + German Ocean), 혹은 북해의 다양한 언어명 표기 등이 그 예다.

현재 명칭의 상황을 살펴보면, 독일에서는 아직도 ‘북해’와 더불어 ‘게르만 해’라는 명칭을 병행 사용하고 있으며, 1932년부터 대부분의 미국 지도는 ‘북해’로, 영국에서는 아예 1914년부터 ‘북해’가 공식 명칭화되었고, 이밖에 프랑스, 스웨덴도 ‘북해’로 칭하고 있다. 다만 덴마크에서는 지리학적인 상대적 위치로 덴마크 서쪽에 위치한 바다에 대해 ‘서해(Vesterhavet)’라는 명칭과 북해(Nordsøen)를 함께 사용하고 있다.

### 3) 북해 명칭의 역사적 배경

고대에는 북해가 고유지명을 갖지 않고 포괄적으로 ‘바다(the Sea)’라고 불렸으리라고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는데 특정한 고유지명이 붙여지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언어로 바다(the Sea, Ocean, Occidentale Mare, Occidentalis Cceanus), 서해(Western Sea, Magnum Mare), 브리타니 해(Britannie), 혹은 프리시안 해(Frisie Mare, Fresonicus Oecenus) 등으로 불린 기록이 있다. 이러한 고대 명칭은 후에 그리스-로마 시대의 북해(Septentrionalis Oceanus), 게르만 해(Germanikos Okeanos, Germanicum Mare), 중세 시대의 사해(Morimaru /Morimarus by Celts, Mere Gliberōt by German and Lebermer or Liberse by Dutch), 프리시안 해(Mare Frisicum, Oceanum- or Mare Germanicum by Latin), 그리고 신대륙 발견 등의 시대 변화에 따라 더욱 다양한 명칭으로 불렸다(Roller, 2006). 특히 15세기에 지리적 발견과 탐구의 영향으로 많은 기록과 지도제작이 이루어졌는데, 그 가운데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사용된 명칭들로는 프리시안 해, 게르만 해, 혹은 브리타니쿠스 해 등이 있다. 게르만 해라는 명칭은 17~18세기까지 많이 사용되었는데 그것은 당시 게르만족이 한자 동맹으로 인한 우세한 정치 경제의 영향력을 가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기록은 17세기 유럽 여러 나라의 신대륙 진출과 18세기 초 한자동맹의 쇠퇴로 인하여 변화하기 시작했는데 이 당시 정치 경제의 영향력이 컸던 네덜란드 영향으로 ‘게르만 해’와 더불어 ‘북해’라는 명칭이 함께 사용되기 시작했다. 그 후 점점 ‘게르만 해’보다는 ‘북해’가 증가하여 현재는 거의 독점적으로 ‘북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역사적 기원을 보면 고대 라틴계 학자 플리니(Pliny)에 의해 인용된 ‘Septentrionalis Oceanus(고대 로마어: 북해)’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지금 사용되는 명칭의 어원을 살펴보면 네덜란드(지금은 간척지로 바뀐) 북해 부근 지역명인 남해(South Sea; 네덜란드어 Zuider Zee)와 대조해서 북쪽에 위치한 바다라고 북해(North Sea; 네덜란드어 Noord Zee)라고 부르던 15, 16세기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 이때는 지도제작 인쇄가 시작하던 시점이기도 하여 역사적, 지도학적으로 큰 의미를 지닌다.

북해는 예로부터 영토를 늘리고 제한된 자원과 시장을 확보하려는 많은 세력들에게 사용되어 왔는데 로마 시대로부터 바이킹, 한자동맹, 네덜란드, 영국 등이 이 지역 점유를 위해 노력했다.

### 4) 북해와 동해 명칭 분쟁과의 연관성

북해라는 지명은 범지리적 입장에서 방위와 관련 있다는 점이 동해와 매우 유사하다. 또한 그 주변국에서 볼 때 방위 관계가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범 지리적 관계에서의 일반적 위치를 잘 표현한 지명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더 오랫동안 사용되었던 게르만 해나 국지적 방위 관계만을 나타내는 서해보다 더 많이 쓰이고 알려졌다. 이 지명이 공식화 되기까지는 영국과 네덜란드 등의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이 컸지만 그 외에도 과거 한자동맹의 쇠퇴와 전쟁, 세계대전으로 인한 독일의 영향력 감소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동해도 북해처럼 주변국과의 관계를 범지리적, 일반적으로 잘 표현하는 지명으로, 한 국가와의 관계만을 표현한 일본해보다 더욱 보편적인 명칭이다. 게다가 한국과 중국 역사서에 동해 명칭이 끊임없이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북해보다 더욱 공식 명칭으로서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강조한다면 국제사회에서 동의를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2. 영국해협(English Channel)과 라망시(la Manche)

### 1) 지리적 특성

‘Parts of Seas’의 하나인 영국해협은 암묵적 동의 하에 프랑스어로 라망시(la Manche)라 불렸다. 이 해역의 지리적 특성을 보면 아틀란틱 해의 한 파트로서 길이 560km, 넓이 240km의 해협으로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있고, 북해와 아틀란틱 해의 연결부분으로 북해보다는 약간 깊은 바다다.

### 2) 역사 및 어원적 배경

영국해협이 직접 접한 국가는 영국과 프랑스 둘뿐이지만 언어학상으로는 그보다 많은 언어 민족이 이 해협과 접하여 오랜 기간 역사적 관계를 가졌다. 언어상으로 관계된 민족과 그들의 대표적 명칭의 예는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영국해협과 관련된 언어별 고유명칭

언어	고유명칭	영어명칭
Breton(Brezhoneg)	Mor Breizh	Sea of Brittany
Cornish(Kernuack)	Chanel	Channel
Germanic	Engelse Kanaal	English Channel
Dutch(West Flemish)	Het Kanaal	The Channel
Spanish	El Canal de la Mancha	The Channel of Sleeve(?)
Portuguese	O Canal da Mancha	
Norman	Maunche, Chnal, Chna	
Italian	Canalites Anglie	English Channel
Welsh	Mor Udd	

명칭의 역사상 변화를 기록으로 알아보면, 2세기 학자 톨레미(Ptolemy)에 의한 고대 기록에서 브리티시 해(Oceanus Britannicus: British Ocean or British Sea)라는 명칭을 찾을 수 있고, 그 이후 다른 기록들에서 ‘British channel’, ‘the Channel’, ‘la Manche’ 등의 명칭을 찾을 수 있다.

17, 18세기부터는 두 가지 주된 명칭이 사용되었는데 영어명칭인 영국해협(English Channel)과 불어 명칭인 라망시(la Manche)다. 불어로 소매 깃이란 뜻의 ‘la Manche’는 해협 모양 때문에 붙여진 명칭이라는 해석이 일반적이며 언어에 따라 각기 다른 고유지명으로 불렸다. 18세기 이후에는 ‘영국해협’이라는 명칭이 널리 사용되었는데 그 주요 원인은 영국의 막강한 해군력, 많은 식민지와 연관된 정치적·국제적 영향력을 들 수 있다.

최근에는 EU라는 정치·경제 공동체 인식의 발달로 물질·물리적으로도 영국과 유럽 대륙을 연결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그중 EU에서 발행한 한 지도에서는 영국 남쪽지역, 북 프랑스, 벨기에 등과 함께 ‘유로화 사용지역(Euro Region) 지도’에 표시된 ‘le Pond’라는 해역 명칭이 영국해협을 대신하여 EU 일부 계획가들에 의해 표기되기도 하였다(www.newsoftheword.co.uk, April, 2010). 이러한 표기는 다분히 정책적인 시도로 이 해협이 영국과 프랑스에 의해 공유된 공간이며 양국(나아가 EU 국가 간) 활동을 돕는 상호 연결의 장으로 쓰임을 의미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은 양국



<그림 2> 영국해협 출처: worldatlas.com

에서 많은 반발을 초래하고 있으며 지명 문제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시키고 있다.

현재 영국해협을 명칭은 UN지명표준화회의(UNCSGN)의 결의안(1977)과 국제수로기구(IHO)의 1974 결의안인 'Section A 4.2.6'에 의거한 제시안과는 달리 - "It is recommended that where two or more countries share a given geographical feature under different names, they should endeavour agreement on a single name for the feature concerned." - 영어명칭인 'English Channel'과 불어명칭인 'la Manche'가 동시 표기되고 있고(출처 : Li, 2005), UN에서도 영국 지도는 영국 육지측량부의 지도를 인용하여 'English Channel', 프랑스 지도는 'Manche'로 표기하며 이름을 통일하려는 별다른 노력없이 이 두 가지 명칭을 병행 사용하고 있다.

### 3) 영국해협과 동해 명칭 분쟁과의 관계

영국해협은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두 나라가 공유하는 공간으로 그 공유하는 정도가 큰 만큼 지명 표기도 평화적으로 이루어진 사례다.

그 이유로는 오랜 경제, 문화적 교류 외에도 정치적 힘의 균등을 들 수

있다. 이들 나라는 경제, 문화적으로 선진국일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오랫동안 힘의 균형을 유지해왔다. 이러한 그들의 영향력은 세계지도 제작 초기부터 보이기 시작해 아직도 국제사회에서 균등한 정치력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면 두 나라 모두 UN안전보장이사회(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이하 UNSC)에서 상임 이사국으로, 국제적 이슈에 결정권과 거부권을 갖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힘의 균등은 서로의 의견과 문화를 존중해 평화로운 지명 공존을 가능하게 했고, 실제로 서로의 교류와 이익을 추구하고 화합을 도모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영국해협과 동해와의 연관성으로는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한다는 점을 들 수 있는데, 어원이 다른 두 가지 명칭인 해역 고유지명이 병행 사용된다는 실질적 예가 될 수 있다. 또한 이 지역의 평화적, 암묵적인 지명 공존은 이 해역을 이용한 두 국가 간의 지속적인 교류와 의견일치 등에 기인하기도 하는데 이와 같은 관계 강화는 명칭 문제를 풀어가는 보조수단이 되기도 함을 엿볼 수 있다.

## 3. 페르시아 만(Persian Gulf)

### 1) 지리적 특성

이곳은 『해양과 바다의 경계』(1953)에서 두 명칭(Gulf of Iran, Persian Gulf)이 병기되었는데 인도양에 연결된 아라비아 해의 부분 바다로 아라비아반도와 이란 사이에 위치한 90,000 sq mile(233,100km<sup>2</sup>) 크기의 경제적으로 매우 생산적인 바다다. 지리적으로 오만 걸프(Gulf of Oman)와 호르무즈 해협(Strait of Hormuz)을 통해 연결되어 있는 수심이 비교적 낮고(평균 50m, 최대 90m), 바레인(Bahrain) 외에도 크고 작은 많은 섬을 갖고 있는 해역이다.

역사적으로 페르시아 만은 중요한 수송/무역 통로였는데 고대 메소포타미아 왕국 붕괴 이후 그 지배권이 아랍인, 페르시아인, 터키인과 서양 유럽인으로 나뉘고 1853년 영국과 아랍 쉬크 수장국과의 종신 정전 협정에 의해 아라비아 해에서의 영국 해상권을 인정하면서 이 지역에 대한 영국의



〈그림 3〉 페르시아 만과 주변지역  
출처 : UN Department of Public Information  
(www.un.org/depts/dhl/maplib/docs/escwa.pdf)

주권권을 인정한 역사도 있어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으로 매우 복잡한 배경을 가진다. 1960년대까지 주둔했던 영국 해군의 철수 이후 미국과 러시아에 의해 장악되었으며 현재는 미 해군이 주둔하고 있다. 또한 이 지역에는 거대한 석유자원에 대한 욕망과 더불어 오랜 기간 계속된 아랍인과 페르시아인의 분쟁역사로 국제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대표적인 사례가 1980년대 이란-이라크 전쟁과 1990년대 이라크-쿠웨이트 전쟁, 1991년 걸프전(사우디아라비아-주변국) 등을 들 수 있다.

## 2) 명칭 분쟁의 역사적 배경

이슬람 종교 이전 이 지역은 유목민들에 의해 다스려졌고, 기원전 4세기가 끝날 무렵에는 고대 문명인 딜문(Dilmun) 문명이 이 지역 남쪽 해안가를 장악하기 시작하여 7세기에 이르러 사산왕조(Sassanid)가 이 지역의 대부분을 다스렸다. 그 후 이 지역은 동서교류와 무역의 주요 통로인 실크로드와 함께 고대의 주요 무역항(예-Siraf: 현 이란 부시르)으로 더욱 중요한 지리적 요지로 자리 잡게 되었다.

바스코 다가마의 세계 대항해 이후 식민시대인 16세기 초에는 포르투갈과의 전쟁과 약탈을 겪었지만 17세기 초 영국함대의 도움으로 이란의 독립을 찾고 바레인으로부터 그들을 쫓아내 호르무즈 섬을 되찾았다. 그 이후로 영국은 이 지역에 자리 잡고(1967~1971), 어느 정도의 정치적 힘을 행사하게 되었다. 현재 페르시아 만에 위치한 국가들은 그들의 천연자원뿐 아니라 무역 통로로도 번성하여 포르투갈, 네덜란드, 프랑스, 스페인, 그리고 영국 등과 거래를 하며 번성하게 되었다. 이렇듯 이곳은 예나 지금이나 지질학적, 고고학, 지리학, 상업, 정치, 관광, 혹은 학술적으로 중요하여, 아놀드 윌슨 경(Sir Arnold Wilson)은 “No water channel has been so significant as Persian Gulf to the geologists, archeologist, geographers, merchants, politicians, excursionists, and scholars whether in past or in present. This water channel which separates the Iran plateau from the Arabia Plate, has enjoyed an Iranian Identity since at least 2200 years

ago(Wilson, 1928).”라고 기록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리학적 중요성과 천연자원으로부터의 이익은 분쟁이 끊이지 않는 배경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곳의 명칭은 역사적, 보편적으로 페르시아인 걸프(Persian Gulf)로 알려졌지만 아랍국가 사이에서는 아라비아인 걸프(Arabian Gulf) 혹은 그냥 걸프(the Gulf)라고 불리고, 터키에서는 바스라 걸프(Gulf of Basra)로 불린다.

Daryaee(2003)에 따르면 명칭의 기원은 첫 페르시아 제국에서 시작했다고 보이는데 현재 이란 고원에 위치한 팔스(Fars, 고대명 Pars)에 제국을 건설하던 기원전 550년부터 이미 페르시아인 걸프라고 일컬어졌다고 한다.

구전된 이야기에 따르면 이란인들에 의해 ‘Jam Sea’, ‘Iran Sea’, 혹은 ‘Pars Sea’로 불렸다. 페르시아 제국시대인 기원전 559~330년 까지는 팔스 해(Pars Sea)라고 널리 쓰였음이 기록되어 있으며, 팔스/페르시아 제국(Pars Empire/Persian Empire)의 다리우스 제왕이 이 페르시아인 걸프 수로를 ‘팔스 해/페르시아 해’라 명명했다고 새겨진 명판에서도 그 명칭의 기원을 찾을 수 있다.

문서상 기록에 의하면 페르시아인 걸프로 불리던 기록이 상대적으로 많은데 이는 정통성을 주장하는 이란의 주장과 이를 지지하는 유엔의 입장을 잘 보완하고 있다. 현재 지명에 관한 논란을 주장하는 서로 다른 그룹들이 있는데 그중 이란의 입장을 고수하는 한 웹사이트 (the-arabian-gulf-does-not-exist.com)에서는 시대별로 틀린 기록을 통해 ‘Persian Sea’ 혹은 ‘Persian Gulf’ 등의 일관성을 보여주고 있다. 지도에서의 기록을 보면 처음 페르시아인 걸프로 칭한 지도는 기원전 약 500년 것으로 보인다. 그 외 이 지역의 고지도(출처 : the Bukhari Collection of Antique Map of Arabia)를 살펴보면, 다음(〈표 2〉)과 같은 다양한 명칭을 볼 수 있다.

〈표 2〉와 같이 이 해역은 주로 페르시아 만이라고 칭해졌지만 이 해역을 어떻게 부르고 기록하는가는 각 민족에 따라 입장과 선호하는 명칭이 다르다.

〈표 2〉 고지도에 표기된 페르시아 만의 명칭

지도 속 지명 Toponym in Map	지도 제목 Map Title	연도 Year	지도제작자 Cartographer	출처 the Source
Presicus Sinus	European map 'Arabia'	1616	Dutch Cartographer Pieter Bertius	Bukhari Collection of Antique maps of Arabia
Sinus Persicus	Woodcut version in Basel 'Tabvta Asiae Vi'	1540	European translation of the work of Alexandrian geographer Ptolemy	
Golpho De Persia	'Arabia felix nova tabvla'	1548	Giacomo Gastaldi	이탈리아
Mare Elcatif, Sinus Persicus	'Arabia Felicis, petraa et Deserta'	17 Century	Jan Jansson	Amsterdam, Netherlands
Sinus Persicus				
The Sea Elcatif Sometimes the Arabian Gulfe	'The Turkish Empire'	1627	John Speed of London	영국
Golfo di Balsora		1707	Pieter van der Aa	네덜란드
Golfe de Perse ou Baye de Basra	'Arabie'	1740	unknown	Paris, 프랑스 As part of a book on the life of the Prophet Muhammad

### 3) 이 지역 명칭 분쟁의 진행 상황

1960년대 이후에 제기된 지명 분쟁은 아랍 국가들이 현대 아랍 민족주의를 내세운 시기와도 맞물려있다. 페르시아의 후예인 이란에서는 '페르시아 만'이라는 이름만이 사용되며 '골프'나 '아라비아 만'이라는 명칭은 부분적으로도 야예 거론되지 않는다. 2006년 UNGEGN에 제출된 조사보고서에 의한 그들의 입장은 "이란(페르시아)은 이 해역에 접한 가장 긴 해안선을 가진 나라이므로 본인들이 아니라 지리학자나 전문가에 의해 선택되더라도 페르시아 만보다 더 나은 명칭이 없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런 입장은 실제 생활에도 반영이 되는데, 이란에서는 '페르시아 만의 날(The National Day of Persian Gulf)'을 지정하기도 하고, 이날을 기념하는 우표를 발행하기도 했다.

아랍 연맹에서는 페르시아 만이라는 지명 사용에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



〈그림 4〉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Western Asia  
출처 : UN 경제사회 이사회

이들의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고, 관련 국가 외에도 국제사회에서 관심을 받으며 미묘한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제3자인 유엔지명전문가 회의(UNGEGN)와 국제수로기구(IHO), 그리고 각기 다른 나라들에서도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이런 입장은 시기와 시간에 따라 변하기도 한다.

유엔 사무국(United Nations Secretariat) 직원들은 오직 '페르시아 만'을 사용할 것으로 요청해왔고 최근에 발행한 1994년과 1999년 지침서에는 '페르시아 만'으로 표기해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UNGEGN도 1959년 4월 23일에 벌써 이 결정을 지지했는데 그것은 1997년 지도에도 잘 반영되고 있다(〈그림 4〉).

또한 23회 명칭 관련 회의(Held in Vienna from March 28th to April 4th, 2006)에서도 '아라비아 만'이라는 명칭 사용은 불완전한 사용이라 명시하였다(Economic and Social Council, United Nations, 2006). 이는 역사적 기록에서 페르시아 만을 사용한 빈도가 훨씬 많아 그 사용에 대한 진실성을 믿을만한 이유도 있지만 'Arabian Gulf'라는 명칭이 역사상 홍해(Red Sea)를 가리켜 사용된 기록이나 지도를 볼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그림 5〉).

IHO에서는 '이란 만/페르시아 만'이라는 이름을 쓰도록 'Reference S-23(Limits of Oceans and Seas, 1953), Section 41'에 초안을 마련했고 영국





〈그림 5〉  
Arabian Gulf for present Red Sea  
출처 : Map of 예멘  
drawn by Niebuhr, 1772  
(www.christies.com)

정부의 영구지리명칭상임위원회(PCGN: Permanent Committee on Geographical Names for Official British Use)도 ‘페르시아 만’의 사용을 지지한다는 초안을 마련했다. 미국은 1917년 ‘페르시아 만’이라는 명칭을 관습으로 따르고 다른 14개 다른 언어 변형안을 비판습적이라 지칭했지만 최근 다른 아랍국가와의 연합관계에 의해 미국무부 등은 작전 지역에 따라 부분적(e.g. United Arab Emirates)으로 지역법과 관습에 따라 ‘아라비아 만’으로 사용하라는 사용지침을 마련했다.

최근에는 위와는 다른 지명을 사용하는 사례가 늘었는데 오스트레일리아 군에서는 이 해역을 단지 ‘The Gulf’로 칭하는데 이 해수역 북쪽 부분은 작전에서 ‘Northern Arabian Gulf(NAG)’라고 칭하고, 2004년 판 『내셔널 지오그래픽』지의 ‘Atlas of the World’에서는 페르시아 만과 함께 ‘아라비아 만’도 병기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인터넷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이란인으로부터 반감을 일으켜 이란 정부의 정책을 유도하기도 했다. 이란 정부는 처음에는 국내에서 ‘아라비아 만’의 표기를 사용한 출판물을 막았는데 2004년 12월 30일부터는 정책을 바꿔 괄호를 지우고 “이 해역은 역사적으로나 대중적으로도 페르시아 만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으나 아라비아 만으로 불려지기도 한다(Historically and most commonly known as the Persian Gulf, this body of water

is referred to by some as the Arabian Gulf.”라는 부연 문구를 삽입하였다. 이와 같이 페르시아 만의 지명 분쟁은 이란과 그 외의 다른 아랍국가들 간에 일어났는데 그 국가들 중에서 특히 아랍에미리트 연합국이 그 중심에 있다 (Creedon and Al-Khaja, 2005). 1960년대 이후 아랍 민족주의에 바탕을 두고 페르시아 만 대신 다른 해역 명칭을 사용하지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는데 이 문제는 다분히 정치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당시 이란은 친 이스라엘 정책을, 이집트 및 다른 아랍 국가들은 친 팔레스타인 정책을 펴고 있어 이러한 대외정책이 지명 사용과 분쟁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Habibi, 2005).

이렇게 팽팽한 의견 대립이 지속되는 가운데 양측이 제안한 이름 대신 다른 이름으로 부를 것이 제안되기도 하였다. 중립적으로 단순히 ‘The Gulf(걸프)’(〈그림 6〉)라고 부르자는 주장과 ‘아랍-페르시아 만(Arabo-Persian Gulf)’ 병기, 또는 ‘이슬람 만(Islamic Gulf)’이라는 대안이 나오기도 하였다.

#### 4) 페르시아 만과 동해 지명 분쟁과의 연관성

오랜 전통을 지닌 페르시아 만이라는 지명도 주변국들의 의지와 상황 변화로 분쟁을 겪고 있다. 아직은 국제적인 지지도로 인해 페르시아 만의 공식명칭에는 변화가 없지만 이란을 제외한 주변국이 아랍어를 사용하고 아랍 민족주의를 고수한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상황이 주목된다.

동해 명칭의 정립을 위해서는 이 지역에서 이란의 대처 방안과 아랍국들의 도전 방식 등 양쪽 모두에서 유용한 점을 찾아야 하는데 정통성을 주장하는 이란의 일관된 방침과 이를 뒷받침하는 정부와 일반의 일련의 정책이 그 한 면이고, 오랜 역사와 기록과는 상관없이 주변국들의 힘을 모아 도전하는 아랍국들의 방식이 그 다른 한 면이다. 동해와 일본해 명칭 분쟁도 이런 두 가지 정책이 적절히 조합되어 주변국들의 지지를 얻고 일관된 방침으로 정부와 민간이 함께 후원하면 국제적인 관심을 유도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림 6)  
The Gulf  
출처 : www.geocurrents.info/index.php?id=3948799907248955387

#### 4. 발틱 해(Baltic Sea)

##### 1) 지리적 특성

북유럽에 위치한 발틱 해는 내륙에 위치한 바다와 수로(水路)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바닷물이 섞여 있는 기수해(하구지역의 물로서 완전한 담수도 아니고 해수도 아닌 염분도가 낮은 물)다. 『해양과 바다의 경계』(1953)에 따르면 발틱 해 경계는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러시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폴란드, 독일과 닿아 있고, 3개의 만 -보트니아 만, 핀란드 만, 리가 만(Gulf of Bothnia, Gulf of Finland, and Gulf of Riga)- 을 포함한다. 또한 독일 북쪽에 위치한 세계 최대의 키엘 운하가 있어 국제적 수송 운항로로 이용된다.

##### 2) 명칭의 역사적 배경

그중 해역 명칭을 둘러싼 역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다양한 이름과 관련된 기록을 볼 수 있다.

- 고대 로마제국 시대 : the Mare Suebicum or Mare Sarmaticum
- AD 551 : Germanic Sea
- 11세기~ : Mare Balticum(BalticSe)라는 명칭이 사용되기 시작함.

- 중세 바이킹 시대 : 여러 가지 이름으로 알려짐. Eastern Lake(Austmarr), Gandvik, East Sea, West Sea
- 13~17세기 : Mare Nostrum Balticum(Our Baltic Sea), 16세기부터 발틱 해라는 명칭이 우세하게 사용됨.
- 19세기 : 발틱 해 동쪽지역이 발틱국가로 불리기 시작함.

18세기 이후 근대와 현대에 이르러 많은 전쟁(크리미아 전쟁,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의 역사를 거치면서 이 해역의 전략적, 경제적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었다. 16세기부터 영어권에서는 발틱 해로 통일되어 불린 이 해수역은 또한 'East Sea' 혹은 'West Sea'로도 불려왔는데 주로 영어 사용지역이 아닌 게르만어 사용지역에서는 'East Sea'로 불리고(예를 들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아프리카너어로는 'Oossee'로, 덴마크어로는 'østersøen', 네덜란드어로는 'Oostzee', 독일어로는 'Ostsee', 노르웨이어로는 'østersjøen', 그리고 스웨덴어로는 'Östersjön'로 불린다). 또한 핀란드에서도 'Balto-Finnic' 언어에는 없는 스웨덴어 'Itämeri'를 차용하여 지리학적 위치와 상관없이(발틱 해는 핀란드 서쪽에 위치함) 'East Sea'라는 뜻의 명칭을 사용했는데 이는 핀란드가 중세부터 1809년까지 스웨덴의 일부에 속해 있었기 때문으로 설명된다. 반면, 에스토니아에서는 또 다른 'Balto-Finnic language'인 'Läänemeri(West Sea)'라고 지리학적 위치에 알맞은 명칭을 사용한다. 그 외에도 발틱 해는 영어로는 'Baltic Sea', 로만어족인 라틴어 'MareBalticum' 그리고 프랑스어 'MerBaltique', 이탈리아어 'MarBaltico', 포르투갈어와 스페인어 'MarBáltico'로 불리고, 슬라빅어족인 폴란드어 'Morze Bałtyckie or Bałtyk', 불가리아어 'BaltiyskoMore(Балтийско море)', 폴란드 북부어 카슈비아어 'Bôłt', 그리고 러시아어 'Baltiyskoye Morye(Балтийское море)', 발틱어족인 라트비아어 'Baltijasjūra'와 리투아니아어 'Baltijosjūra' 등으로 다양하게 불린다.

발틱 해는 현재 영어로 된 외래지명으로 대표되지만 주변국인 스웨덴, 독일, 폴란드, 러시아와 발틱국가(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에서는 서



〈그림 7〉  
발틱 해  
출처 : worldatlas.com

로 다른 자칭지명인 토착지명(Endonym)을 사용하고 있다. 즉 스웨덴에서는 ‘Östsjön(East Bay)’로, 독일에서는 ‘Ostsee’, 러시아에서는 ‘Балтийское море’, 에스토니아는 ‘Läänemeri’로 표기하고 있지만 암묵적 승인 하에 명칭에 관한 아무런 문제없이 고유지명을 인정하고 있다.

### 3) 발틱 해의 사례와 동해 지명 분쟁과의 연관성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나라들로 둘러싸인 발틱 해는 언어가 다른 국가에서 사용하는 고유지명의 사용이 암묵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상태이므로, 우리가 ‘동해’라 칭하고 일본은 ‘니혼카이(Nihon Hai : 일본해)’라고 칭하는 것과 비슷하다. 하지만 동해는 발틱 해의 경우와는 다르게 외래지명(Exonym)이 그중 한 외래지명을 따라 ‘Japanese Sea(일본해)’로 표기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발틱 해는 주변 3개국을 발틱국가라 칭할 수 있으므로 포괄적인 명칭이기도 하지만 동해를 일본해라는 외래지명으로 국제지도에 표기한다는 것은 포괄적이지 못할 뿐 아니라 특정한 국가에 의해 선호되고 편향

된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발틱 해처럼 포괄적이지도, 혹은 어느 특정 국가에도 치우치지 않은 지명이 아니기 때문에 두 명칭을 병행해야 함을 강조할 수 있다고 본다.

## 5. 스카게라크 해협(Skagerrak)

### 1) 지리적 특성

스카게라크 해협은 길이 280km, 너비 130~150km 해역으로 서쪽은 북해와 이어지고 동쪽은 카테가트 해협을 거쳐 발트 해로 통한다. 유틀란드 반도 쪽은 수심이 얇고 북쪽 노르웨이 쪽은 수심이 700m 이상 되는 곳이 있다. 덴마크 어업에 있어서 이 해역은 카테가트 해협과 함께 북해에 버금가는 중요한 어장으로 대략 2,000종이 넘는 풍부한 바다생물이 발견되는데 이는 다양한 서식환경과 풍부한 플랑크톤의 영향이다. 노르웨이 해류의 영향으로 부근 연안은 비교적 온화하다.

### 2) 명칭의 역사적 배경

언어학적으로 스카게라크(Skagerrak)라는 명칭은 일반적으로 네덜란드 어원으로 알려져 있고, 그 뜻은 대략 해협/수로(Skagen Channel) 정도로 해석된다. 덴마크 마을인 스카겐(Skagen)은 덴마크 북쪽 끝에 위치해 있고, 접미사인 ‘Rak’은 ‘곧게 뻗은 수로’를 뜻한다. 이 음절의 근본적 어원은 인도 - 유럽원조 어원인 reg - 로, 그 뜻은 ‘곧은, 직선의(Straight)’다.

현 노르웨이어에선 ‘Rak’이 ‘Straight’를 의미하지만 현 덴마크 단어인 ‘Rak (Meaning: Rabble or Riff-Raff)’과의 연관성이 있는지는 정확치 않다.

오래된 이름 중에는 스카게라크 해협(Skagerrak)과 카테가트 해협(Kattegat)을 함께 묶어서, 노르웨이 해(Norwegian Sea) 혹은 유틀란드 해(Jutland Sea) 등으로 부르기도 했는데 이러한 기록은 13세기에 쓰인 아이슬란드의 사가 ‘크누트 후예의 전설(Knýtlinga Saga)’에도 나타나 있다. 이 해역은 8~11세기에는 바이킹의 해상 통로였으며 1916년에는 영국과 독일 사이에 벌어진 유틀란드



(그림 8) 스카게라크 해협

해전의 싸움터가 되었다. 지정학적 위치상 이 해역은 독일에 매우 중요했는데 독일 역사상 가장 큰 전쟁인 제1차 세계대전과 유탄란드 해전(혹은 The Battle of the Skagerrak)이 일어난 곳이다. 발틱 해로 향하는 유일한 해상로인 이 해역의 경제적 의미도 매우 커서 제2차 세계대전에는 독일이 덴마크와 노르웨이를 침략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지명 변화를 살펴보면, 먼저 이 지역은 관련 국가 간 협의가 잘 이루어진 사례에 속한다. 과거 이곳의 지명은 관련국가(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사이에 철자 맞춤법(순서대로 Skagerak, Skagerack and Skagerrak)이 일치하지 않았으나 현재는 관련된 세 국가가 맞춤법을 통일해 하나의 공식 표준명칭인 '스카게라크(Skagerrak)'를 일괄 사용하고 있다.

### 3) 스카게라크 해협의 사례와 동해 지명 분쟁과의 연관성

스카게라크 해협의 지명은 관련 국가 간 협의에 의해 일괄적으로 통일된 지명 분쟁의 가장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보여준 사례지만 단순히 철자법 차이를 조금씩 양보함으로써 해결이 된 단순한 사례이기도 하다. 동해 문제는 이 사례와는 다른 복잡한 문제들이 문제의 중심에 있어 이 사례를 적용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관련 국가가 서로의 주장만을 펴지 않고 한 가지씩 양보했다는 점에서는 일본과 한국 모두에게 좋은 교훈이 될 것이다.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나의 고유지명이 중요한 만큼 주변국의 고유지명도 중요시하여 외래지명에 반영할 준비가 되어야 할 것이다.

## III. 바다 명칭의 다양성과 국제적 원칙

### 1. 해역 명칭의 다양성과 분쟁의 사유

바다 명칭에 대한 그 다양한 분쟁 사유를 분석·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민족의 역사, 언어, 사회와 연관된 이념과 민족 감정과 그들의 의지
- 나. 현 정치, 경제, 사회와 연관된 정책 변화
- 다. 과거나 최근에 작성된 조약의 타이밍과 모호성
- 라. 국제적 영해법과 연고권의 다양한 효율성과 적용

대부분의 사례가 한 가지 원인으로 분쟁에 돌입하지는 않지만 그중 많은 사례가 서로 다른 언어와 역사에서 시작한다. 페르시아 만의 지명 분쟁은 이란과 다른 아랍 국가들 간의 경제, 사회적 라이벌 관계가 지명 분쟁으로 표출된 대표적인 경우고(Kadmon, 1997), 현재도 진행 중이다.

국제적 조약이나 영해법은 국가 간의 영토와 영역을 나눠 분란을 막는 데 일조했지만 그 이면에는 단어 선택이나 해석이 모호하고 그 적용이 일률적이지 않아 또 다른 분쟁을 일으키기도 했다. 국제적 조약이나 영해법 등은 국제기관을 통해 정해지는데 그 대표적인 예는 UNGEGN과 IHO가 있다. 캐나다의 자연자원국(Natural Resource, 2010)에 따르면 UN에서는 지명 표준화에 관해 아홉 번의 공식회담(Convened in 1967, 1972, 1977, 1982, 1987, 1992, 1998, 2002 and 2007)이 있었고 그로 인해 현재까지 195개의 결의안이 있다. 또한 IHO는 1921년 국제수로국(International Hydrographic Bureau)이 설립된 후 1967년에 현 이름인 IHO로 바뀌었고, 현재는 80여 개국이 가입되어 있다. 이 기구를 통해 많은 항해도나 해상과 관련된 문서가 제작, 기록되었다.

그 가운데 하나가 『해양과 바다의 경계』로 1953년에 제3권이 출간된 이후 1977년부터 수정, 개정판을 제작하려 노력 중이다. 개정 4판은 가입국들로부터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아직 출판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1953년 판 『해양과 바다의 경계』가 공식문서로 남아 있다. 이 책은 한국과 일본 사이의 바다를 일본해로 기록해서 현 지명 표기 문제의 불공정한 상황을 제공한 원인으로 일본이 동해를 일본해라고 주장하는 가장 큰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1929년에 초판이 만들어진 『해양과 바다의 경계』라는 지침서에 적혀 있다. 여기에는 초판부터 1953년 개정 3판까지 일본해라는 해역 명칭을 사용해왔는데 무엇보다 가장 큰 원인은 이 지침서의 제작이 이뤄지던 때를 기준으로 한 타이밍을 들 수 있다. 이 지침서를 만든 IHO가 성립된 1919년과 이 책을 초판 발행했던 1929년에 한국은 일제침략으로 주권을 상실해 이 기구에 사절단을 파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1957년부터 한국도 이 기구에 가입되어 있으나 이미 개정 3판이 발행된 후이기 때문에 한국의 영해와 이어지는 동해에 대한 올바른 표기를 주장할 기회가 없었다. 앞으로 발행될 개정 4판에서는 국제수리기구의 회의 등에서 이에 대한 논의와 투표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논리 적절한 주장을 해야 한다. 그런 논리 중 하나는 ‘동해’를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사용해 왔다는 역사적 배경인데 이는 세계 지리학회의 지명 결정 근거인 ‘역사성과 대표성’이므로 지리학의 지명학을 바탕으로 그 근거를 지원할 수도 있다.

또 다른 국제 지명 관련 기구인 UNGEGN은 2004년 제22차 회의에서 ‘동해 문제에 대해 양자 및 다자간 해결책 마련을 권고’함으로써 직접적 개입을 피하였고, 현재까지 가장 적절한 해결방안으로는 동해와 일본해의 병기라고 제시했지만 이는 1974년과 1977년에 이미 UNCSGN에 의해 결의된 사안이기도 하다.

## 2. 지명 분쟁 조절을 위한 국제적 원칙

국제화 시대인 지금도 지명에 관한 이견이나 분쟁은 이유도 다양하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해결방안이 한 가지로 수렴되지는 않지만 분쟁사례를 바탕으로 찾을 수 있는 몇 가지 원칙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가. 명칭은 바뀔 수 있다.
- 나. 지도의 역할이 크다.
- 다. 정책과의 연관이 크다.
- 라. 국제적 원칙과 사용이 크게 작용한다.
- 마. 타이밍이 중요하다.
- 바. 좀 더 포괄적인 지명이 선호된다.
- 사. 일반적 이해를 돕는 명칭이 선호된다.
- 아. 옵션이 다양할 수도 있다.

## IV. 맺음말

본 연구는 해역 명칭에 관한 이해를 넓히고 원근법적 관점을 제시하여 장소, 특히 해역명에 관한 보다 포괄적인 안목을 제시하고자 했다. 주로 영어로 된 자료들과 역사 지도를 바탕으로 유럽과 아시아의 해역 명칭과 관련된 역사적, 지리적 배경을 제공했으며, 해역 명칭과 관련된 분쟁사례 연구를 통해 각 지역의 다양한 문화적 특성과 분쟁의 배경을 동해사례와 연관해 이해하고자 했다.

해역 명칭에 관한 지리학적 사례 연구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기반을 제공하며, 관례를 토대로 여러 각도와 관점이 주는 원근법적 해석과 서로 다른 시각에 따른 입장을 이해하여 서로의 이해를 돕는 역할을 한다. 특히 변화하는 세계관에 알맞은 대처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지도는 지정학적 산물이기 때문에 군사적으로나 혹은 전략적으로, 실제적인 상태나 잠재적인 계획에 따라 국가의 정치적 공간에 반영되기 때문에(Heffernam, M. 2002), 지명과 해역 명칭의 표준화를 돕는 데 커다란 몫을 할 것이다. 따라서 지명과 해역 명칭의 표기는 문서 상에서만뿐만 아니라 세계지도상에서의 표기도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 많은 나라들이 토착지명을 사용함으로써 지명 독립화를 이루고 민족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한다. 오늘날 세계 국경의 대부분은 최근 150년 이내에 확정된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도학은 각국의 국경을 확립하고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지도는 정치적인 세력을 표현하는 수단이며, 동시에 국가 정체성을 확립시키고 고양시키는 수단이기도 하였다. ‘한국지도 : 동북아시아 역사지도’를 제작하거나 한국지명사전을 완성하는 등의 노력도 함께 기울인다면 한국 지명 토착화와 한국인의 표준화된 지식을 국제적으로 공유하려는 시도와 함께, 국민들에게도 지명 독립화나 표준화의 중요성을 각인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아직은 전 세계 모든 지역 혹은 해역에 대한 명칭의 국제적 표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이고, 그러한 표준화가 쉽게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장소 혹은 해역 명칭에 대한 기존의 해결과정과 타협점을 살펴봄으로써 기존 토착지명의 역사적, 문화적 의미를 잃지 않는 방향을 제시하거나, 또는 주장할 수도 있다.

동해/일본해 지명 표기 문제와 관련하여 현재까지는 “……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서로 다른 명칭을 병기할 것(UNCSSG & IHO, 1974, 1977)”이 권고되므로, 한국과 일본도 동해/일본해 이슈에 대한 합의를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를 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위에서 언급한 몇 가지의 해결방안 중 한국은 적절치 못했던 식민지하의 타이밍에 대해 국제적으로 호소할 수도 있고, 좀 더 범아시아적으로 포괄적인 지리학적 상대적 방향성을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제 사회를 설득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옵션 방향인 동해/일본해 병기를 해결점으로 타협할 수도 있다고 본다. 무엇보다도 국제적 정책이 큰 역할을 하므로 지명 표준화가 정립되는 날까지 한국에서 동해가 갖는 문화적, 역사적, 지리적 의미에 대한 국제적인 이해를 높이고, 더 많은 지도제작사가 동해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는 정치적, 정책적 지지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지명학에 대한 기초지식을 제공하고 특정 해역 명칭을 사례로 장소에 대한 사회적, 역사적, 지리적 사건들을 알아봄으로써 각 민족이 어떻게 그들의 거주를 결정하고 사회, 문화적으로 어떤 상호 발전을 도모하였는지 연구 조사하여 특정 이름과 연관된 지역의 과거와 현재의 공백을 잇는 연결고리를 마련하고자 한다. 특히 동해 명칭 분쟁과 관련하여 세계 여러 곳의 해역 명칭에 대한 지리적,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이해를 넓히고, 명칭 분쟁에 대한 요인과 해결점 등을 개별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 비교, 연구하여 언어의 차이, 지리상 상대적 위치의 차이, 문화 역사관의 차이, 경제적 목적 그리고 정책 조약의 모호성과 효율성 등으로 그 원인과 분쟁의 배경을 나눠 동해와 일본해 명칭 분쟁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또는 일반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시사해보는 데 이 연구의 의의를 두고 있다. 이 같은 분쟁사례 연구는 관례를 토대로 서로 다른 관점이 주는 원근법적 해석과 서로 다른 입장을 이해하여 서로의 이해를 돕는 역할을 한다. 특히 변화하는 세계관에 알맞은 대처방안을 모색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지도는 지정학적 산물이기 때문에 군사적으로나 혹은 전략적으로 실제적인 상태나 혹은 잠재적인 계획에 따라 국가의 정치적 공간에 반영하기 때문에(Heffernan, M. 2002) 지명과 해역 명칭의 표준화를 돕는 데 커다란 몫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분쟁사례의 분석은 기반 자료의 폭을 넓혀 향후 정부나 민간 단체들의 주장을 지원하고 입지를 마련하는 기반이 될 것이며, 각기 다른 상황에 맞는 일반적 이론을 적용시킬 배경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아직은 해역 명칭에 대한 국제적 표준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이 시점에 표준화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지명연구, 해역명, 지명의 체계화, 동해, 지명 분쟁, 사례 연구, 지도

## ABSTRACT

## Toponymy and the Analysis of Toponym Conflicts

Sang, Sunhee

Adjunct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University of Cincinnati

Toponyms are another word for place names. Whether it is real or imaginary, the name has been derived from places or regions by people. Therefore, a place's name indeed reflects current social and cultural image of the people living there as well as the past history of the area. Moreover, toponyms are the most popular and well-known world system of geographic locations. However, places' names are not yet established as a consistent and accurate system within and between nations, while the globalizing world requires the standardization of toponyms. To understand the background and the current issues and challenges related to toponym, especially with the name of the sea, this study examined five cases of toponym conflicts found in names of water body.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1) to provide the fundamental informations about toponym and toponymy, 2) to examine the socio-cultural, historical, and geographical background found in five examples of toponym conflicts, and 3) to analyze each conflict by comparing it with the case of 'East Sea' and 'Sea of Japan' toponym conflict. The five case studies include North Sea, English Channel, Persian Gulf, Baltic Sea, and Skagerrak. This study can be used as a part of database which supports the righteousness of the name, East Sea. This study also suggests the direction of the toponym standardization in which has general rules with diverse applications.

〈Keyword〉

Toponymy, Standardization of Toponyms, East Sea, Toponym Conflict, Map

## 참고문헌

- Powicke, reviewing Armstrong, Mawer, Stenton and Dickins, 1954, "The Place-Names of Cumberland(1950~1953)" in *The English Historical Review* 69(April 1954), p. 312.
- Mátyás Márton, Gábor Gercsák, 2007, Paper in The 13th International Seminar on the Naming of Seas and East Sea.
- IHO, 1953, *Limits of Oceans and Seas, 3rd edition*, International Hydrographic Organization.
- Roller, Duane W., 2006, "Roman Exploration" *Through the Pillars of Herakles: Greco-Roman Exploration of Atlantic*, Taylorand Francis.
- Pliny, "Preface, 20", *Natural History*.
- Li, Jin-Mieung, 2005, "Trends of the toponyms for 'East Sea/ Sea of Japan', past and present" The 11th International Seminar on the Naming of Seas, 6~8 Oct. 2005, Washington DC, USA.
- A. T. Wilson, 1928, *The Persian Gulf*, Oxford.
- T. Daryae, *Journal of World History*, Volume 14, Number 1, March 2003, pp. 1~16.
- Creedon P. and Al-Khaja, M., 2005, "Public relations and globalization: building a case for cultural competency in public relations education", *Public Relations Review* 31.3, pp. 344~354.
- Habibi, N., 2005, *How Should Iran Preserve the Name of Persian Gulf*, (canadafreepress.com/index.php/article/22899).
- Kadmon, N., 1997, *Toponymy: The Lore, Laws, and Language of Geographical Names*, New York: Vintage Press.
- Heffernam, Michael., 2002, "The Politics of the Map in the Early Twentieth Century", *Cartography and Geographic Information Science*, Vol. 29 No. 3, pp. 207~226.

# 일본 외무성의 '일본해' 홍보 사이트에 대한 비판적 검토

김호동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연구교수

## I. 머리말

2012년 4월 국제수로기구(IHO) 총회가 열린다. 이때를 대비하여 한국 정부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바다 이름에 대해 '동해(East Sea)'와 '일본해(Sea of Japan)' 병기를 관철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2011년 8월 8일, 미국과 영국이 해양 명칭을 논의 중인 IHO 해양경계 담당 실무 그룹에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 알려지면서 동해 명칭 표기에 대한 여론이 들끓었다. 우리 정부가 2000년만 해도 전 세계 지도에서 2.8% 수준이었던 동해/일본해 병기가 최근 28.07%까지 올라왔다 고들 하지만 '겨우 28.07%'의 수치로 IHO 총회에서 호칭 병기가 채택될 것 인지는 현 시점에서 부정적이다.

미국과 영국 등이 '일본해' 고수 입장을 재천명한 것은 IHO 총회에 임하는 일본 정부의 '일본해' 고수 입장이 지금까지 먹혀들었다는 의미이며, 한국 정부의 대응이 그간 미흡했다는 의미다. 미국과 영국 등이 '일본해' 고수 입장을 재천명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새로운 전략을 세워야 할 시점이다. 그것을 위해 일차적으로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서 '일본

해' 표기 입장 천명과 한국 외교통상부 홈페이지의 '동해' 표기 입장 천명을 비판적으로 검토,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일차적 검토가 필요한 이유는 한일 양국 외교당국이 홈페이지를 통해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www.mofa.go.jp/mofaj)의 경우 '죽도(竹島)' 홍보 사이트와 함께 '일본해(日本海)' 홍보 사이트를 게시하고 있다. 현재 게시된 '일본해' 홍보 사이트는 헤이세이[平成] 21년 11월, 즉 2009년 11월에 게시된 것이다. 그에 반해 한국 외교통상부의 경우 2007년 12월 홈페이지를 통해 동해에 관한 입장을 표명하였고, 2010년 12월, 홈페이지 개편 때 약간의 자구 수정을 통해 외교통상부 홈페이지(www.mofat.go.kr) 이슈란에 '독도'와 함께 '동해 명칭'에 관한 홍보를 게시하고 있다. 그 외 동북아역사재단 홈페이지(www.nahfor.kr)의 '[역사현안동영상] 역사의 갈등을 넘어-동해 표기'와 '동북아역사이슈' 사이트에서 '동해 표기'에 대한 입장을 개진하고 있고, 국립해양조사원의 경우도 홈페이지(eastsea.khoa.go.kr)에 동해에 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2년 4월, IHO 총회를 대비한 양국 정부의 의견 개진은 그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질 것이므로 양국 정부의 견해를 검토함으로써 보다 철저한 대비방안을 개진하고자 한다.

## II. 일본 외무성 '일본해(日本海)' 홍보 사이트의 주장 검토

일본 외무성 '일본해' 홍보 사이트는 일본어 외에 영어, 한국어로도 게시 중이다. 또 일본해 홍보 팸플릿을 '신착정보'라고 하여 일본어 판, 영어 판, 한국어 판, 프랑스 판, 스페인어 판, 러시아어 판 PDF 파일을 탑재하고 있다.

이 사이트 첫 페이지에는 '일본해 호칭 문제'라는 제목 아래 다음과 같이 일본해 호칭에 대한 박스 기사를 제일 윗부분에 신고 있다.



일본해는 일본해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입니다. 일본은 일본해의 호칭에 관한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하여 단호하게 반박할 것이며, 일본해의 단일 호칭을 앞으로도 확보해나가기 위하여 국제사회에 본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일본을 지지해줄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주장은 국제사회에서 유엔을 비롯하여 많은 국제기구에 의하여 인정된 것입니다.

박스기사 바로 아래에 '일본해 호칭 문제의 개요'라고 하여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주제를 게시하고 있다.

**일본해 호칭 문제의 개요**

1. 최근 들어 갑자기 일본해의 단독호칭에 관하여 극히 일부의 나라가 이의를 제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 이 이의는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3. 일본은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단호하게 반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4. 유엔과 미국 정부 모두 일본해 호칭을 정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5. 일본해가 국제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이라는 점은 외무성이 실시한 세계 각국의 고지도 조사에서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6. 최근 한국 정부도 자신들의 주장 일부를 철회한 것으로 평가되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위 박스기사와 '일본해 호칭 문제의 개요'에서 '일본해'의 호칭이 국제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이라는 점을 전면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런 기초 위에 유엔과 미국 정부 모두가 일본해 호칭을 정식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과 외무성이 실시한 세계 각국의 고지도 조사에서도 일본해가 국제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이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일본해 호칭 문제의 개요' 아래에 실린 신착정보 '일본해(日本海)-국제사회에서 오래 전부터 널리 사용되고 있는 유일한 명칭-' PDF 팸플릿 자료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주제로 이루어져 있다.

1. 일본해는 국제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입니다. 이는 외무성이 실시한 세계 각국의 고지도 조사를 통해서도 밝혀졌습니다.
2. 유엔이나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 정부도 일본해라는 호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3. 최근에 들어 갑자기 일본해라는 단일 호칭에 대하여 극히 일부 국가에서 이의제기가 시작되었으나 이 주장에는 근거가 없으므로 일본은 단호하게 반론을 하고 있습니다.
4. 최근에는 한국 정부도 지금까지의 주장에서 일부를 철회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일본해 PDF 팸플릿 자료와 '일본해' 홍보 사이트의 내용을 비교하면 순서만 바뀌었을 뿐 내용은 거의 일치한다. 전자가 2009년 3월에 작성된 것이고, 후자가 11월에 작성된 것이므로 전자를 토대로 하여 후자가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일본 외무성은 일본해가 국제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이라는 근거로 첫째, 외무성이 실시한 세계 각국 고지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둘째, 유엔이나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 정부도 일본해라는 호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내세운다. 그에 대한 일본의 주장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외무성이 실시한 세계 각국 고지도에서 '일본해'가 국제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이라는 근거로 '일본해 호칭 문제의 개요'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외무성 조사 결과 18세기까지의 미국 및 유럽의 지도에서는 일본해 이외에 '조선해(Sea of Korea)', '동양해(Oriental Sea)', '중국해(Sea of China)' 등 다양한 명칭이 사용되고 있었으며, 19세기 초 이후 일본해의 명칭이 다른 명칭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내세우며, (1)대영박물관 및 캠브리지 대학 조사 결과(PDF), (2)프랑스 국립도서관 조사 결과(PDF), (3)미 의회도서관 조사 결과(PDF), (4)러시아에서 실시한 조

사 결과(PDF), (5)독일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PDF)를 제시하고 있다. 그에 반해 일본해 PDF 홍보 팸플릿의 경우 일본해 호칭이 처음으로 사용된 것은 17세기 초의 마테오 리치가 작성한 「곤여만국전도(坤輿萬國全圖)」임을 밝히고, 19세기 초부터 일본해라는 명칭이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일본해라는 호칭은 19세기 초에 구미인에 의해 확립된 것으로 여겨진다고 하였다. 그에 반해 한국의 고지도에 대한 조사가 매우 신빙성이 낮다고 하면서, 그 근거로 동일한 조사장소에서 한 일본의 조사는 한국의 조사보다 범위가 넓고, '동양해'와 '조선해' 호칭을 '동해' 호칭과 동일시한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둘째, 유엔이나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 정부도 '일본해'라는 호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우기 위해 일본은 '일본해 호칭 문제의 개요'에서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 1. 유엔의 방침

유엔은 2004년 3월 일본해가 표준지명임을 인정하고, 유엔의 공식문서에서 표준지명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방침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유엔 사무국은 이에 더하여 '어느 한쪽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본해와 동해의) 병기는 관행을 무시한다는 점에서 중립을 유지할 수 없으며, 공평성을 지키기 위해 확립된 관행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사도 표명하였습니다.

### 2. 미국 정부(미국지명위원회)의 방침

미국 정부기관의 하나인 미국지명위원회는 '일본해(Sea of Japan)'가 해당 해역에 대하여 본 위원회가 인정하는 유일한 공식명칭임을 정식으로 결정한 후 그 취지를 공표하였으며 미국의 모든 연방정부기관은 '일본해' 사용을 의무화하였습니다. 또한 그 외의 미국 내 기관에서도 일본해 사용을 강력히 추천하고 있습니다.

일본해 PDF 홍보 팸플릿의 경우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 정부의 방침'에서 미국 정부(미국지명위원회)의 방침에 덧붙여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등의 각 주요 국가 정부도 일본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이상의 주장을 통해 일본 외무성의 경우 일본해가 '국제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임을 강조하면서 "최근 들어 갑자기 일본해의 단독 호칭에 관하여 극히 일부 나라가 이의를 제기하기 시작하였습니다."라고 하여 1992년 제6회 유엔지명표준화회의(UNCSSGN) 이전에 양국 간은 물론 국제회의에서도 일본해의 명칭에 대한 이의 제기가 없다는 것을 내세우려고 하였다.

이어서 일본해 홍보 사이트에서는 한국의 이의 제기가 근거 없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 첫째, 일본해의 호칭은 일본의 팽창주의 혹은 식민지 지배의 결과로 널리 알려진 것이라는 한국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19세기 초에 일본해의 호칭이 다른 호칭보다 압도적으로 널리 사용되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더불어 19세기 초, 일본은 아직 쇠국정책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일본해 호칭 확립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한국에서 과거 2000년간 '동해'라는 호칭을 사용했다는 주장에 대해 그것은 어디까지나 한국 국내의 명칭일 뿐인데 반해 일본해 호칭은 국제적으로 널리, 오랫동안 사용한 호칭임을 부각시키고 있다. 셋째, '일본해'와 '동해'의 호칭 병기를 권고하는 유엔 및 IHO 결의가 있었다는 한국 주장에 대해 그것은 만이나 해협 등 2개 이상 국가의 주권 하에 있는 지형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일본해와 같은 공해(公海)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내세우면서 일본해와 동해의 병기를 권고하는 유엔 및 IHO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넷째, 신빙성이 낮은 한국 측 고지도 조사 결과에 대해 논하고 있다.

일본 외무성의 일본해 홍보 사이트에 대한 한국 외교통상부의 '동해(East Sea)' 주장이 어떤 것인가를 다음 장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 III. 한국 정부의 '동해' 표기에 대한 주장 검토

최근 한국 외교통상부 홈페이지의 '이슈'란에 '독도'와 '동해 명칭'에 관한 홍보물이 게시되었다. 그 홍보물 첫 페이지 '동해(East Sea)'에 실린 '우리 정부의 동해 표기 추진현황'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제일 먼저 “우리 정부는 1991년 유엔 가입 이후 1992년부터 동해(East Sea) 표기의 정당성을 제기하고, 동해 표기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가 제고되고 각국 지도상의 동해 표기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어서 “동해는 2000년 이상 사용되어 왔으며, 현재도 7,500만 명의 한민족이 사용하고 있는 명칭으로, 정부는 동해 표기가 세계지도에 정당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갈 것입니다.”라고 하여 동해 명칭을 되찾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동해 홍보물은 동해 표기의 정당성을 통해 동해 표기의 역사적 배경, 지명 표기 관련 국제규범, 국제사회의 동해 표기 정당성에 대한 지지입장 확산, 동해 표기의 중요성 및 병기의 합리성 등을 다루고 있다. 각 주장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동해 표기의 역사적 배경'은 다음과 같이 서술되었다.

첫째, 동해 표기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일본해 호칭의 부당성을 제기하기 위해 동해 명칭은 한국인이 2000년 이상 사용해왔던 것임을 부각하고 상대적으로 일본 정부에서 서양 고지도 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일본해라는 명칭이 19세기에 확립되었다고 내세우는 것을 의식하여 일본인 스스로가 동해 수역의 지명을 일본해로 인식하지 않았음을 부각하고 있다.

둘째, 19세기 말~20세기 초 일본이 아시아 강국으로 부상하면서 동해 수역은 '일본해'라는 표기로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고, 1929년 국제수로기구(IHO)가 『해양과 바다의 경계(Limits of Oceans and Seas)』 초판을 발간했을 당시 우리나라가 일본 식민지 아래에서 국제사회에 동해 명칭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일본해' 표기의 국제적 확산이 가속화되었음을 알리고 있다.

셋째, 1992년 제6회 유엔지명표준화회의 이전에 양국 간은 물론 국제 회의에서도 일본해 명칭에 대한 이의 제기가 없다는 일본의 주장을 비판하기 위해 IHO가 『해양과 바다의 경계』 제3판을 발간했을 때 6·25 전쟁 중이었음을 밝히고, 1965년 「한·일 어업협정」 체결 당시 한·일 양국은 해역 명칭에 합의하지 못해 결국 동해와 일본해를 자국어판 협정문에 각각 별도로 사용키로 결정한 것 등을 예로 들면서 6·25 전쟁 이후 동해 표기가 정당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음을 밝히고 있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1991년 유엔에 가입한 이후 1992년 UNCISG에서 처음으로 동해 표기 문제를 국제회의에서 공식 제기하게 되었다는 것을 드러냄으로써 일본 주장에 대한 효과적 비판을 하고 있다.

아래에 제시하는 「지명 표기 관련 국제규범」은 일본해와 동해의 병기를 권고하는 UN 및 IHO 결의가 있다고 한 한국 측 주장을 일본 외무성이 반박하면서 유엔지명표준화회의 결의 III/20 및 IHO기술결의 A.4.2.6은 만이나 해협 등 2개 이상 국가의 주권 하에 있는 지형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일본해와 같은 공해(公海)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시킨 데 대한 반론에 해당한다.

- 동해 수역은 한국, 북한, 일본, 러시아 4개국에 인접하고 있으며, 특히 동 국가들의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EEZ)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동해 수역에서 여러 국가가 '관할권' 또는 '주권적 권리'를 공유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 두 개 이상 국가가 공유하고 있는 지형물에 대한 지명은 일반적으로 관련국들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며, 만약 지명 명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각각의 국가에서 사용하는 지명을 병기합니다. 이러한 지도 제작 일반원칙은 국제수로기구(IHO)와 유엔지명표준화회의(UNCISG) 결의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해수역은 유엔해양법협약 제 122조에 의해 규정된 '반폐쇄해(Semi-enclosed Sea)'에 해당됩니다.<sup>1</sup>

이런 지명 표기 관련 국제규범에 따라 한국 정부는 동해를 '2개국 이상에 의하여 둘러싸이고 그 대부분이 2개국 이상 연안국의 영해와 배타적 경제 수역으로 이루어진 바다'라고 규정하면서 일본과 양자협의를 시작하였으나 협의 과정에서 일본 측의 비타협적인 태도로 그간의 논의가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교착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동해와 일본해는 병기되어야 할 것임을 밝힌다. 그렇지만 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아직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2009 한·중·일 역사인식조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동해/일본해 표기' 문제에 관한 설문에서 한국인 90.1%가 '동해로 표기'해야 한다고 하였고, '동해/일본해 병기'로 표현해야 한다는 주장은 7.6%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sup>2</sup> '동해/일본해' 병기에 대한 대국민 홍보 전략을 마련해야만 한다. 그런 점을 의식해서 외교통상부에서 '지주 묻는 질문'을 통해 동해 단독 표기가 아닌 '동해/일본해' 병기를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 그간 일본해가 관행적으로 널리 사용되어온 현실, △ 병기를 권고하는 국제 결의, △ 병기의 실현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동해/일본해 병기를 추진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2011년 8월 국회에서 동해 단독

표기를 결의한 것을 되새기면서 '동해/일본해' 병기에 대한 보다 적극적 홍보가 필요하다.

일본 외무성은 유엔 사무국의 일본해 단독 표기 관행을 언급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론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1 외교통상부 홈페이지의 경우 "반폐쇄해: 2개국 이상에 의하여 둘러싸이고 좁은 출구에 의하여 다른 바다나 대양에 연결되거나 또는 전체나 그 대부분이 2개국 이상 연안국의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이루어진 만, 내만 또는 바다"라고 부연 설명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동해는 '2개국 이상에 의하여 둘러싸이고 그 대부분이 2개국 이상 연안국의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이루어진 바다'라고 규정할 수 있다.

2 동북아역사재단 · 한국갤럽, 2009. 『2009 한·중·일 역사 인식 조사 결과 보고서』, 60~61쪽. 이 보고서에 의하면 2007년 조사 때 '동해 표기' 지지가 90.1%, '동해/일본해' 병기 지지가 8.2%, 2008년의 경우 '동해 표기' 지지가 97.6%, '동해/일본해' 병기 지지가 1.4%로 나왔다. 이것은 그간 한국 정부의 '동해/일본해' 병기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였음을 보여준다.

2. 일본의 잘못된 주장 : 유엔 사무국의 '일본해' 단독 표기 관행

- 일본은 외무성 홈페이지 및 각종 홍보자료 등을 통해 유엔이 일본해 표기를 승인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

본해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유엔이 아니라 유엔 사무국으로, 사무국의 일본해 표기 사용은 192개 유엔회원국의 입장과는 무관한 사무국의 편의적 관행에 불과합니다.

- 또한 유엔 사무국은 '분쟁지명에 대한 양자 간 합의에 이르기 전까지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명칭을 사용한다'는 사무국 내부의 관행에 의거, '일본해' 단독 표기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러한 관행은 사무국 내부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편의적인 관행일 뿐이라는 점을 대외적으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유엔 사무국은 이러한 관행이 관련국 간의 분쟁에 있어 일방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며, 동시에 분쟁당사국 일방의 입장 강화를 위해 원용되어서도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일본의 주장은 유엔 사무국의 관행을 오용한 명백히 잘못된 주장입니다.

외교통상부 외에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eastsea.khoa.go.kr)에 동해에 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밝히고 있고, 동북아역사재단도 홈페이지(www.nahf.or.kr) '동북아역사이슈' 사이트에서 '동해 표기'에 대한 입장을 개진하고 '[역사현안동영상] 역사의 갈등을 넘어-동해 표기'를 링크해두고 있다. 그 내용은 외교통상부의 주장과 거의 같다. 다만 외교통상부의 동해에 언급하지 않은 주장 가운데 일본 주장에 대한 효과적인 비판만을 소개하고자 한다.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의 동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 외교통상부의 주장과 중복되지 않은 내용 가운데 다음 주장은 주목된다.

- 3. 한국이 '한국해(Sea of Korea)' 표기를 동해의 영문명칭으로 주장하지 않는 이유는 한국과 일본, 러시아 등 여러 나라에 인접한 동해 지역을 일국의 국호를 따라서 명명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임.

4. 해양의 명칭을 정하는 일반적인 방법론에 따르면 대부분 관련 해역의 왼쪽에 위치하는 대륙 명칭을 따르는 것이 관례며 따라서 동해 지역의 경우 오른쪽에 위치하는 일본열도를 따라서 명칭을 정하는 것은 일반적인 관례와는 맞지 않음. 오히려 유라시아 대륙 동쪽에 위치하는 바다라는 의미에서 '동해'가 보다 중립적이고 적절한 명칭이라고 할 수 있음.

동해(East Sea) 대신에 한국해(Sea of Korea)를 주장하지 않은 이유와 동해 명칭이 일본해 명칭보다 중립적이고 적절한 명칭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외교통상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슈 '동해'와 국립해양조사원과 동북아역사재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동해'에 관한 홍보물에는 일본 외무성의 다 음 주장에 대한 비판이 미흡하다.

첫째, 일본해 홍보 사이트의 경우 “일본해는 일본해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임을 내세우고 있고, 세계 각국의 고지도 조사에서 명확히 알 수 있다고 하면서 ‘일본해 호칭은 일본의 팽창주의 혹은 식민지 지배의 결과로 널리 알려진 것이다’라는 한국의 비판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한 데 대한 비판이 미흡하다. 특히 일본은 이미 19세기 초에는 일본해 호칭이 다른 호칭보다 압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 시기 일본은 쇄국정책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일본해 호칭을 확립하기 위해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력을 행사한 일은 없었다고 한 데 대해 명확하게 비판한 내용이 없다.

둘째, 일본해와 동해의 명기를 권고하는 UN 및 IHO의 결의가 있다는 한국 측 주장에 대해 일본 외무성이 반박한 “유엔지명표준화회의 결의 III/20 및 IHO기술결의 A.4.2.6은 만이나 해협 등 2개 이상 국가의 주권 하에 있는 지형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일본해와 같은 공해(公海)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에 대한 비판도 미흡하다. 국립해양조사원과 동북아역사재단과는 달리 외교통상부의 경우 동해가 ‘반폐쇄해(Semi-enclosed Sea)’라는 것을 내세움으로써 일본 논리를 공박하지만 일본 측이든 한국 측이든 일본해와 동해가 그동안 ‘우리나라 바다’, 즉 ‘영해(領海)’의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감

추고 있다. 한 쪽은 ‘공해’의 명칭으로서 19세기 초 구미인들에 의해 확립된 국제사회의 유일한 호칭임을 내세우고, 다른 한 쪽은 과거 2000년간 동해라는 이름으로 불려왔다고 내세우고 있다. 한국과 일본 양국 모두 이 바다를 공유하고 있었다는 인식이 부족하다. 양국이 주장하는 일본해, 그리고 동해의 의미는 ‘영해’의 의미로 주로 사용되었고, 그런 의미에서 ‘동해/일본해’ 병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내세우는 것이 보다 합리적임을 다음 장에서 논하고자 한다.

#### IV. ‘일본해’ 홍보 사이트 반박을 위한 제언

일본 외무성 일본해 홍보 사이트의 경우 ‘일본해는 일본해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임을 내세우고 있다. 일본 외무성은 세계 각국의 고지도에서 일본해 명칭이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되어 일본해라는 호칭이 19세기 초에 구미인에 의해 확립되었다고 하지만 국제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이라고는 할 수 없다. 국제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이라는 것을 내세운다면 해양 지명의 국제적 표준화와 항해 안전에 필요한 국제적 규범 마련을 목적으로 창설된 국제수로국이 1929년 『해양과 바다의 경계(S-23)』라는 책자를 발행하면서 한반도와 일본 사이의 바다를 일본해로 표기하였기 때문에 1929년에 국제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이었다고 내세워야만 한다. 전 세계 바다 명칭의 준거자료로 제작된 이 책자는 이후 『해양과 바다의 경계(S-23)』 제2판(1937)과 제3판(1953)이 각각 발간되면서 동해 수역을 계속 일본해로 표기하였다. 세계 각국 지도에서 일본해 표기가 확산되고 각국 정부가 일본해로 부르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므로 당연히 이것을 내세워야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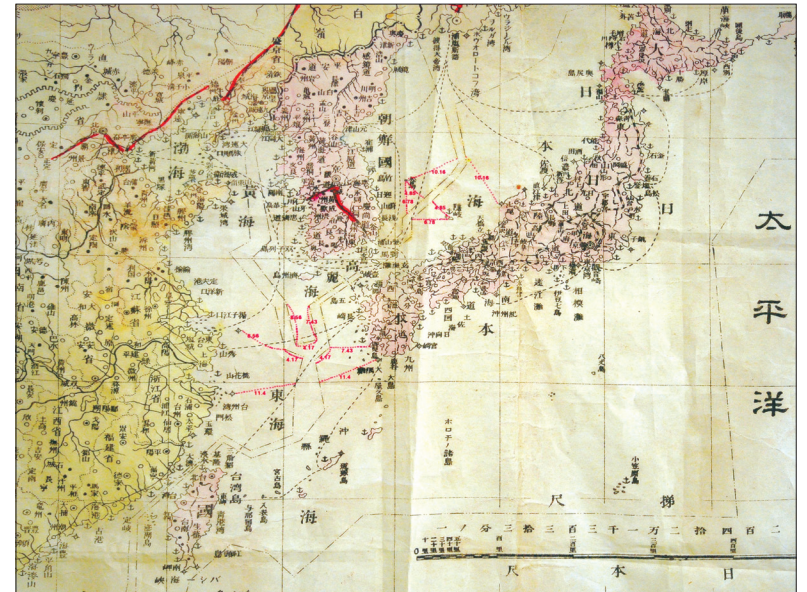
왜 일본은 ‘일본해가 국제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이라고 하면서 이것을 내세우지 못하는가?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동해’, 그리고 동북아역사재단 홈페이지 ‘동북아역사이슈’의 ‘동해 표기’에서 “한국은 당시 일제 식

민지배 하에 있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동해 수역 표기에 대해 정당한 의견을 제시할 수 없었다.”라고 한 지적은 그런 점에서 적절하다. 당시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1929년 『해양과 바다의 경계(S-23)』 제작과정에서 일본이 일본해 표기를 주장하였을 때 ‘일본해’는 일본 내해, 즉 일본 영해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비판하지 못하였다. 당연히 각국의 대표들은 일본해를 공해로 보지 않고 영해로 여겨 이에 대한 이의 제기가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1945년 한국이 해방됨으로써 한국과 일본 사이의 바다는 더 이상 일본 영해가 아닌 한국 영해, 공해 그리고 일본 영해로 구성되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이 일본해와 ‘동해’의 병기를 권고하는 유엔 및 IHO 결의를 들어 병기를 주장한 데 대해 일본 외무성은 만이나 해협 등 2개 이상 국가의 주권 하에 있는 지형이 병기의 대상이지 일본해와 같은 공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일본해가 ‘공해’라고 하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 외교통상부 홈페이지의 경우 동해를 ‘2개국 이상에 의하여 둘러싸이고 그 대부분이 2개국 이상 연안국의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이루어진 바다’로서의 ‘반폐쇄해’기 때문에 병기가 가능하다고 반론을 펴고 있다. 이러한 비판은 배타적 경제수역이 발효된 이후 현 상황에서 적절하다. 그렇지만 배타적 경제수역 발표 이전의 경우 일본해가 ‘공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한 반론으로는 미흡하다. 국제수로국이 1929년 『해양과 바다의 경계(S-23)』라는 책자를 발행하면서 한반도와 일본 사이 바다를 ‘일본해’로 표기한 이후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었기 때문에 일본해 의미가 ‘공해’의 의미를 갖고 국제적으로 확립되었다고 내세우면 설득력이 없다. 실제 한국 외교통상부가 홈페이지를 통해 동해를 ‘반폐쇄해’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일본해’ 사이트의 경우 이에 대한 대응이 전혀 없다. 그런 상황에서 일본을 설득하여 병기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보다 적극적인 비판을 하기 위해서는 1929년 당시에 일본해가 ‘공해’였던가? 그리고 그 이전 일본해의 호칭이 ‘공해’였던가?를 반박한다면 ‘공해’로의 일본해 주장은 궁색해질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29년 일본해 호칭을 국제적으로 확립하였을

때 일본해는 당연히 국제사회에서 ‘영해’로 간주하였다. 거슬러 올라가면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로 한 1910년 이전에 일본은 일본해를 ‘영해’의 의미로 사용하였다. 1903년에 일본육해측량부에서 발행한 「일로청한명세신도」(〈그림 1〉)를 살펴보면 ‘일본해’가 일본 영해로서 ‘일본내해’의 의미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 「일로청한명세신도」의 부분도

「일로청한명세신도」는 바다의 경계를 명확히 표시하고 있다. 태평양 쪽과 동해 양쪽에 걸쳐 일본 경계선을 긋고, 그 안에 일본해라고 표기하였다. 일본은 이때 이미 태평양 쪽의 오가사하라섬[小笠原島, 1876], 류쿠(1879), 유황도(1891.9), 대만(1895), 팽호(1895) 등을 자국 영토로 편입하였기 때문에 「일로청한명세신도」에서 모두 일본 영역으로 표시하고, 그 해역을 일본해로 표기하였다. 이처럼 일본해는 일본 영해, 즉 내해를 뜻한다.<sup>3</sup> 일본이 청일전쟁으로 인해 대만을 획득하자 “대만 및 팽호열도가 일본의 판도

3 김호동, 2010a, 「『日露清韓明細新圖』에 표기된 ‘日本海’ 명칭의 역사적 의미」, 『韓國地圖學會誌』 제10권 1호, 33쪽.

로 편입되면서 세계지도상 일대 변화가 일어났다. 이제까지는 유구만이 일본해 끝이었으나 다시 지나해를 빼앗아 그 영역을 넓혀 무려 1,000방리(方里)에 이르는 팽호열도 주변까지 모두 일본해라 칭할 수 있게 되었다.<sup>4</sup> 고 한 것은 일본해가 일본 영해로 간주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런 인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1910년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로 만들면서 한국과 일본 사이의 바다를 당연히 일본해로 표기하였다.

국제수로국이 1929년 『해양과 바다의 경계(S-23)』라는 책자를 발간할 때 이 해역을 동해라고 부르던 국가는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린 상태에서 일본해로 표기하는 데 이의를 제기할 국가는 없었다. 1945년 일본 패전과 동시에 한국은 독립되었고, 일본 영역은 일본과 그 주변 섬에 국한되었기 때문에 일본 영해의 의미를 지니는 일본해는 한반도와 일본 사이의 바다 이름이 될 수 없다. 일본이 일본해가 국제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이라고 내세우지만 그 근거를 내세우지 않는 것은 이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한국은 일본해 호칭의 경우 일제 식민지 지배의 산물임을 전면에 내세울 필요가 있다. 일본은 그것을 의식해 외무성 홈페이지에 게시된 일본해 팸플릿에서는 ‘국제사회에서 오래 전부터 널리 사용되고 있는 유일한 명칭’이라고 한다.

일본은 “현재 한국 국내에서는 동해라는 호칭이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동해는 어디까지나 한국 국내의 명칭일 뿐이며, 해당 해역에 대해 국제적으로 널리, 오랫동안 사용되어온 것은 일본해라는 호칭뿐입니다.”라고 하여 한국 내에서 동해를 어떻게 부르든 상관없이 한반도와 일본열도 사이에 위치한 바다의 국제적 통용명칭은 일본해임을 부각시키고 있다. 그렇지만 일본해는 ‘공해’의 의미를 갖기보다는 일본 자국 내에서 ‘영해’의 의미로 주로 사용하여왔다. 그런 점을 한국에서 부각시켜야만 한다.

일본 외무성 팸플릿에서 보는 것처럼 과연 일본해는 ‘국제사회에서 오래 전부터 널리 사용되고 있는 유일한 명칭’인가? 18세기 말~19세기 초부터 서구의 지도에 일본해가 빈번하게 사용되기 시작했지만 동해, 조선해, 한국해, 동양해, 중국해 등의 명칭이 함께 사용되었으므로 ‘국제사회에서 오래

전부터 널리 사용되고 있는 유일한 명칭’은 아니다. 더더욱 19세기 초 국제 표준 지명을 결정할 수 있는 권위 있는 기관에 의해 특정 명칭이 표준 명칭으로 결정된 바 없으므로 국제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명칭은 아니다.<sup>5</sup>

일본 정부가 서양 고지도를 조사한 결과 이미 19세기 초에는 일본해라는 명칭이 다른 명칭을 압도할 정도로 많이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일본해 호칭은 19세기 초에 구미인에 의해 확립된 것으로 여겨진다고 하였다. 이 시기 일본은 에도시대였으며 쇄국정책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본해라는 명칭확립에 있어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한 적은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일본 외무성이 막상 통계수치로 제시한 서양 고지도는 19세기 초반과 후반의 구분 없는 일괄적인 것으로, 그것을 통해서는 19세기 초부터 일본해라는 명칭을 다른 명칭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다. 그들의 주장이 설득력을 지니려면 에도시대와 메이지시대를 구분하여 통계수치를 내고 그에 대한 분석이 뒤따라야 한다.<sup>6</sup>

외무성이 제작한 일본해 팸플릿의 경우 “1. 일본해는 국제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입니다. 이는 외무성이 실시한 세계 각국의 고지도 조사를 통해서도 밝혀졌습니다.”라고 하면서 먼저 마테오리치의 「곤여만국전도(坤輿萬國全圖)」 사진을 제시하고 일본해가 표기된 사진의 확대된 부분도를 <그림 2>와 같이 클로즈업시키고 있다.

17세기 초의 이탈리아인 선교사 마테오리치가 적성한 「곤여만국전도」는 일본해라는 호칭이 처음 사용된 지도다. 그렇지만 일본이 주장하는 것처럼 한국과 일본 사이의 바다, 즉 공해를 포함한 바다의 의미로 사용된 일본해는 결코 아니다. 이 지도의 일본해는 일본 서안에 치우쳐 표기되어 있다.

그런 점에서 일본 영해라고 볼 수 있다. 이 지도는 일본에 많은 영향을 미쳤지만 일본이 그에 근거하여 일본해 명칭을 사용한 흔적은 없다. 당시 구미의 지도 역시 일본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18세기까지 일본해 이외에 조선해(Sea of Korea), 동양해(Oriental Sea), 중국해(Sea of China) 등 여러 명칭을

4 『山陰新聞』, 1895년 4월 3일자, 「日本海と支那海」.

5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eastsea.khoa.go.kr)의 동해에 관한 ‘한국 정부의 입장’.

6 김호동, 2009, 「메이지시대 일본의 동해와 두 섬(독도, 울릉도) 명칭 변경의도에 관한 검토」, 『민족문화논총』 43, 538~53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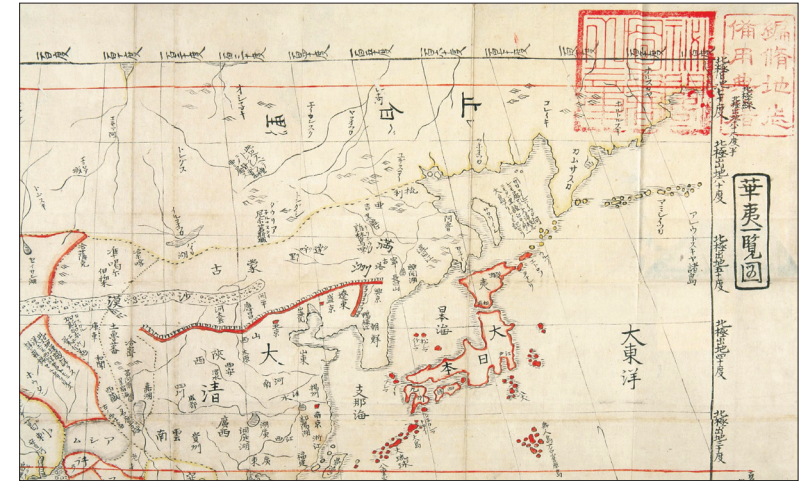
「곤여만국전도(坤輿萬國全圖)」, 마테오 리치, 1506년 베이징 도호쿠대학 부속 도서관 소장

〈그림 2〉 외무성 일본해 홍보 팸플릿에 게시된 「곤여만국전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일본은 '일본해'란 호칭이 사용된 것은 19세기 초 서양인에 의해 시작되었음을 부각하고자 한다. 가세노 요시오[細野義夫]는 일본해란 호칭이 세계 지도상에 정착한 것은 1815년 이후 일이라고 하였다. 그는 유럽에서 이름을 떨친 러시아제독 크루젠 슈테른이 1815년에 간행한 세계의 해도에 기입한 '일본해'라는 호칭이 그 후 널리 통용되게 되었다고 하면서 크루젠 슈테른을 일본해라는 이름을 붙인 원조라고 하였다.<sup>7</sup> 그리고 가와이[川合 英夫]의 경우도 일본해와 조선해 명칭을 표기한 서양 고지도의 출현 회수를 비교하면서 서양 제작이든 일본 제작이든 간에 모든 지도에서는 1800년부터 일본해 명칭이 관용되어 메이지유신 무렵 정착하기 시작하였다고 하면서 일본이 한반도를 식민 지배한 죄과는 무겁고 크지만 일본해라는 명칭이 지도에서 관용, 정착된 것은 식민지배의 과거사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하였다.<sup>8</sup> 이상의 논의를 반박하기 위해 일본에서 일본해 명칭이 언제부터 사용되었는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일본 지도 가운데 한국과 일본 사이의 바다를 일본해라고 표기



〈그림 3〉 「화이일람도」(기무라 켄카토, 1790) 부분도

한 지도로서 가장 시기적으로 빠른 것은 「화이일람도(華夷一覽圖)」(기무라 켄카토[木村兼葭堂], 1790)다.

청나라를 중심으로 주변 국가들을 그린 「화이일람도(華夷一覽圖)」의 부분도(〈그림 3〉)를 살펴보면 태평양을 '대동양(大東洋)'이라고 표기하였고, 한국과 일본 사이의 바다에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를 표시, 송도와 일본 서해안에 걸쳐 '일본해'라고 표기, 청의 동쪽 바다에 '지나해'를 표기하였다. 이 지도에는 북해도(遼夷)와 '무인도(無人島)', 즉 '오가사와라섬(小笠原島)'과 '류큐(琉球)'는 물론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까지도 일본과

같은 붉은 색으로 채색되어 있다. 오가사와라섬의 영토 편입이 1876년에 이루어지고, 류큐(1879)의 귀속이 1879년에 이루어진 점, 그리고 독도는 차지하고라도 울릉도의 경우 일본 영토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었음을 감안할 때 이 지도는 시헤이[林子平]의 해방론을 딛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영토침략 야욕을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죽도와 송도, 일본 서해안에 걸쳐 일본해라고 표기하

7 細野義夫, 1975, 『日本海の謎』築地書館, 2~3쪽.

8 川合 英夫, 「日本海という名妥當性と地圖における慣用定着の時期」, 『海の研究』 Vol.10 No.4 日本海洋學會, 341~349쪽.

9 에도시대 일본 지도상에서의 한국과 일본 사이의 바다를 지칭하는 지도의 분석은 김호동, 2010b, 「일제 의 한국침략에 따른 '일본해' 명칭의 의미 변화 -일본 고지도를 중심으로」(『한국고지도연구』 제2권 2호, 한국고지도연구학회)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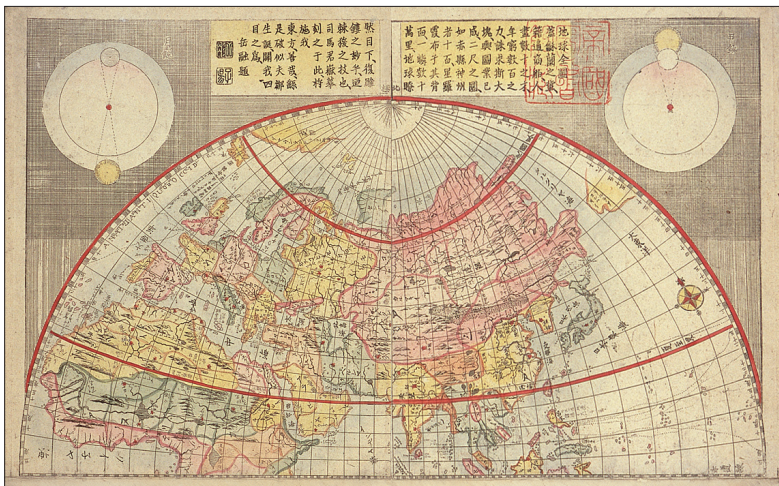


것은 이미 이때 일본이 침략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지도에 나타난 일본해와 죽도, 송도의 명칭을 두고 독도가 일본 영토였다는니 일본해가 공해 명칭이었다니 하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흔히 1792년에 시바 고우칸(司馬江漢)이 제작한 「지구전도(地球全圖)」(그림 4)에서 “동해를 일본해라 하고, 태평양의 일본 쪽 해역을 일본해, 태평양 중앙을 대동양이라고 부르고 있다.”<sup>10</sup>고 하여 한국과 일본의 바다를 일본해라 호칭한 것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지구전도」를 살펴보면 한국과 일본 사이의 바다가 실제 크기보다 훨씬 크게 묘사되어 있고, 일본 쪽에 치우쳐져 ‘일본내해’라고 표기되어 있고, 일본 동안의 바다를 ‘일본동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것을 고려할 때 『화이일람도(華夷一覽圖)』의 일본해 역시 ‘일본내해’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790년대 초에 일본은 자국 바다(영해)의 명칭을 일본해 등으로 명명하기 시작했지만 조선의 동쪽 바다는 자국 바다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조선해라고 부르거나 이름을 붙이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1840년대 중반~1860년대에 오면 일본해 명칭이 많이 나타난다. 일본의 경우 이것을 ‘Sea of Japan’이 서양 지도나 일본 지도에서 일반화된다고 하



〈그림 4〉 「지구전도」(시바 고우칸, 1792)

지만 이때 일본해는 지금 한국과 일본의 바다를 일본이 ‘Sea of Japan’이라고 하는 것과 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호도하고 있다. 이때 일본해는 1790년대 이후 지도의 예와 마찬가지로 주로 일본 서쪽 바다에 치우쳐져 있고, 그와 함께 일본 동쪽 바다를 칭하는 것이 보다 더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고 있다. 겨우 지금 일본이 주장하는 공해로서의 의미를 갖는 ‘Sea of Japan(일본해)’에 해당하는 지도가 『지학초보(地學初歩)』(코벨[코벨] 저, 1866)의 「Asia」 지도와 그 일역인 『지학초보화해(地學初歩和解)』(코벨 원선[固兒涅爾 原撰] ; 우디가와 요세이[宇田川榕精] 역, 1867)에 실린 「아세아주도(亞細亞州圖)」 정도다.<sup>11</sup>

일본에서 일본해의 명칭이 일본 영해의 의미로 사용되고, 일본 동해를 지칭한 지도가 많지만 그것에 대한 일언반구 없이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의 경우 일본해 명칭이 한국과 일본 사이의 바다를 가리키는 용어로 서양인에 의해 19세기 초에 세계지도상에 정착하였다거나 서양 제작이든 일본 제작이든 모든 지도에서는 일본해 명칭이 1800년부터 관용되어 메이지유신 무렵 정착하기에 이르렀다는 논리를 펼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처럼 일본해 명칭이 ‘일본 영해’ 의미로 사용된 것은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공해’ 이름임을 천명하는 것은 맞지 않다.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지적할 사항은 한국 경우 한국과 일본 사이의 바다를 동해, 조선해라고 불렀다고 하지만 일본에서 에도시대에 만들어진 지도들 대부분은 한국과 일본 사이의 바다를 동해라고 한 예는 없고, 조선해라고 부른 경우는 「지학정종도(地學正宗圖)」(초, 2편(初, 2篇)) (프린센[プリンセン] 저, 스키타 겐스이[杉田玄端] 역, 1850~1851)와 「신정 지구만국방도(新訂 地球萬國方圖)」(1853), 「대여지구의(大輿地(よち)球儀)」(누마지리 보쿠센[沼尻墨麿], 1855), 「환해항로신도(環海航路新圖)」(에도[江戸] 스하라 시게[須原屋茂] 베에[兵衛] 등, 1862) 정도에 불과하다.

10 서정철 · 김인화, 2010, 『지도 위의 전쟁』, 동아일보사, 273~274쪽.

11 김호동, 2010b, 위의 글, 39~45쪽.

12 岡嶋正義, 1828, 『竹島考』, 竹島總說.

오카지마의 『죽도고(竹島考)』에 “죽도(竹島)는 오키국에서 백 오십 여리 떨어진 조선국 동해중(朝鮮國 東海中)에 있는 고서(孤嶼)다.”<sup>12</sup>라고 한 것을 통해 에도시대 일본 지도 외에 동해를 지칭한 문헌자료

가 일본에서 보인다. 지금까지 지도에만 초점을 두고 연구를 해왔지만 일본 문헌자료에서 '동해' 호칭을 발굴하려는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

구글 일본해 사이트(sites.google.com/site/japanseamerdujapon/Home/japanese-map-describes-chousen-umi--corean-sea)의 경우 일본 고지도상에 한국과 일본의 바다 지명에 대한 조사 통계수치를 제시하고 있다. 그 통계수치에 따르면 1906년 이전 지도에서 'Sea of Japan'이 사용된 예가 88건인데 반해 '한국해(Sea of Corea)'의 사용은 단 5건에 불과하다. 대신 'Sea of Corea on Broughton bay or East Coast of Corea'의 경우 32건의 통계수치를 제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 사이트 통계수치는 <표 1>과 같은 지도 조사 분류 항목을 통해 이루어졌다.

<표 1>

中國海	東朝鮮灣	朝鮮海峽	日本海	日本東岸 (太平洋他)
East China Sea	East Korean Gulf Broughton Bay	Strait of Corea	Sea of Japan	Pacific Ocean and Other

위 <표 1>의 분류에서 보다시피 일본해의 경우 일본 서쪽 바다에 일본해라고 표기된 것을 모두 이 항목에 넣어 분류하여 통계를 낸 반면에 동해는 '동조선만(東朝鮮灣)', '조선동안(朝鮮東岸)', '조선해협(朝鮮海峽)'으로 상세히 구분, 항목을 설정하여 분류해 통계를 내고 있다. 그런 점에서 위에서 제시한 통계수치는 기본 항목 설정에서부터 의도적 목적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필자는 구글의 일본해 사이트 지도에서 한국과 일본의 바다 사이를 일본해로 통계낸 것을 '한국 쪽 동안(東岸)'과 'East Sea/Sea of Japan(공해 포함한 현재 일본해 의미)'과 함께 '일본 서안(西岸) 쪽'으로 분류하여 항목을 재구성하여 통계를 낸 바 있다. 이 분류에 의하면 구글 일본해 사이트 통계수치는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지금 일본이 주장하는 공해로서의 일본해는 에도시대지도 4개뿐이고, 조선해라고 표기한 지도도 3개다. 반면 일본 서안 쪽 바다에 일본해(일본내해, 대일본해)로 표기한 지도는 11개, 일본 동안 쪽에 표기한 지도는 10개에 달한다.<sup>13</sup> 이것은 일본해가 현재의 공해

까지 포함한 일본해의 의미와는 달리 주로 일본 영해로서 간주되었음을 말해준다.

일본 외무성의 일본해 통계 역시 '일본 영해'로서 그려진 것을 'East Sea/Sea of Japan(공해 포함한 현재 일본해 의미)' 의미를 갖는 일본해로 통계수치를 잡았다고 보아야 한다. 일본 외무성은 통계 처리된 지도 전부를 공개하여야만 하고, 한국 역시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한 후 '영해'의 의미를 뜻하는 일본해와 동해를 제외하여 통계를 내어야만 한다.

그리고 일본 외무성이 일본해 팸플릿에 "19세기 초부터는 일본해라는 명칭이 다른 명칭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일본해라는 호칭은 19세기 초에 구미인에 의해 확립된 것으로 여겨 집니다."라고 하였지만 막상 통계에서는 19세기 초반과 후반을 구분하지 않고 19세기 전체의 통계수치를 제시하였을 뿐이다.

이러한 통계 수치의 제시는 구글 일본해 사이트와 같이 신뢰성이 없다. 일본 외무성이 제시한 지도상의 목록과 한국 측에 수집된 지도 목록을 모두 제시하고, 양국 공동 조사에 의한 통계가 이루어져야만 한다. 그것을 통해 일본해가 '일본 영해'의 의미를 갖고 있음을 드러낼 필요가 있다. 한국과 일본이 서양 고지도상에서 동해, 혹은 일본해라고 표기된 지도 하나를 발견하고 신문에 대서특필하는 태도는 어찌면 부질없는 짓이다. 서세동점의 제국주의 시대에 동아시아에 출현한 서구인들이 관련국에 그 이름 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마치 자기가 처음 발견한 양 마음대로 섬과 바다의 이름을 적어둔 것을 갖고 일회일비하는 태도는 지양해야만 한다. 바다 호칭은 관련국이 어떻게 불렀는가를 갖고 논해야 하는 것이 정당하다. 그렇게 볼 때 일본은 18세기 말부터 일본해를 '영해' 의미를 갖고 표기하였고, 한국에서 동해도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동해/일본해' 병기가 마땅하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본해 명칭이 일본의 확장주의에 의해 사용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일본은 서양 지도를 제시해서는 안 되고, 일본에서 제작된

13 김호동, 2010b, 앞의 글, 35~63쪽.

일본 지도에 표시된 일본해 명칭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제시해야 한다. 한국은 2,000년 전부터 이 해역을 동해로 불렀다고 한 것에 상응하여 일본에서 이 해역을 어떻게 불렀고, 일본해의 사용이 언제,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가를 논하는 게 선결 과제다.

## V. 맺음말

일본 외무성은 홈페이지(www.mofa.go.jp/mofaj)에 일본해 홍보 사이트를 게시하고 있다. 한국 외교통상부도 홈페이지(www.mofat.go.kr) 이슈란에 '독도'와 함께 '동해 명칭'에 관한 홍보를 게시하고 있다. 그 외 동북아역사재단 홈페이지(www.nahf.or.kr)의 '[역사현안동영상] 역사의 갈등을 넘어-동해 표기'와 '동북아역사이슈' 사이트에서 동해 표기에 대한 입장을 개진하고 있고, 국립해양조사원의 경우도 홈페이지(eastsea.khoa.go.kr)에 동해에 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본 연구는 일본 외무성의 일본해 홍보 사이트에 대한 한국 정부 대응방안을 살펴보고, 거기에서 놓치고 있는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그것을 드러냄으로써 결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일본해 홍보 사이트의 경우 '일본해는 일본해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임을 내세우고 있고, 일본해 호칭은 일본의 팽창주의 혹은 식민지 지배의 결과로 널리 알려진 것이 아니라 19세기 초부터 일본해 명칭이 구미인들에 의해 확립되었다고 한 것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에도 시대 때부터 일본의 지도와 문헌에 일본해가 등장하지만 그것은 일본이 현재 주장하는 일본해와는 달리 일본 '영해'의 의미로 주로 사용되었고, 일본 동안 쪽 바다도 일본해라고 하였다. 이후 메이지시대 일본의 영토 확장에 따라 그 해역을 포함한 바다를 일본 '영해'의 의미를 갖는 일본해로 불렀다. 또 일본 외무성은 서양 고지도 분석을 통해 19세기 초부터 일본해의 명칭이 구미인들에 의해 확립되었다고 하지만 막상 통계에서는 19세기 초반과 후반을 구분하지 않고 19세기 전체의 통계수치를 제시하였을 뿐이다.

둘째, 일본해 의미가 '일본 영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음을 드러냄으로써 "일본해와 동해의 병기를 권고하는 UN 및 IHO 결의가 있다."는 한국의 주장에 대한 "유엔지명표준화회의 결의 III/20 및 IHO기술결의 A.4.2.6은 만이나 해협 등 2개 이상의 국가의 주권 하에 있는 지형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일본해와 같은 공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라는 일본의 비판도 성립할 수 없다.

셋째, 일본이 일본해가 공해라는 입장을 견지하는 한 '일본해는 일본해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이 될 수 없다. 일본 외무성 일본해 홍보 사이트의 경우 '일본해는 일본해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임을 내세우고 있지만 일본해 명칭이 '공해'라는 근거에 대한 기술을 일본해 홍보 사이트 어디에도 내세울 수 없었던 것은 일본해의 명칭이 '일본 영해'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었다.

넷째, 일본 외무성은 일본해 홍보 사이트에 실린 일본해 홍보 팸플릿에 한국어 판 PDF 파일을 탑재하였다. 그에 반해 한국의 경우 '일본어' 게시가 없다. 동해/일본해 병기는 한국과 일본이 합의하면 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일본에게 우리의 논리를 정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

## 국문초록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 게시된 일본해 홍보 사이트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비판을 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일본해 홍보 사이트의 경우 '일본해는 19세기 초부터 일본해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임을 내세우고 있고, 세계 각국의 고지도조사에서 명확히 알 수 있다고 하면서 '일본해 호칭은 일본의 팽창주의 혹은 식민지 지배의 결과로 널리 알려진 것이다.'라는 한국의 비판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한 데 대한 비판이 미흡하다.

에도시대 때부터 일본 지도와 문헌에 일본해가 등장하지만 그것은 일본이 현재 주장하는 일본해와는 달리 일본 '영해' 의미로 주로 사용되었고, 일본 동안 쪽 바다도 일본해라고 하였다. 이후 메이지시대 일본의 영토 확장에 따라 그 해역을 포함한 바다를 일본 '영해' 의미를 갖는 일본해로 불렀다.

둘째, 외교통상부의 경우 동해가 '반폐쇄해'라는 것을 내세움으로써 일본 논리를 공박하지만 일본 측이든 한국 측이든 일본해와 동해가 그동안 '우리나라 바다', 즉 '영해'의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감추고 있다. 양국이 주장하는 일본해, 그리고 동해의 의미는 '영해' 의미로 주로 사용되었고, 그런 의미에서 동해/일본해 병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내세우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셋째, 1945년 한국이 해방됨으로써 한국과 일본 사이의 바다는 더 이상 영해가 아니라 한국 영해, 공해, 일본 영해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영해'의 의미를 지닌 일본해는 폐기되어야만 한다. 그런 역사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19세기 초에 국제사회에서 확립된 유일한 호칭이라며 일본해가 '공해'라는 것을 내세우면서 일본해가 과거 '영해'의 명칭을 갖고 있었음을 숨기고 있다.

<주제어>

일본해, 동해, 국제수로기구, 유엔지명표준화회의

## ABSTRACT

A Suggestion for a Rebuttal to the Jap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Sea of Japan" Publicity Site

Kim, Hodong

Research Professor Dokdo Reserch Institute Yeungnam University

It is necessary to list the content of critics on Japan MOFA's Sea of Japan insistence in Korean MOFA homepage concerning issue of 'East Sea' and public board of National Hydrographic as well as Oceanographic Administration and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s below.

First of all, Korean side critics insisting 'prevailing name of Sea of Japan is only the result of colonial rule or past expansionism' is rather weak against Japanese public site advertising 'Sea of Japan is unique name confirmed internationally and the name was defined obviously in every world old maps examined'.

Especially, we need to criticize the Japanese insistence which explaining 'Sea of Japan was widely expressed than any other name during early 19th century under the policy of seclusion at the period and never executed any influence to advertise Sea of Japan.' As mentioned above, Korean critical insistence should be added.

Second, Korean government insisted the resolution of UN and IHO concerning 'Sea of Japan' and 'East Sea' parallel name an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Standardization of Geographical Names Resolution III/20 and IHO Technical Resolution A.4.2.6 mention about geographic gulf or strait which has been controlled by more than two sovereign countries, so international waters like Sea of Japan could not apply this principle.", but it also lacks the critics. As different to National Hydrographic Administration and Northeast Asian Foundation, Korean MOFA explained the East Sea as 'semi-enclosed sea' to dispute Japanese logic, but 'Sea of Japan' and 'East Sea' have meant 'territorial waters' by Japanese side or Korean side. Japanese insist international unique name by Europeans or as international waters and Korean insist East Sea has been named from 2,000 years ago. There is lack of recognition on logic of sharing for the sea area by both Korea and Japan. This 'Sea of Japan' or 'East Sea' area have meant 'territorial waters' and it is more reasonable to parallel naming 'East Sea/Sea of Japan'. If Japanese adhere their opinion on international waters to the Sea of Japan, "Sea of Japan shall not be international unique name". Japan MOFA public site advertise "Sea of Japan is internationally confirmed unique name" but there is no description about 'Sea of Japan' as international waters because 'Sea of Japan' have meant 'Japanese

territorial waters'.

Third, by 1945 Korean liberation, the sea between Korea and Japan should not be sole territory of Japan but composed of Korean territorial waters, international waters, and Japanese territorial waters. So, 'Sea of Japan' as 'territorial waters' should be abolished. In spite of this historical fact, Japanese still veil the meaning of 'territorial waters' inside of 'Sea of Japan' proclaiming unique name during the early 19th century.

<Keyword>

Sea of Japan, East Sea, IHO, UNCSTGN

## 참고문헌

- 김호동, 2009, 「메이지시대 일본의 동해와 두 섬(독도, 울릉도) 명칭 변경의도에 관한 검토」, 『민족문화논총』 43.
- 김호동, 2010a, 「『日露清韓明細新圖』에 표기된 '日本海' 명칭의 역사적 의미」, 『韓國地圖學會誌』 제10권 1호.
- 김호동, 2010b, 「일제의 한국침략에 따른 '일본해' 명칭의 의미 변화-일본 고지도를 중심으로」, 『한국고지도연구』 제2권 2호, 한국고지도연구학회.
- 서정철 · 김인화, 2010, 『지도 위의 전쟁』, 동아일보사.
- 심정보, 2007, 「일본에서 일본해 지명에 관한 연구동향」, 『한국지도학회지』 제7권 제2호.
- 이상태, 2008, 「독도 명칭의 역사적 고찰」, 『한국지도학회지』 제8권 1호.
- 이중학, 2002, 「해제: 동해는 방위개념, 조선해가 고유명칭」, 『잊혀진 "조선해"와 "조선해협"』, 독도박물관 연구자료총서.
- 『山陰新聞』 1895년 4월 3일자, 『日本海と支那海』
- 粕野義夫, 1975, 『日本海の謎』 築地書館.
- 鮎澤信太郎, 1943, 『大日本海-日本地理學史の研究』, 京城社出版社.
- 青山宏夫, 1993, 「日本海という呼稱の成立と展開」, 『環日本海地域比較史研究』 2.
- 長岡正利, 2003, 「日本海」呼稱の變遷と最近の係争問題」, 『古地圖研究』 311.
- 大西俊輝, 2003, 『日本海と竹島-日韓領土問題』 東洋出版.
- 외교통상부 홈페이지(www.mofat.go.kr)
-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eastsea.khoa.go.kr)
- 동북아역사재단 홈페이지(www.nahf.or.kr)
-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www.mofa.go.jp/mofaj)
- 구글 '일본해' 사이트(sites.google.com/site/japanseamerdujapon/Home/japanese-map-describes-chousen-umi--corean-sea)

# 동해와 독도 지명의 효과적인 해외 홍보를 위한 기초 연구

윤옥경 청주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조교수  
최종남 미국 웨스턴 일리노이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영토교육의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영토 교육이 교육 목적과 목표를 제시하는 등 영토교육 패러다임을 설정하거나 구체적인 학습자료를 제작하는 등 연구 활동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다. 남호엽 외(2001)와 서태열 외(2007), 박선미(2009), 김주택(2009)은 동해와 독도 관련 영토교육 방향의 큰 틀을 제시하였다. 박선미 외(2009)는 독도교육의 성격과 목표를 규정하고 학습자의 공간 인식 수준과 인지 발달을 고려한 구체적인 학습 내용들을 제시하였다. 심정보(2009)는 일선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영토교육 현황을 조사하였다.

영토교육의 한 내용으로 다루는 동해 해역 표기 문제와 독도 표기 및 영유권 문제는 국내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에 정부와 정부 유관기관 등이 주축이 되어서 독도와 동해 관련한 각종 해외 홍보자료를 제작하였다. 홍보자료는 각종 해외 홍보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집단의 해외 홍보 대상에게 지속적으로 전파되고 있다. 하지만 홍보자료와 홍보활동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전달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해외 홍보 대상자의 평가에 대한 실증적인 모니터링은 크게 미흡하다.

특히, 독도와 동해 관련한 각종 홍보자료와 홍보활동에 접촉할 기회가 일반인에 비하여 비교적 높은 지리교육자에 대한 연구는 그 의의가 크다. 왜냐하면 지리교육자는 외국에 대한 관심이 높을 뿐더러 외국과 관련한 지식 습득 기회가 많기 때문이다. 지리교육자는 세계 각국의 지리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와 역사 등에 대한 자신들의 지식과 인식, 그리고 경험을 바탕으로 강의교재와 자료를 구성한다. 반면, 학생들은 개인적으로 각종 정보 매체들을 통해서 다양한 지리정보를 접하기는 하지만 지리교육의 과정을 통해서 지리사상, 세계 각국의 정보와 지식을 보다 심도 있게 체계적으로 습득한다. 따라서 지리교육자의 특정 국가에 대한 지식과 인식 수준이 그 국가에 대한 학생들의 지식과 인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와 더불어, 지리교육자들은 공동 교재 연구를 통해서 강의 교재를 공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정 지리교육자가 가지는 특정 국가에 대한 인식이 동료 지리교육자들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로 단기간에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다.

## 1. 머리말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동해 지명 찾기 운동과 더불어 200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은 우리 국민들에게 영토교육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로 우리나라 사회과 교육이 영토교육을 보다 체계적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요구가 크게 제기되었다. 이 요구에 부응하여 교육과학기술부와 여타 교육 단체들은 영토교육과 관련한 구체적인 학습 목표와 내용 요소를 선정하고 다양한 형태의 교수 및 학습 자료를 개발하였다. 또한 일부 교과 연구회 및 교사 모임은 자체적으로 영토교육과 관련한 수업자료를 개발하였다. 일선 교육 현장은 개발된 동해와 독도 관련한 자료들을 이용하여 학생들이 영토 문제에 대해서 이성적이고 전략적인 사고 아래 올바른 영토와 역사 인식을 가지도록 교육하고 있다. 이러한 동해와 독도 관련 다양한 형태의 교육 프로그램들은 특히 초·중·고등학교의 지리와 역사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이유는 지리와 역사교육이 청소년들의 올바른 국가관 확립에 기여하는 바가 여타 과목들에 비해 크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미국 내 대학 및 중등학교의 지리학 관련 교수 및 교사들을 대상으로 영토교육에 대한 인식과 한국의 영토 관련 쟁점들에 대한 지식, 인식 수준을 파악하였다. 미국은 국제적 영향력이 큰 국가이며 현재 미국과 인접해 있는 국가와의 영토 분쟁이 없어 영토교육에 대한 인식을 보다 중립적으로 파악하는 데 적합한 대상 국가라고 생각한다. 해외 지리교육자들의 한국과 동해, 독도에 대한 인식과 이해 수준을 정확하게 분석함으로써 기존의 독도와 동해 관련 각종 홍보자료와 해외 홍보활동들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해외 지리교육자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홍보가 가능해질 것이다.

## II. 연구 방법 및 연구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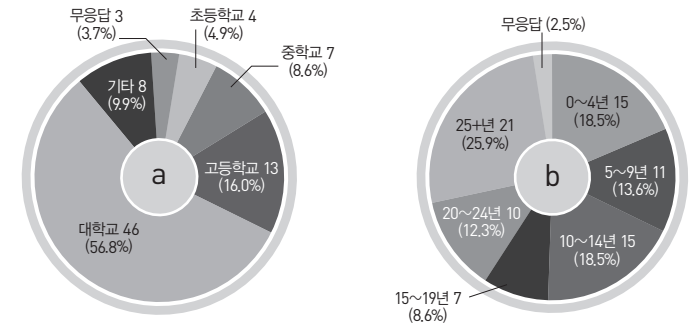
### 1. 표본 추출 및 자료 수집

이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2010년에 열린 미국지리교육학회(The National Council of Geographic Education: NCGE)와 전미지리학회(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AAG) West-Lake Division의 연례회의에 참석한 89명의 미국 내 대학 및 중등학교의 지리학 관련 교수 및 교사들을 대상으로 무작위 설문조사를 통해서 수집하였다. 설문조사는 응답자가 직접 작성하는 자기입식(Self-Adminstrated) 방식으로 측정되었다.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한국의 국가 이미지와 한국 및 한국의 영토 관련 쟁점에 관한 32개 대문항(세부문항까지 포함할 경우 87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문항들 중 19개 문항을 이용하여 설문 대상자의 국가 주권과 관련한 교육과 한국 및 한국의 영토 쟁점 등에 대한 지식, 인식 수준을 파악하였다. 설문지는 설문 대상자의 연령과 성별, 재직 중인 교육기관 형태, 교육경력 등의 문항도 포함한다.

## 2. 미국 지리교육자의 일반적인 특성

〈그림 1〉은 설문 응답자가 재직 중인 교육기관의 형태와 교육 경력을 보여 준다. 설문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6.8%가 대학교에 재직 중이다(〈그림 1〉 a). 설문 응답자의 24.6%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포함하는 중등교육기관에 재직 중이다. 기타 9.9%(8명)는 지리교재 제작자 및 지리교육 관련 종사자다. 설문 응답자 중 25년 이상의 교육 경력을 가진 응답자가 25.9%로 가장 많았지만 응답자의 교육 경력은 0~4년에서부터 25년 이상까지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그림 1〉 b).



〈그림 1〉 설문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 : (a) 재직 중인 교육기관의 형태(N=81), (b) 교육 경력(N=81)

설문 응답자가 한국을 방문한 경험 여부와 한국 관련 교육프로그램에 참가한 경험 여부, 한국에 관한 강의를 수행한 경험 여부는 〈표 1〉에서 찾을 수 있다.

〈표 1〉 미국 지리교육자들의 한국 방문과 한국 및 영토 관련 교육활동 여부 (N=81)

구분	예		아니오		무응답	
	N	%	N	%	N	%
한국 방문 경험	15	18.5	66	81.5	0	0.0
한국 관련 교육 프로그램 참가 경험	22	27.2	58	71.6	1	1.2
한국 관련 수업 경험	43	53.1	37	45.7	1	1.2
영토 관련 쟁점 수업 경험	53	65.4	24	29.6	4	4.9

전체 설문 응답자 중 18.5%에 달하는 높은 비율의 응답자가 최근 5년 이내에 한국을 방문한 경험이 있었다. 또한 지난 5년 이내에 한국과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한 경험이 있는 설문 응답자의 비율은 27.2%에 달했고, 한국에 관하여 직접 강의를 한 경험이 있는 설문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3.1%에 달했다. 이러한 결과는 단지 지리 교육만을 담당하는 한국의 중등 지리교사와는 달리 미국의 중등 교육기관 사회과 교사들은 지리뿐만 아니라 영토 관련 쟁점들을 다룰 수 있는 역사를 포함한 다른 사회과 과목들을 함께 담당하므로 각종 교육 프로그램에 한국을 포함시킬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한다.

〈표 2〉 미국 지리교육자들이 재직 중인 교육기관의 형태와 교육 경력에 따른 한국 방문과 한국 및 영토 관련 교육활동 여부 (N=81)

구분	한국 방문 경험			한국 관련 교육 프로그램 참가 경험			한국 관련 수업 경험			영토 관련 쟁점 수업 경험			
	예	아니오	계	예	아니오	계	예	아니오	계	예	아니오	계	
재직 중인 기관의 형태	초등학교	0	4	4	0	4	4	1	3	4	3	1	4
	중학교	1	6	7	2	5	7	6	1	7	5	2	7
	고등학교	7	6	13	6	7	13	12	1	13	12	0	12
	대학교	6	40	46	11	34	45	17	29	46	24	19	43
	기타	0	8	8	1	7	8	5	3	8	6	2	8
	총계	14	64	78	20	57	77	41	37	78	50	24	74
교육 경력	0~4년	1	14	15	0	15	15	3	12	15	5	9	14
	5~9년	2	9	11	4	7	11	5	6	11	8	3	11
	10~14년	3	12	15	4	10	14	10	5	15	12	3	15
	15~19년	2	5	7	4	3	7	6	1	7	5	2	7
	20~24년	3	7	10	4	6	10	7	3	10	7	2	9
	25+년	4	17	21	5	16	21	11	10	21	15	5	20
총계	15	64	79	21	57	78	42	37	79	52	24	76	

〈표 2〉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지리교사들이 한국과 관련한 교육프로그램에 참가한 경험과 한국에 관하여 직접 강의를 한 경험이 초등학교 교사와 대학교 지리교원에 비해서 높음을 보여준다. 반면, 한국 방문과 한국 관련 교육 프로그램 참가, 한국과 국경, 영토 관련 쟁점과 관련한 강의에 대한 수행 여부는 교육 경력에 따라 크게 편중된 분포를 보이지는 않는다(〈표 2〉).

### III. 미국 지리교육자의 국가 주권(National Sovereignty) 및 영토교육에 대한 인식

영토 분쟁으로 각종 전쟁이 빈발했던 18세기 유럽지역을 중심으로 태동된 근대 지리교육은 단순히 지리적인 지식 전수를 넘어서 국가관과 영토관 확립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권정화, 2009). 앤더슨(Anderson, 1983)과 홉스봄(Hobsbawm, 1990)은 민족주의가 국가가 생산한 이데올로기지만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근간이라고 주장하고 근대 국가들이 국가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를 밝혔다. 각국 정부는 무엇보다도 지리교육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국경과 영토 개념을 교육하고 국민들의 주권의식을 신장시켰으며 이러한 전통은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다.

〈표 1〉과 〈표 3〉은 미국 지리교육자가 얼마만큼 영토 관련 쟁점에 관심이 있고 설문조사 대상자 중 얼마가 실제로 영토 관련 쟁점을 주제로 강의를 한 경험이 있는지를 보여준다. 미국 지리교육자 65.4%는 자신들의 강의 시간에 국경과 영토 관련한 쟁점을 주제로 직접 수업을 진행한 경험이 있다(〈표 1〉). 미국 지리교육자 85.2%가 국가 주권(National Sovereignty)과 관련한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표 3〉).

〈표 3〉은 국가 주권과 정체성에 관한 교육을 통해서 추구할 수 있는 다양한 가치에 대한 미국 지리교육자의 생각을 보여준다. 다수의 미국 지리교육자는 국가 주권과 정체성에 관한 교육이 학생들의 애국심을 신장시키고 영토 자주권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한다고 믿고 있다. 또한 자국 영토의 경제적인 가치를 이해시키고 인접국가와의 영토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학생들을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세계시민으로 자라나게 할 수 있다고 인식한다. 이 결과는 미국 지리교육자들이 국가 주권과 정체성에 관한 교육을 학생들 스스로 단순히 영토 주권을 이해하고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수단을 넘어서 그들이 세계시민으로 올바르게 성장하게 하는 교육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특히, 미국과 주변 국가 간의 심각한 영토 분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지리교육자가 국가



주권과 정체성에 관한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는 것은 국가를 구성하는 3요소 중 하나로 영토의 중요성과 삶의 터전으로서 영토의 의미를 교육과정을 통해 다루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실제로 지리교육자들은 국토를 국가 정체성과 소속감, 애착심의 근거가 되는 곳이며 일상생활이 영위되는 영역으로 이해하고 접근한다.

〈표 3〉 미국 지리교육자의 국가 정체성 관련 교육에 대한 인식 (N=81)

(단위: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주권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	1.2	7.4	23.5	24.7	37.0	6.2
주권에 대한 교육이 다음의 가치들을 얼마나 잘 반영하나?						
• 애국심과 주권 의식	2.5	4.9	21.0	18.5	42.0	11.1
• 영토/주권의 중요성에 관한 교육	1.2	2.5	19.8	29.6	35.8	11.1
• 영토의 경제적인 가치에 관한 교육	3.7	2.5	21.0	21.0	40.7	11.1
• 타국과의 영토 분쟁을 해결할 학생의 능력 개선	3.7	3.7	16.0	27.2	38.3	11.1
•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는 세계시민으로서의 교육	2.5	3.7	14.8	23.5	45.7	9.9
국경과 영토 쟁점에 대한 관심의 정도	1.2	6.2	28.4	24.7	35.8	3.7

미국 지리교육자의 국가 주권 및 영토교육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미국 지리교육자를 지난 5년 이내 한국을 방문한 경험 유무와 지난 5년 이내에 한국과 관련한 교육행사나 프로그램 참석 유무, 그리고 한국에 관한 수업 경험 유무로 집단을 나눈 후 각 집단 간의 인식 차이를 조사하였다(표 4). 지난 5년 이내에 한국을 방문한 경험 유무와 한국 관련 교육행사나 프로그램 참석 유무는 미국 지리교육자들의 국가 주권 및 영토교육과 관련한 인식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한국에 관한 수업을 한 경험이 있는 집단은 그런 경험이 없는 집단에 비하여 유의한 수준에서 국가 주권 교육이 국민들의 애국심을 기르고 국민 주권의식을 고양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뿐만 아니라 이들은 경계와 영토 쟁점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실제로 영토 쟁점에 관해 교육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한국에 관한 수업이 미국 지리교육자

로 하여금 영토 쟁점에 관심을 가지게 하고, 실제로 영토 쟁점에 관한 수업을 할 동기를 부여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4〉 미국 지리교육자의 영토교육에 대한 인식 차이 t 검정 결과

구분	한국 방문 경험		한국 관련 교육 프로그램 참가 경험		한국 관련 수업 경험				
	t	df	Sig. F (2-tailed)	t	df	Sig. F (2-tailed)			
주권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	.490	74	.626	-.443	73	.659	1.762	73	.082
주권에 대한 교육이 다음의 가치들을 얼마나 잘 반영하나?									
• 애국심과 주권 의식	.930	70	.356	.501	70	.618	2.217	69	.030*
• 영토/주권의 중요성에 관한 교육	1.900	70	.062	.346	70	.730	1.077	69	.285
• 영토의 경제적인 가치에 관한 교육	1.774	70	.080	1.712	70	.091	.598	69	.552
• 타국과의 영토 분쟁을 해결할 학생의 능력 개선	.388	70	.699	.030	70	.976	1.507	69	.136
•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는 세계 시민으로서의 교육	.720	71	.474	-.684	71	.496	1.288	70	.202
국경과 영토 쟁점에 대한 관심의 정도	.940	76	.350	.796	75	.429	3.409	75	.001*
국경과 영토 쟁점에 대해 수업한 적이 있다	-.863	75	.391	-1.453	74	.150	-6.193	74	.000*

\*: p < 0.05

#### IV. 미국 지리교육자의 한국 영토 관련 쟁점에 대한 지식과 인식

우리나라와 연관되어 있는 대표적인 영토 관련 쟁점인 동해와 독도에 대한 미국 지리교육자들의 인식 정도를 〈표 5〉를 통해서 알 수 있다. 미국 지리교육자의 절반 이상은 동해와 관련한 쟁점을 인지한다.

이 결과는 미국 지리교육자가 한국과 일본 양국이 동해의 지명 표기 관련 각종 국제 지명 기관과 신문, 잡지, 그리고 각종 학회 등에서 벌이고 있는 지명 관련 논쟁을 접하는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반면에 2/3가량의 미국 지리교육자가 독도 영유권 관련 쟁점을 인지하지 못할 뿐더러

〈표 5〉 미국 지리교육자의 동해와 독도에 관한 정보 접촉 경험 (N=81)

(단위: %)

구분	예	아니오	무응답
동해와 관련한 쟁점을 들어본 적이 있다	54.3	40.7	4.9
독도와 관련한 쟁점을 들어본 적이 있다	27.2	67.9	4.9
독도는 한국의 영토다	24.7	65.4	9.9
동해 해역을 일본해로 표기한 지도를 본 적이 있다	82.7	13.6	3.7
동해 해역을 일본해와 동해로 표기한 지도를 본 적이 있다	46.9	45.7	7.4

〈표 6〉 미국 지리교육자의 한국의 영토 관련 쟁점에 대한 지식과 인식 (N=81)

(단위: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을 알고 있다	58.0	17.3	7.4	4.9	7.4	4.9
'일본해', '동해'로 병기하는 쟁점에 대해 알고 있다	43.2	13.6	13.6	12.3	12.3	4.9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은 일본 제국주의의 잔재다	2.9	4.9	28.4	13.6	12.3	12.3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알지 못한다. 이 결과는 세계지리 차원에서는 스케일 에 따라 독도가 표현되기 어려운 지도를 사용하고, 영토 관련 쟁점을 다룰 때 미국 지리교육자가 북미 지역이 아닌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토 관련 쟁점에 관심을 갖기 쉽지 않은 데 원인이 있다. 또한 동해 지명 쟁점과는 달리 독도영유권에 관한 일본의 의견에 대해 한국 정부가 실효적 지배하는 영토, 독도에 대한 쟁점에 대해 미대응 원칙으로 일관하여 동해 지명 표기와는 달리 국제적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것도 한 요인으로 추정된다.

동해 해역에 대한 지명으로 '일본해(Sea of Japan)'가 표현된 지도를 본 미국 지리교육자(82.7%)가 '동해(East Sea)'로 나온 지도를 본 미국 지리교육자(46.9%)보다 월등하게 많다. 이는 아직까지 주요 지도 및 지도집뿐만 아니라 각종 지리교재에서 동해 해역에 대한 표기로서 '일본해'가 많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비중 차이는 최종남(2011)이 미국 내 주요 지도집과 지리교재에서의 동해 해역 표기로 '일본해' 단독 표기 경우와 '동해/일본해(East Sea/Sea of Japan)'를 병기한 경우의 비중을 비교한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최근 동해 해역에 대한 지명 표기로 '동해/일본해'로 병기한 지도 비중이 크게 높아지는 추세를 감안한다면 앞으로 동해 해역의 지명으로 '동해'를 표기한 지도를 본 지리교육자들의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한다.

〈표 6〉은 독도와 동해 관련한 영토 쟁점들에 대한 미국 지리교육자의 지식과 인식을 보여준다. 미국 지리교육자의 12.3%만이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아는 반면에 58%의 미국 지리교육자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밝혔다. 반면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과 비교해서 2배에 이르는 24.6%의 미국 지리교육자가 동해 해역에 대한 '동해/일본해' 병기에 관한 쟁점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아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43.2%의 미국 지리교육자가 동해 해역에 대한 병기에 관해서 전혀 지식이 없다고 밝혔다. 이 분석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절반 이상(54.3%)의 미국 지리교육자가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과 동해 해역에 대한 지명 표기 쟁점들이 일본 제국주의의 잔재라는 사실을 '보통 이상'으로 아는 것이다. 이는 미국 지리교육자가 일반인들에 비해 외국에 대한 관심이 높을 뿐만 아니라 각종 국제 쟁점들을 습득할 기회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독도에 관한 우리 주장을 미국 지리교육자에게 정확하게 전파할 경우 홍보 효과가 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국 지리교육자의 한국 영토 쟁점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지난 5년 이내 한국을 방문한 경험 유무와 지난 5년 이내에 한국과 관련한 교육행사나 프로그램에 참석한 경험 유무, 그리고 한국에 관한 수업을 한 경험 유무로 미국 지리교육자들의 집단을 나누는 후 각 집단 간의 지식과 인식 차를 조사하였다(〈표 7〉). 한국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집단이 무경험 집단에 비해 유의한 수준으로 동해에 관한 쟁점을 들어본 적이 많고,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것을 보다 많이 인지한다. 이들은 또 동해 해역을 '동해/일본해'로 병기한 지도를 본 경험이 더 많다. 또한 한국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집단이 경험이 없는 집단에 비해서 동해 해역에 대한 병기(동해/일본해)와 관련한 쟁점을 잘 인지

〈표 7〉 미국 지리교육자의 한국 관련 영토 쟁점 지식에 관한 t 검정 결과

구분	한국 방문 경험			한국 관련 교육 프로그램 참가 경험			한국 관련 수업 경험		
	t	df	Sig. F (2-tailed)	t	df	Sig. F (2-tailed)	t	df	Sig. F (2-tailed)
동해와 관련한 쟁점을 들어본 적이 있다	-2.658	75	.010*	-3.486	75	.001*	-3.930	74	.000*
독도와 관련한 쟁점을 들어본 적이 있다	-1.740	75	.086	-2.724	75	.008*	-3.056	74	.003*
독도는 한국의 영토다	-2.609	71	.011*	-3.675	71	.000*	-3.405	70	.001*
동해 해역을 일본해로 표기한 지도를 본 적이 있다	-1.758	76	.083	-1.523	76	.132	-2.594	75	.011
동해 해역을 일본해와 동해로 표기한 지도를 본 적이 있다	-2.622	73	.011*	-4.153	73	.000*	-2.131	72	.036*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을 알고 있다	1.666	75	.100	1.820	75	.073	.788	74	.433
'동해/일본해로 병기하는 쟁점에 관해 알고 있다	4.559	75	.000*	4.906	75	.000*	2.956	74	.004*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은 일본 제국주의의 잔재다	1.873	69	.065	2.559	69	.013*	3.150	68	.002*
한국에 대하여 얼마나 자신 있게 알고 있나?	4.340	75	.000*	5.117	75	.000*	3.969	74	.000*

\*: p < 0.05

할 뿐만 아니라 한국에 관한 지식을 확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방문 경험을 통해 미국 지리교육자들은 한국을 이해하고 한국 관련 쟁점들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 결과는 지리교육자가 각종 국제 쟁점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쟁점들을 습득할 기회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한국을 방문한 경험은 지리교육자들에게 한국의 국경과 영토 관련 쟁점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

한국 관련 교육행사나 프로그램 참석 유무에 따른 한국의 영토 관련 쟁점들에 대한 지식과 인식의 형태는 한국을 방문한 경험 유무에 따른 지식과 인식의 형태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즉, 한국 관련 교육행사나 프로그램에 참석한 집단은 그렇지 못한 집단에 비하여 5%의 유효수준에서 유의한 수준으로 한국을 보다 자신 있게 알고 있고, 동해 해역의 표기로 동해/일본해 병기와 관련한 쟁점을 보다 잘 인식했다. 또한 일본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과 동해 해역에 대한 지명 관련 쟁점이 일본 제국주의의 잔재라는 것도 역시 잘 인식한다. 동해와 독도에 관한 쟁점에 대하여 들어본 경험과 독

도가 한국 영토라는 것을 인지하는 수준, 그리고 동해 해역을 동해/일본해로 병기한 지도를 본 경험 역시 한국과 관련한 교육행사나 프로그램에 참석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유의한 수준에서 높게 나타났다.

미국 지리교육자의 한국에 관한 수업진행 경험 유무에 따른 차이를 살펴 보면 미국 지리교육자 중 한국에 관한 수업을 경험한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유의한 수준에서 한국에 대해 보다 자신 있게 알고, 한국과 관련한 대부분의 영토 관련 쟁점들을 잘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대한 지식 정도는 한국에 대한 수업 경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미국 지리교육자의 동해 및 독도 관련 쟁점에 대한 지식과 관심은 한국 방문 경험과 한국에 대한 교육활동 참가 경험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특히 한국에 대한 수업 경험은 한국 관련 영토 쟁점 전반에 대한 지식과 관심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지리교육자가 한국에 대한 수업을 한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한국에 관한 각종 정보를 검색함을 의미한다. 지리수업에 활용되는 지식은 대상 사례지역이 가지는 특성 및 특정 쟁점을 중심으로 구성되는데 동북아시아에 위치해 있고 역사가 깊은 한국은 영토 관련 쟁점을 학습하는 데 적합한 사례지역이 될 수 있다. 지리교육자는 미국을 다루는 지리수업에서 학습하기 어려운 주제를 한국 사례를 통해 학습할 수 있다. 수업을 준비하면서 교사는 학생들에게 소개할 내용에 대해 미리 준비하고 검색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학습소재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게 된다. 수업이 진행되는 시간 동안 교사와 학생은 학습내용에 집중하게 되고, 수업 후에는 학생들은 교사의 수업 목표에 근접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관찰하면 교육의 주체인 교사와 학생들에게 한국의 영토 관련 쟁점을 홍보하는 것이 지속적인 효과에 이르는 좋은 방법임을 알 수 있다. 장기적으로 볼 때에도 학생들이 장차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위치에서 의사결정을 할 경우 한국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도록 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한국의 영토 관련 쟁점들에 대한 지리교육자들의 지식을 확대하고 인

식을 넓히기 위해서는 이들이 한국에 관한 수업에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한국 관련 각종 정보들을 제공해 지리교육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혁신 있게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지원이 일회적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지리교육자가 지속적이고 자기주도적으로 한국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책을 갖출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한국에 관심을 가지는 지리교육자들에게 한국이나 동해, 독도 등의 방문 기회를 제공한다면 이들이 동료, 학생들에게 동해와 독도를 홍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V. 맺음말

미국 지리교육자는 영토 관련 교육이 애국심을 고취하고 영토의 자주권을 인식하며 자국 영토의 경제적인 가치를 이해시키는 데 크게 기여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들 대부분은 영토교육과 접경 혹은 영토 쟁점들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영토 관련 쟁점에 대해 수업시간에 직접 가르쳐본 경험이 있는 지리교육자는 65.4%에 달했다.

동해와 독도 관련 정보에 관한 미국 지리교육자의 인식 수준은 높지 않았다. 동해 해역의 지명에 관한 쟁점을 접한 지리교육자가 54.3%인 반면, 독도에 대해 알고 있는 지리교육자는 27.2%에 지나지 않았고,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사실을 아는 지리교육자는 이보다 낮은 24.7%였다. 그리고 지리교육자들은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뿐만 아니라 동해 해역의 지명 표기에 관한 쟁점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았다. 그리고 동해 해역이 동해와 일본해로 병기된 지도를 본 지리교육자(46.9%)보다 일본해로 단독 표기된 지도를 본 지리교육자(82.7%)의 비율이 두 배 가량 높았다.

이 분석들에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절반 이상(54.3%)의 설문 대상 지리교육자가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과 동해 해역에 대한 지명 표기 쟁점들이 일본 제국주의의 잔재라는 사실을 '보통 이상'으로 알고 있다는 것

이다. 이는 지리교육자가 일반인들에 비해 외국에 대한 관심이 높을 뿐더러 각종 국제 쟁점들을 습득할 기회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5년 이내에 한국을 방문한 경험 유무에 따라 지리교육자를 구분하여 분석해본 결과, 한국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집단의 한국에 대한 인식 수준이 매우 높고 동해 해역에 대한 동해와 일본해 관련 쟁점에 대한 인식 수준도 매우 높았다. 또한 한국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했거나 한국 관련 수업을 한 경험이 있는 집단은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토 분쟁을 시도한다는 사실과 이러한 일본의 행태가 제국주의의 산물임을 이해하고 인식하는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향후 우리의 영토 쟁점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는 지리교육자의 인식과 지식 수준을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제공되는 각종 자료를 통해서 지리교육자들은 한국의 영토 관련 쟁점들에 관한 이해력을 높일 수 있고, 이들을 통해 교육받게 될 학생들도 이 쟁점들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우리나라는 장기적으로 국제사회에서 동해·독도와 관련한 한국 측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저변확대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이 연구결과는 한국·영토 관련 쟁점을 해외에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다수의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일반인 등 타 집단에 비해 외국에 대한 관심이 높은 지리교육자들은 영토 쟁점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과 한국의 영토 쟁점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한다. 이는 지금까지 정부와 각종 민간단체들이 벌여온 '한국 바로 알리기'라는 큰 틀에서의 각종 홍보활동들과 해외에서의 독도 영유권, 동해 지명과 관련한 기존의 홍보활동들이 어떤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결과가 독도와 동해 관련한 정보를 해외에 올바르게 제공할 수 있는 방법과 효율적인 인식 제고 방안을 모색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조사대상 지리교육자들의 동해와 독도 관련 인식 수준은 한국 방문 경험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다. 즉, 지리교육자들에게 동해 및 독

도에 관련한 각종 회의와 모임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동해, 독도와 관련한 이해와 인식 수준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보다 효율적인 홍보를 위해서는 지리교육자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설문분석을 통해 독도와 동해 관련 각종 홍보자료의 사용자이자 수요자인 지리교육자의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수요에 적합한 홍보자료 및 독도와 동해 관련 각종 교재들을 제작해야 한다. 또한 이를 통해서 한국 지리교육에 접목할 수 있는 내용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국내 각종 해외 홍보 담당자들이 이 연구결과와 경험을 공유하여 국제사회에 한국 및 독도와 동해 관련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홍보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활동들은 우리의 영토 쟁점과 관련하여 올바른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이 쟁점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지지를 확보하는 효율적인 방법이다.

## 국문초록

이 연구는 2010년과 2011년에 개최된 미국 내 지리학 대회에 참석한 미국 지리교육자의 동해와 독도에 대한 인식 관련 설문조사를 이용하여 파악하였다. 설문 내용은 한국 방문 경험과 한국 관련 교육 프로그램 참가 경험, 한국 관련 수업 경험, 영토 관련 쟁점 수업 경험 등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경험들이 미국 지리교육자의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동해와 독도에 관련한 영토 쟁점에 대한 지식 및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밝혔다. 미국 지리교육자의 한국 관련 영토 쟁점에 대한 지식 및 인식은 한국 방문 경험 여부와 한국 관련 교육 프로그램 참가 경험 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특히 한국에 대한 수업 경험 여부가 한국 관련 영토 쟁점 전반에 대한 지식 및 인식과 관련한 대부분 사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 결과는 미국 지리교육자가 한국의 영토 관련 쟁점을 한국 관련 수업소재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지리교육자를 대상으로 동해와 독도 관련 홍보전략 수립 시 지리교육자가 교육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업자료의 개발뿐만 아니라 지리교육자가 이 수업자료들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미국 지리교육자, 인식, 영토 쟁점, 동해, 독도

## ABSTRACT

Preliminary Study on Effective Overseas Public Relations Strategies for East Sea and Dokdo

Yoon, Okkyong

Assistant Professor, Dept. of Social Studies Education, Cheo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oi, Jongnam

Professor, Dept. of Geography, College of Arts and Sciences, Western Illinois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s American geography educators' knowledge and perceptions on East Sea and Dokdo using the survey conducted at two national geography conferences in the United States in 2010 and 2011. Questionnaire used in this study includes questions about the experiences of visiting Korea, attending educational programs about Korea, teaching Korea or territorial issues in class. This study analyzes how these experiences influence American geography educators' knowledge and perceptions on territorial issues Korea is currently involved with. The group of American geography educators who previously had experience associated with Korea show higher degree of knowledge on those territorial issues than the group without experience. Especially, experience of teaching Korea in class induces significant differences in knowledge and perception on Korean territorial issues between two groups. This finding indicates that Korean territorial issues can be useful educational materials for classes teaching about Korea. Thus it is necessary to develop educational materials about Korea and Korean territorial issues for geography educators in ways easily accessible to these materials.

<Keyword>

American Geography Educator, Perception, Territorial Issue, East Sea, Dokdo

## 참고문헌

- 권정화, 2009, 『지리사상사 강의노트』, 한울
- 김주택, 2009,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교육」, 『역사교육연구』 5, 133~185쪽.
- 남호엽 · 김일기, 2001, 「지역학습에 있어서 민족정체성과 지역정체성의 관계」, 『대한지리학회지』 36(4), 483~494쪽.
- 서태열 · 김혜숙 · 윤옥경, 2007, 『독도 및 울릉도 관련 영토교육의 방향 모색』,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심정보, 2009, 『한국과 일본의 초중등학교 사회과에서 독도 다케시마를 둘러싼 영토교육의 현황』, 동북아역사재단 연구보고서.
- 박선미, 2009, 「독도교육의 방향: 민족주의로부터 시민적 애국주의로」,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7(2), 163~176쪽.
- 박선미 · 손승호 · 이호상 · 안종철 · 유진상 · 이효선 · 전유신, 2009, 『독도학습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연구보고서.
- 진재관 · 송정아 · 홍성근 · 정연 · 이우평 · 송영심 · 윤홍경 · 한동균 · 황은희, 2010, 『체계적인 독도교육을 위한 초·중·고등학교 독도교육 내용 체계 구성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연구보고서.
- 최중남, 2011, 『영미권 지도제작사들의 지명 표기 형태와 원칙에 관한 기초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연구보고서.
- Anderson, B., 1983,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London: Verso.
- Hobsbawm, E., 1990, *Nations and Nationalism since 1780: Programme, Myth, Realit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근대기 조선 지리지에 보이는 일본의 울릉도·독도 인식

호칭의 혼란을 중심으로

유미림 한아문화연구소

## 1. 머리말

이 글은 근대기 일본인 편찬 조선 지리지에 나타난 울릉도·독도 관련 인식을 호칭의 변화에 초점을 맞춰 고찰한 것이다. 일본은 메이지유신 이후 부국강병을 기도하는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에 의존하여 지리지를 펴냈고, 이를 제국주의 확장에 원용하였다. 특히 일본이 제국주의 확장을 위해 가장 우선으로 필요했던 정보가 조선에 관한 것이었다. 조선의 울릉도와 독도에 관한 한, 일본이 이곳의 풍부한 목재와 어업자원에 관심을 기울인 시기는 에도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근대 이전 울릉도에 대한 일본 호칭은 '다케시마', 독도는 '마쓰시마'인 경우가 많았다. 17세기 안용복 사건으로 인해 내려진 '다케시마 도해금지령'의 다케시마는 바로 울릉도를 가리키지만 이 금지령에는 다케시마 도해과정에 들르는 섬, 즉 마쓰시마 도해금지도 포함된다. 두 섬에 대한 일본인 도항은 1837년 이마즈야 하치에몬 사건<sup>1</sup>으로 인해 금지령이 강화되면서 한동안 뜸했었다. 그 사이에 서양 선박들이 동해를 항행하다가 울릉도와 독도를 발견하면서 서양 이름을 붙이게 되고 그 이름이 다시 일본인<sup>2</sup>에 의해 일본으로 유입되면서 두 섬의 호칭에 혼란을 초래했다.

한편 일본이 메이지유신을 전후하여 해외 개척으로 눈을 돌리면서 울릉도가 신도(新島)로서 주목받게 되었다. 1870년대 중반부터는 이른바 '다케시마 내지 마쓰시마 개척원'이 이어지기 시작했고, 1880년대가 되면 일본인의 울릉도 도해는 물론 조선인의 도해까지 이어져 조선 정부에도 이 사실이 보고되었다. 이를 계기로 조선은 수백 년간 시행해오던 수도 정책을 폐지하는 대신 울릉도와 주변 도서를 개척하기로 정책을 바꿨다.

이런 과정에서 일본에 의한 조선 지리지 편찬은 근대기 식민주의 국가의 발흥과 직접적인 연관을 지니고 활발해졌다. 지리지 편찬에 직접 혹은 간접적인 참여자로서 일본 정부가 개입한 정황은 서문 등을 통해 흔히 접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배경을 지닌 조선 지리지에 관해 그동안 연구된 바가 거의 없었다. 근대 이전 즉 전통적인 조선 지리지 연구는 전국 규모의 지리지와 군현지, 읍지 등을 중심으로 이뤄져 있으나 근대기 일본 편찬의 조선 지리지 연구는 거의 수행된 적이 없으며 그중에서도 울릉도와 독도라는 특정 지역을 고찰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특정 지역에 대한 인식을 고찰한 경우 우리나라가 펴낸 지리지를 대상으로 한 것에 그치며<sup>3</sup> 일본인 편찬의 경우

1 이마즈야 하치에몬이 막부 허가 없이 울릉도에 건너가 밀무역을 하다 1836년에 발각되어 처형당한 사건으로 일명 덴포(天保)다케시마 사건이라고도 한다. 하치에몬이 조사받던 중 작성된 『조선죽도 도항시말기(朝鮮竹島 渡航始末記)』 수록 지도에는 마쓰시마(독도)가 조선영토로 되어 있다.

2 1867년 가쓰 가이슈가 그린 '대일본 연해략도'는 일본 최초의 근대식 해도로써 다케시마(아르고노트), 마쓰시마, 리앙쿠르 섬을 그렸는데, 이는 지볼트 지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3 신명호, 2010, 「조선시대 지리지 항목과 부산이미지」, 『동북아문화연구』 25권, 동북아시아문화학회.

4 남영우, 1993, 「일본 명치기의 한국지리 관련문헌(日本 明治期の 韓國地理 關聯文獻)」, 『지리학』 28권 1호, 대한지리학회.

로 한 것에 그치며<sup>3</sup> 일본인 편찬의 경우 메이지시기 한국지리 관련 문헌을 소개하는 데 불과했다.<sup>4</sup> 이 글에서는 일본이 펴낸 지리지를 주 대상으로 하되 1905년 일본이 독도 불법 편입을 기도할 정도로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던 독도와 울릉도에 관한 인식을 호칭의 변화에 초점을 맞춰 고찰함으로써 일본의 독도 고유영토론의 허실을 검증하고자 한다.

1869~1945년 사이 일본이 펴낸 조선 지리지와 일본 지리지는 수리지 등을 포함하여 약 80여 종이 넘는다. 지리지의 체계적 분석을 위해서는 조선 지리지뿐만

아니라 일본 지리지, 수로지<sup>5</sup>, 지도<sup>6</sup>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하지만 여기서는 근대기 일본이 편찬한 조선 지리지와 부속지도만으로 연구대상을 한정하기로 한다.

## II. 1876~1905년 울릉도·독도 서술의 추이

### 1. 울릉도·독도 호칭의 혼란과 지도상의 불일치

일본이 조선 지리지를 퍼내기 시작한 시기는 대략 1874년을 전후해서다. 에도시대에는 『삼국통람도설(三國通覽圖說)』(1785)과 『상서기문(象符紀聞)』(1794)이 조선 지리지를 간략히 다룬 대표적인 것으로서, 내용도 조선인이 제공한 정보와 서술방식에 의존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메이지시기에는 일본과 서양의 수집 정보에 근거한 조선 지리지 편찬이 시작되는데 조선 지리지에서 울릉도에 관한 내용이 보이기 시작한 것은 『조선지략(朝鮮誌略)』(도조 다모쓰[東條保] 편찬, 1875)이다. 소략하지만 경위도가 밝혀져 있고 ‘도서’ 편목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보인다.

자산도(子山島) 혹은 궁고(弓高)<sup>7</sup>라는 이름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다케시마[竹島]라고 칭한다. 강원도 안에 있다. 3년마다 한번 수영(水營)의 관리를 파견하여 이 섬을 검사한다. 수로는 1천 리(里)라고 한다.

1875년 당시 울릉도 호칭이 다케시마이며, 자산도는 울릉도의 이칭이었음을 보여준다.<sup>8</sup> 서양인 저술을 발췌·번역한 『조선사정(朝鮮事情)』(1876)은 당시 팽배한 정한론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조선 정벌에 도움을 줄 목적에서 낸 것으로, 경위도는 나와 있지만 울릉도에 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조선지리지(朝鮮地誌)』(1881) 역시 울릉도 관련 내용은 보이지 않으며 첨부된 지도에도 울릉도와 독도는 그려져 있지 않다. 이 책에 제자(題字)를 해준 하나부

사 요시모토[花房義質]가 외무성 관리로서 1880년대 초 일본인의 울릉도 무단 입도와 벌목 등으로 양국이 갈등을 겪을 때 한국에 있던 인물임을 고려하면, 이 책의 편찬에 일본 정부가 관여했을 개연성은 매우 높다. 조선 지리지 편찬에 일본 정부와 군이 개입되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예는 『조선팔도지(朝鮮八道誌)』(1887)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편자인 고마쓰 스스무[小松運]는 육군 군의관으로서 조선에 근무한 자이고, 제자를 해준 와타나베 고키[渡邊洪基]는 제국대학 총장, 글을 써준 하나부사 요시모토는 특명 전권 공사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선팔도지』에 울릉도 관련 내용은 없고 첨부지도인 『조선전국략도(朝鮮全國略圖)』에도 울릉도와 독도는 그려져 있지 않다.

이렇듯 근대 초기 조선 지리지에 수록된 울릉도와 독도 관련 내용은 매우 소략하거나 생략된 경우가 많아 울릉도·독도가 지리지에서 주 관심지역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1870년대 『일본지리지요(日本地誌提要)』에 울릉도·독도 호칭이 다케시마[竹島]/마쓰시마[松島]로 되어 있던 것이

1886년 『개정 일본지리지요략(改正 日本地誌要略)』에서 마쓰시마[松嶋]/다케시마[竹嶋]

로 바뀌어 있는 정황은 조선 지리지의 불명확성과 수로지의 혼돈된 양상이 그대로 노정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양상은 지도에서도 마찬가지다. 지도에서 독도에 대한 일본 호칭은 1870년대에 우산도가 10, 마쓰시마가 17, 다케시마가 12, 리앙쿠르 락스가 2로 나타났으나, 1880년대에는 마쓰시마가 1, 다케시마가 13으로 나타나 다케시마로 표기된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sup>9</sup> 이러한 수치는 일본에서 울릉도와 독도에 관한 가장 혼란된 인식을 보여주는 시기가 바로 1870~1880년대라는

5 조선 지리지와 일본 지리지, 수로지를 연구 범위에 포함시킨 연구에 대해서는 유미림·최은석, 2010, 「근대 일본의 지리지에 나타난 울릉도 독도 인식」을 참조.

6 일본 고지도에 나타난 울릉도 독도 표기에 관한 분석은 현대송, 2010, 「일본 고지도로 본 일본의 독도 인식」, 『지해해양학술상 논문수상집』,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참조.

7 ‘궁고’는 ‘궁송(弓嵩[이스타케])’의 오기인 듯하다.

8 현대송의 연구에 의하면, 지도상에 울릉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한 것은 1870년대까지가 가장 일반적이었으나 1850년대에 마쓰시마라는 호칭이 붙여지면서 이후는 마쓰시마가 가장 빈번히 쓰였고 따라서 지도상의 표기와 지리지상의 표기 빈도는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2010, 앞의 글, 19쪽).

9 현대송, 2010, 위의 글, 26쪽.



사실을 시사해준다.

이런 인식 혼란은 이마즈야 하치에몬 사건으로 울릉도 도항에 40여 년간 공백이 있어 심화되었으나 얼마 안 돼 조선의 개항을 앞둔 시점에 일본 외무성이 조사한 항목 안에는 ‘다케시마와 마쓰시마가 조선의 부속이 된 경위’(1869년)가 들어 있어 일본이 이들 섬의 영유를 조선으로 인정하고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조사 후 보고서를 접한 일본 외무성은 ‘다케시마와 마쓰시마가 조선의 부속 도서’임을 재확인했으나 신도(新島) 개척의 봄은 다시 한번 섬 이름의 혼란을 가중시켰다.

메이지유신 이후 해외 영토로 눈을 돌리게 된 일본인들은 조선 동해상에 자원이 풍부한 섬이 있음에 주목하고 잇따른 개척 건의를 하였다. 1876년 7월, 무토 헤이가쿠(武藤平學)의 ‘마쓰시마 개척지의[松島開拓之議]’와 고다마 사다아키(兒玉貞陽)의 ‘건백서’, 1877년 1월 도다 다카요시(戸田敬義)의 ‘다케시마 도해지원[竹島渡海之願]’ 그리고 1878년 8월 시모무라 린하치로(下村輪八郎)와 사이토 시치로베(齋藤七郎兵衛)의 ‘마쓰시마 개척원[松島開拓願]’, 12월 사이토 시치로베의 ‘마쓰시마 개도 원서 및 건언[松島開島願書并建言]’ 등은 울릉도를 신도로 보고 청원한 것으로 신도 호칭을 다케시마와 마쓰시마 둘 다 쓰고 있으나 마쓰시마가 더 많다. 비슷한 시기인 1877년 3월 태정관은 ‘다케시마 외 일도가 일본과는 관계없다.’는 지령을 내렸다. 여기서 다케시마는 울릉도이며 ‘외 일도’가 마쓰시마, 즉 독도임을 첨부문서와 「기죽도 약도(磯竹島 略圖)」로도 확인된다. 지령 후 1881년 이시미국의 오야 켄스케(大谷兼助) 외 1명이 ‘마쓰시마 개간 청원서’를 냈을 때, 내무성 관리는 이를 외무성에 조회하면서 과거 내무성이 태정관에 제출한 문서 및 시마네현이 내무경과 농상무경에게 제출한 문서를 첨부했고 이때 지령의 ‘외 일도는 마쓰시마(독도-필자)’<sup>10</sup>임을 다시 한번 환기시켰다.

외무성은 이에 대한 답변문서에서 개척원 안의 마쓰시마가 울릉도를 가리키게 된 정황을 설명하려는 듯 ‘조선국 울릉도 즉 다케시마·마쓰시마[朝鮮國蔚陵島即竹島松島之儀]’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즉 외무성은 울릉도를 일러 두 가지 호칭(竹島/松島)으로 기술했는데, 이는 태정관 지령의 ‘외 일도’에

서 일도는 마쓰시마를 가리키지만 새로 제출된 ‘마쓰시마 개간 청원서’ 등에 지칭한 ‘마쓰시마’는 모두 울릉도를 가리키고 있으므로 혼란을 막기 위해 함께 적어준 것으로 보인다. 이어진 『현치요령(縣治要領)』(1882년 1월 31일)에서도 1881년 내무경 지령을 소개하면서 “서면상의 마쓰시마는 이전의 지령대로 우리나라와는 관계없음을 명심해야 하며, 따라서 개간 청원은 허가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함으로써 마쓰시마가 울릉도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렇게 하여 독도 호칭이던 마쓰시마가 차츰 울릉도 호칭으로 전환된 데다 1880년 3월 아마기(天城)함의 조사로 ‘마쓰시마는 울릉도’, ‘다케시마는 북쪽에 있는 소도(죽서(竹嶼))로서 울릉도와 함께 조선령’이라는 결론이 나와 호칭 혼란은 가중되었다.

혼란의 영향은 지리지와 지도에도 나타났다. 1880년대에는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시한 지도가 자취를 감추었지만 1890년대에는 다시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시한 지도가 나타났다.<sup>11</sup> 지리지에서는 울릉도와 독도에 관한 내용 자체가 소략된 탓에 1870년대에서 1880년대에 걸쳐서는 호칭 혼란의 궤적이 크게 드러나지는 않고 1890년대가 되어서야 보인다.

## 2. 울릉도 편목의 성립과 지리지의 비약적 증가

1880년대까지만 해도 조선 지리지의 울릉도·독도 관련 내용이 풍부하

10 ‘內務權大書記官西村捨三發外務書記官아て照會’, 『朝鮮國蔚陵島へ犯禁渡航/日本人ヲ引戻之儀ニ付伺(自明治十四年七月至明治十六年四月)』, 외무성 기록 3824. 태정관 지령 첨부지도로 ‘외 일도’가 마쓰시마 즉 독도임이 드러나 있음에도 현재 일본은 ‘외 일도’가 독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1881년 내무성 관리는 ‘외 일도는 마쓰시마다.’라고 부연하고 있어 당시 일본은 ‘다케시마 외의 한 섬이 마쓰시마라는 사실을 분명히 받아들이고 있었음을 말해 준다.

11 현대승, 2010, 앞의 글, 33쪽.

지 않았으나 1890년대가 되면 ‘울릉도’가 하나의 편목으로 출현한다. 지리지 가운데 특화된 수산지에서 그러한데, 수산지가 나오게 되는 배경은 일본의 어업진출과정과 관련이 깊다. 일본은 1883년에 『조일통상장정(朝日通商章程)』을 체결, 처음으로 조선과 어업조약을 체결했고 1889년 말에는 이 장정의 시행세칙에 해당하는 『조일통어장정(朝日通漁章程)』을 체결했다.

이 장정이 체결됨으로써 쓰시마 근해에서 어업을 하던 일본 어민은 어업세를 납부하고 조선에서의 법적인 어로권을 인정받았다. 이를 근거로 한국 동해안과 남해안 어장 개방을 요구하며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시작한 일본은 “무궁한 보고인 조선해”의 어업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거둘 수 있게 장려하기 위해 『조선통어사정(朝鮮通漁事情)』(세키자와 아케키요[關澤明清]·다케나카 구니카[竹中邦香] 공편, 1893)을 냈다.

『조선통어사정』은 조선해 출어 기원과 연혁, 통어규칙, 그리고 지리, 수산물과 어업 실태 등을 싣고 있으며 수산물 이름을 한글로 표기하였다. ‘지리’에서는 평안도를 제외한 각 도를 다루고 있고 부도로 「조선국도」를 싣고 있다. 해도(海圖)의 오류가 한둘이 아님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어로활동에 실제로 필요한 지도정보를 제공하려는 목적이 강함을 알 수 있다. 여기서 ‘강원도’ 편목에서 유일하게 다뤄진 도서는 ‘울릉도(蔚陵島)’다.<sup>12</sup> 울릉도의 일본 호칭은 마쓰시마이며 울진에서 이틀이면 도달하고 옛날에는 우산국으로 칭해졌으며 일본에서 아직 출어한 자가 없다는 사실 등을 적고 있다. 이 수산자의 목적은 어업 관련 정보 제공에 있으므로 울릉도 관련 내용도 어업적 차원 논의에 머물고 있으나 호칭이 마쓰시마로 되어 있는 것이 특기할 만하다. 1870년대 말에서 1890년대 초기까지만 해도 울릉도 호칭으로 다케시마와 마쓰시마를 혼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산인신문』(1894년 2월 18일, 2444호) 기사 역시<sup>13</sup> 『조선통어사정』과 유사한 내용을 싣고 있지만 울릉도가 다케시마<sup>14</sup>로 되어 있어 호칭이 아직 정착하지 못한 상태를 말해주고 있다.

1894년 청일전쟁 발발은 조선의 전략적 중요성을 부각시킴과 동시에 울릉도와 독도의 전략적 중요성도 함께 부각시켰다. 이 때문에 지리지 간행이 비약적으로 증가하여 1894년에만 네 종류의 지리지가 편찬되었다. 『조선기문(朝鮮紀聞)』(스즈키 노부히토[鈴木信仁] 편술, 1894년 5월), 『조선지(朝鮮志)』(아다치 리쓰엔[足立栗園] 편저, 1894년 초여름), 『신편 조선지지도요략(新編 朝鮮地誌要略)』(마쓰모토 겐도[松本謙堂] 편, 1894), 『신찬 조선지리지(新撰 朝鮮地理誌)』(오타 사이지로[大田才次郎] 편, 1894년 9월) 등이 그것이다. 1894년에 가장 먼저 나온 『조선기문』에

실린 울릉도 연혁은 『조선지략』(1875) 내용 일부를 인용한 듯하지만 ‘궁고(弓高)’를 ‘궁승(弓勝)’ 즉 ‘이소타케’로 적어 놓았고, 울릉도를 다케시마로 적고 있다. 특히 『조선지』에는 일본과 조선이 지리적으로 매우 가깝고 역사적으로도 ‘보거순치(輔車唇齒)’의 관계라는 인식이 전제되어 있다. 지도에는 다케시마와 마쓰시마가 표기되어 있는데, 마쓰시마가 다케시마보다 동남쪽에 더 크게 나타나 있고 본문에는 울릉도와 독도에 관한 기술이 없어 어느 것을 그린 것인지 알 수 없다.

『신찬 조선지리지』도 『조선기문』과 편찬목적이 크게 다르지 않아 조선 산천 도읍의 위치와 형세를 알려는 목적에 충실하고자 이정(里程)을 조선 이법에 맞춰 적고 있다. 지리 정보와 민업, 인종, 정제, 종교, 풍속 등은 해관의 보고서를 참고하여 적었다. 첨부된 『조선지도』에는 다케시마와 마쓰시마가 그려져 있으나 마쓰시마가 다케시마보다 더 크게 오른쪽에 그려져 있다. ‘도서’ 편목에 “…… 기타 초도(草島), 제·성도(柵·城島), 죽도(竹島), 울릉도(鬱陵島), 우산도(汚山島)는 모두 동해 가운데 흩어져 있는 섬들이다.”라고 적고 있어 ‘죽도’ 다음에 ‘울릉도’와 ‘우산도(汚山島)’가 등장한다. 우산도가 울릉도와 함께 나온 것으로 보아 ‘汚山島’는 ‘于山島’, 즉 독도를 가리키는 듯하고, ‘竹島’는 울릉도 옆의 죽도를 가리키는 듯하지만 지도상으로는 마쓰시마[松島]가 다케시마[竹島] 오른쪽에 더 크게 나타나 있어 본문과 지도상 표기가 일치하지 않는다. 『신편(新編) 조선지지도요략』의 부도인 「조선

12 ‘울랑토’라고 후리가나가 붙어 있다.

13 기사 연도는 1894년이지만 내용은 1893년 6월에 마쓰에의 사토 고스이[佐藤狂水]가 오키에서 울릉도로 출어한 일을 적고 있다.

14 신문기사에 독도 호칭은 랑고 도로 되어 있다. 섬 둘레가 1리쯤이며 강치와 고래가 많이 서식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독도임을 알 수 있다.

15 어느 섬을 가리키는 것인지 불분명하므로 원문대로 표기함.

16 표지에는 부속지도명이 「팔도지도」로 되어 있다.

전도」<sup>16</sup> 역시 다케시마와 마쓰시마가 그려져 있으나 마쓰시마가 다케시마 오른쪽에 있고 경위도상으로 볼 때는 131도에 못 미치게 나타나 있다. 청일전쟁 이후 활발해진 지리지 편찬은 대한제국 정부와 민간에도 영향을 미쳐 『조선지』(1895)와 『대한지지(大韓地誌)』(1899)가 나왔으나 이들은 본고의 주제를 벗어나므로 상론하지 않는다.

### 3. '울릉도' 서술과 '양코도'

울릉도가 본격적으로 다뤄진 지리지는 1901년의 『조선개회사(朝鮮開化史)』(쓰네야 모리후쿠(恒屋盛服) 저)다. 일본의 식민사업 실행을 장려하기 위해 발간된 이 책은 지리편 제4장 강원도 부분에 독립된 편목으로 울릉도 관련 내용이 나온다. 강릉이나 삼척 편목에 비해 양적으로도 많아 “울릉(蔚陵)이라고도 쓰는데 바로 옛날 우산국이다. 후에 신라로 편입되었다. 별명은 무릉(武陵), 우릉(羽陵)이니 모두 그 자음이 비슷하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이어 “크고 작은 여섯 개의 섬이 있다. 그중 저명한 것을 우산도(일본인은 마쓰시마라고 이름한다)와 竹島라고 한다. ……”고 하여 우산도와 竹島를 별개의 섬으로 보고 있으며 우산도를 일본 호칭 마쓰시마에 비정하고 있어 독도임을 알 수 있다. 울릉도가 아닌 섬으로서 일본이 마쓰시마라고 부를 만한 섬은 독도 외에는 없기 때문이다. 竹島가 울릉도 주변 섬으로서 우산도와 함께 나오고 있으므로 울릉도와 독도가 아닌 ‘죽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은 1898년 봄에 집필을 시작하며 1899년 5월에 탈고하고 서문은 1900년 늦봄에 쓴 것으로 되어 있어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이전에 완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울릉도 부속 도서를 여섯 개의 대소 도서로 본 것은 1899년에 스미스가 보고한 바 있다. 부산해관에 근무하던 스미스는 울릉도 부속 도서 중 가장 드러나는 것을 우산도와 竹島라고 하였는데<sup>17</sup> 쓰네야 모리후쿠는 이 보고서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한해통어지침(韓海通漁指針)』(1903) 단계에 오면 울릉도 부속 도서를 여섯 개로 보던 인식은 비판받는다. 『한해통어지침』에 의하면 울릉도에 대하여 “평해군 월송포 남쪽 40여 리 바다 안에 있는 고도(孤島)로서 한인(韓人)은 별명을 무릉 또는 우릉이라고도 적는다. 바로 옛날의 우산국으로 지나인은 이를 마쓰시마라고 부른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추기(追記)’에서 “세상 사람들은 본도(本島)를 대소 여섯 개의 도서가 모여 있는 것으로 보고 혹은 다케시마, 마쓰시마라는 두 섬의 총칭이라고 하며, 심지어는 왕왕 지도 안에서도 이

<sup>17</sup> 그 내용이 『황성신문』(1899년 9월 23일) 별보: 鬱陵島 事況에 실려 있다.

를 병기한 것을 본다. 이와 같은 것은 실로 큰 오류다.”라고 하였다. 울릉도를 다케시마와 마쓰시마의 총칭으로 보거나 여섯 개 도서로 구성되어 있다고 본 종래 견해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한해통어지침』 저자인 구즈우 슈스케는 울릉도의 일본 호칭을 마쓰시마로 보고 있으므로 여기서 언급한 다케시마는 독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지만 구즈우 슈스케는 이를 부정하였다. 그는 오히려 마쓰시마(울릉도-역자) 외에 ‘양코도(島)’라는 다른 섬이 있음을 거론했다. 이렇게 되면 통상적으로 적용해오던, 울릉도=마쓰시마, 독도=다케시마 설이 여기서 적용되지 않는다. 그가 거론한 ‘양코도’가 바로 독도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위에서 나온 울릉도·독도·竹島 명칭을 도서(圖書) 간 비교해 보면, 각 호칭을 어디에 비정할 수 있는지가 가능하다. 1905년 일본이 독도를 다케시마로 부르기로 정하기 이전 울릉도와 주변 도서에 대한 제 도서상의 표기를 보면 아래와 같다. (괄호는 실제 저술 시기)

1894년	『신찬(新撰) 조선지리지』	울릉도, 弓山島, 竹島
1899년	『황성신문』	울릉도, 우산도, 竹島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울릉 전도, 竹島, 石島
1901년	『조선개회사』	울릉도, 우산도, 竹島
1902년	『통상휘찬(通商彙纂)』	울릉도, 랑코 島(본방인 松島)
1903년(1900)	『한해통어지침』	울릉도(지나인 松島), 양코 島

이들 문서나 지리지에 제시된 울릉도와 주변 도서의 호칭은 이들을 다음과 같이 울릉도와 독도 및 죽도에 대입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괄호 안은 출전)

- 울릉도: 울릉도(황성신문), 울릉 전도(칙령), 울릉도(조선개회사), 울릉도(한해통어지침-松島)
- 독도: 우산도(황성신문), 석도(칙령), 우산도(조선개회사-마쓰시마), 랑코 島(통상휘찬), 양코 島(한해통어지침)
- 죽도: 竹島(황성신문), 竹島(칙령), 竹島(조선개회사)

위의 관계로 보면, 일본이 1890년대 이후부터 독도를 다케시마로 명명하는 1905년 이전까지는 독도에 대한 호칭으로 다케시마(竹島)보다 우산도와 양코 島<sup>18</sup>를 더 많이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지도상으로는 1880년대에 독도 호칭으로 다케시마(竹島)를 사용한 경우가 많은 반면, 지리지에서는 랑코 島 호칭이 유입된 이후 이 호칭이 증가하고 있다. 그리하여 독도 호칭이 지도상에서는 다케시마로, 지리지에서는 양코 도로 표기되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竹島라는 호칭은 『조선 개회사』와 『한해통어지침』에도 나오는데 이 호칭 외에 양코 島가 따로 나오고 있으므로 竹島를 독도에 비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이때 일본은 독도 호칭으로 마쓰시마보다 우산도를 쓰는 경향이 있었으므로 竹島는 닷섬인 죽도로 보아야 할 것이다. 울릉도 호칭이던 다케시마를 마쓰시마로 전화한 이후에는 다케시마가 독도의 호칭으로 전화되었으나 그 이전에는 오히려 양코 島가 독도 호칭으로 더 많이 사용된 것이다. 그렇다면 일본이 이 시기에는 우산도를 독도 호칭으로 보고 있었으며 양코 島는 전래의 독도 호칭 마쓰시마가 사라진 뒤에 일시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반포를 전후해서 나온 일련의 문서와 지리지에서 울릉도와 竹島를 제외하면 남는 것은 우산도와 석도, 랑코도, 양코 도다. 이들 호칭은 모두 울릉도나 竹島에 비정하기 어려울 호칭이므로 당연히 독도에 비정 가능한 호칭들이다. 이 중에서 우산도와 양코 도를 제외하면 남는 것은 석도이므로 석도가 독도임을 말해준다.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 나온 석도가 울릉도와 죽도를 제외한 다른 섬인 독도의 호칭임을 방증해 주는 것이다.

#### 4. '양코 도' 편목의 독립과 '죽서(竹嶼)'의 등장

『한해통어지침』에서 울릉도 이칭의 오류가 비판되었듯이 조선 지리 정보 중 특히 울릉도와 주변 도서에 대한 기술은 점차 오류를 줄이고 정확성을 기하는 형태로 보완되어갔다. 『한해통어지침』은 1903년을 전후한 울릉도에

변화가 보였으므로 『조선통어사정』 이후 변모된 어업현황을 알려주는 데 발간목적이 있었다.<sup>19</sup> 당시 울릉도의 일본인 500여 명 중 대부분은 3월~6월 사이에 임시로 와 있는 자들이었고 영구 거주자는 30명 내외였으나 한인은 3천 명을 헤아렸다. 그러나 일본은 국내 인구 증가로 조선으로의 어업 진출을 인구 배출의 한 방편으로 이용, 점차 늘어나는 추세였다. 일본이 보기에 조선의 강원도는 특히 어업하기에 좋은 지역이지만 배가 다니기 불편해서 잠수기 어업을 제외하면 일본 출어자는 많지 않던 단계였다. 『한해통어지침』에서 울릉도는 제3장 '연해 지리'의 강원도 부분에 나오되 울릉도 관련 내용과 양코도 내용이 분리되어 있다. 이전 지리지에서는 양코도 즉 독도에 관한 내용이 울릉도 안에서 함께 언급되고 있었는데 여기서는 분리되어 있는 것이다. 목차에는 '울릉도(鬱陵島)[ヤンコ島]'로 되어 있는데 비해 본문에서는 '○울릉도(鬱陵島)'에 이어 '△양코도'로 이어져 있어 양자의 기호가 다르다. 기호를 ○를 울릉도로 하고 △를 양코도로 한 것은 양코도가 울릉도의 속도임을 나타내려 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양코도는 독도를 의미한다. 에도시대에는 독도가 주로 마쓰시마로 호칭되었으나 편입 이전 수로지에는 '리앙쿠르 열암' 혹은 '양코도'로 기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1886년의 『환영수로지(實瀛水路誌)』 역시 독도 호칭으로 우산도나 다케시마가 아닌 양코도를 쓰고 있었는데, 지리지에서는 이 호칭이 1903년<sup>20</sup>에야 등장한 것이다.<sup>21</sup> 『한해통어지침』에 나오는 '양코도'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양코도는-역자) 울릉도에서 동남방으로 약 30리(里), 우리 오키국 서북에서의 거리와 거의 같은 리수만큼 떨어져 있는 무인의 섬이다. 맑은 날 울릉도 산봉우리 높은 곳에서 이 섬을 볼 수 있다. 한인과 우리나라 어부들은 이를 양코라고 부른다. 길이는 거의 10여 정(町)이며 연안의 굴곡이 매우 많아 어선을 정박시켜 풍랑을 피하기에 알맞다. ……

18 한국 기록에는 '제국신문' 1901년 4월 1일 기사에 '양고'라는 섬 이름이 처음 보인다. 그러나 '울릉도 동남 삼십리' 해중에 있는 섬으로 보고 있어 일본의 잘못된 기록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19 1900년 저술에 착수하여 1903년에 발간되었다. 탈고에서 발간 전까지 오류에 대해서는 '추기'를 넣어 정정하였고, 울릉도 부속 도서에 대한 부분은 '추기'에서 언급하고 있다.

20 지리지에 앞서 1902년 『통상회찬』에 이미 '랑코 島(본방인 松島)'라는 호칭이 보인다.

21 지도상에는 '리앙쿠르 락스'라는 호칭이 1860년대에 보이는 것으로 되어 있다(현대 속. 양의 글, 25쪽).

윗글로 보건대 양코 도는 울릉도에서 동남방으로 30(里)리 떨어져 있는 섬으로, 오키국에서의 거리와 비슷한 것으로 되어 있어 거리상 오차가 있긴 하지만 맑은 날 울릉도 높은 곳에서 이 섬이 보인다는 사실을 적고 있어 독도임을 말해주고 있다. “한인과 우리나라 어부들은 이를 양코라고 부른다.”고 하여 『군함신고행동일지(軍艦新高行動日誌)』 1904년 9월 25일자 기록에 “리양코루도 암, 한인은 이를 독도(獨島)라고 쓰고 본방 어부들은 생략하여 양코라고 호칭한다. ……”<sup>22</sup>라고 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이 책은 1903년 발간이지만 서문은 1900년으로 되어 있어 1900년경 이미 완성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책에서 조선인과 일본인들이 독도를 일러 모두 양코라고 부른다고 한 사실은 독도라는 호칭이 아직 등장하지 않았음을 시사해준다. 기록상 독도에 해당되는 호칭은 1899년까지는 우산도, 1900년 칙령에는 석도, 그리고 1904년을 전후해서는 독도로 나온다. 위 『한해통어지침』에 의거한다면 조선에 양코 도라는 호칭이 알려진 시기가 1900년 전후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구즈우는 울릉도 부속 도서를 여섯 개의 대소 도서로 보는 속설을 비판하고 지도에 다케시마와 마쓰시마가 병기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구즈우는 마쓰시마를 울릉도 호칭으로 보고 있었으며 양코 도를 따로 언급했다. 따라서 위에 언급된 竹島는 독도 호칭이 아니라 죽도일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도 일본 고지도에는 항상 다케시마와 마쓰시마가 병기된 경우가 많았다. 이는 지리지 서술과 지도상의 표기가 일치하지 않음을 다시 한번 말해준다. 1903년은 지리지에서 울릉도 호칭으로는 마쓰시마, 독도 호칭으로는 양코 도가 정착해 가던 시기다. 그런데 지리지상의 호칭과는 달리 일본이 1905년 불법 편입과정에서 독도를 양코 도가 아닌 다케시마로 명명한 것은 역사적인 사실에 뒷받침되지 않은 정치적 명명이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울릉도 호칭으로 마쓰시마가 정착하게 되는 데는 수로지의 영향이 컸다고 할 수 있다. 수로지는 지리지 출현보다 앞선 1883년부터 출현하는데<sup>23</sup> 울릉도를 ‘울릉도, 일명 마쓰시마’라고 표기한 경우가 많았고 ‘Dagelet island’

를 병기한 경우도 많았다. 에도시대에 다케시마로 호칭하던 울릉도 호칭을 수로지가 ‘울릉도 일명 마쓰시마’로 서술하면서 그것이 정착해가는 상황이 되자 1905년에 일본은 더 이상 마쓰시마를 쓰지 못하고 다케시마를 독도 호칭으로 정해버린 것이다.

1903년 『한해통어지침』은 울릉도와 죽도, 양코 도 호칭과 관련하여 『통상취찬』 안의 보고서 「한국 울릉도사정(韓國 鬱陵島事情)」<sup>24</sup>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 보고서는 울릉도 지세와 한인 상황, 선박 정박장, 일본 재류민 개황, 상업과 어업 현황, 교통과 기후 등에 관해 서술하면서 부속 도서에 관해서도 언급하였다. “…… 뗏세미 島(テツセミ島: 뗏섬, 죽도-필자)는 와달리 앞 바다에 있는데, 본방인은 이를 竹島라 속칭한다. 둘레가 30정(丁: 원문대로) 정도로 후박나무와 해장죽이 무성하지만 음료수가 없으므로 이주한 자가 없다고 한다. ……”는 구절이 보이며 쌍축석, 도목(섬목-필자), 관음도, 다와라지마, 굴바위 등의 지명도 나온다. 이 보고서와 『한해통어지침』의 지명을 대조해보면 울릉도 이외의 지명으로 뗏섬과 竹島, 양고가 혼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 울릉도사정」에서는 뗏섬이라는 섬을 竹島로 속칭한다는 사실<sup>25</sup>을 함께 적고 있지만 뗏섬은 울릉도 주민 현지 발음으로 이를 竹島로 적은 것이야말로 다케시마, 즉 독도가 아님을 분명히 한 것이다. 뗏세미 島(뗏섬-필자)는 뗏섬을 가리키는데 여기에 다시 섬의 의미 ‘島’자를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지도에 적용해 볼 경우 지도에 竹島로 나타난 것이 지리지상의 다케시마, 즉 독도를 의미한다고 보장하기는 어렵다. 지도에 다케시마와 마쓰시마 두 호칭이 함께 그려져 있는 것은 그 방향 관계와 위치, 제작 연대 등을 함께 고려해보아야 한다. 죽도의 등장은 그동안 독도 호칭으로 일본 문헌에 전해오던 竹島와 지도상 竹島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한편 일본이 대나무 섬을 竹島

22 두 개의 암서 東嶼, 西嶼의 호칭도 나온다.

23 『수로잡지』 16호; 41호.

24 이는 울릉도 경찰서 주재소의 경부 니시무라 게이조(西村圭象)가 부산 영사관 시데하라 기주로(幣原喜重郎) 영사의 보고서(1902년 5월)에 근거하여 다시 보고한 것이다.

25 본방 일본인이 죽도라고 한다고 했으나 1883년 수로지에는 조선인이 죽도라고 한다고 적혀 있다.

로 표기한 것은 돌섬을 石島로 표기한 조선의 명명방식과도 유사하다는 점에서 흥미를 끈다.

또한 『한국 울릉도사정』에도 랑코 도가 나오는데 이는 『한해통어지침』(1903)에 나온 ‘울릉도(지나인 마쓰시마),’ ‘양코 도’ 호칭보다 앞선다. 다만 이 보고서에는 독도 호칭으로 ‘랑코 도’와 ‘마쓰시마’가 둘 다 거론되어 있다. (독도를) ‘마쓰시마’라고 한다는 사실과 ‘랑코 도’ 호칭이 병기되어 있는 것은 1902년 당시 ‘랑코 도(양코 도)’가 일본 고유의 호칭이 아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또한 이는 수로지에서 ‘리양코루도 열암’이 독도 호칭으로, ‘마쓰시마’가 울릉도 호칭으로 정착해가던 점과도 대비되는 부분이다.

『한해통어지침』에는 강원도 항목에서 ‘○鬱陵島’와 ‘△ヤンコ島’로 나왔지만 『최신 한국실업지침(最新 韓國實業指針)』(1904)에는 13장 ‘수산’ 편에 ‘울릉도’와 ‘양코 도(島)’순으로 다시 나오고 있다. 다만 이때는 ‘양코 도’가 울릉도의 속도로서가 아니라 병렬관계의 섬으로 다루지고 있다. 울릉도에 대해서는 “무릉 또는 우릉이라고 한다. 옛날 우산국(于山國)으로 본방인과 지나인은 이를 마쓰시마(松島)라고 한다. 월송포의 남쪽 40리 해상에 있다.”고 하여 울릉도의 호칭이 ‘마쓰시마’로 되어 있다. 산물과 한인 호수 및 일본인에 관한 기술이 『한해통어지침』과 대동소이하다.

『최신 한국실업지침』에 의하면 ‘양코 도’는 “울릉도와 우리 오키섬 중간 30리(里) 해상에 있다.”고 하나 『한해통어지침』에는 양코 도가 울릉도에서 30리 떨어진 곳으로 되어 있다. 무인도라는 점, 뿔감과 음료수가 없는 점, 근해에 전복과 해삼, 우뭇가사리 등이 나며 상어가 많지만 해마(海馬)의 방해로 좋은 효과를 얻지 못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어 『한해통어지침』을 요약해 놓은 듯하다. 다만 『최신 한국실업지침』에는 외무성 정무국장 아마자 엔지로[山座門次郎]의 글을 비롯하여, 많은 이들의 서문이 실려 있어 일본 정부의 식산정책 및 대(對)러시아 관계가 반영된 것임을 엿볼 수 있다. 당시 일본은 한일의정서를 체결, 전쟁 수행에 필요한 군사적 요충지를 한국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게 해 놓고 러시아와 이익을 다투던 때였다. 일본은 한반도의 운명이 자국의 운명과 직결된다는 인식 하에 러시아에 앞서 조선을

차지해야 한다는 인식을 지니고 있었다.<sup>26</sup> 이어 일본은 러일전쟁에서 승리하자 조선 개척에 아무런 장애가 없다고 보았고, 실업지침은 이런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이 시기 조선 지리지의 울릉도·독도 서술 특징 중 하나는 竹島 호칭에 변화가 보인다는 점이다. 이전 지리지에서는 울릉도와 竹島, 마쓰시마가 함께 언급되고 있었고 뱃섬은 竹島<sup>27</sup>로 기술되고 있던 것에 비해 1904년부터는 竹嶼로 등장한다.

『한국지리(韓國地理)』(야즈 쇼에이[矢津昌永] 저, 1904) ‘도서’부분에서는 울릉도에 대해 “강원도 연안에서 80해리(裡), 우리 오키 서북에서 140해리 떨어진 곳에 울릉도(松島)가 있다.”고 기술하였으나 ‘처지(處地)’ 부분에서는 “울릉도는 일명 마쓰시마로 칭한다. 본도의 해안에서 80리(里),<sup>28</sup> 오키 서북서 140리 바다 가운데 고립되어 있다. …… 섬 둘레는 18리로 거의 반원을 이룬다.<sup>29</sup> 섬 중앙은 북위 37도 30분 동경 130도

26 아마자 엔지로의 서문.

27 1883년 『수로잡지』에 이미 ‘竹嶼(Boussole Rx), 竹島(조선인)’로 되어 있고, 1920년 『일본 수로지』에는 ‘죽도(竹嶼: 원문대로)로 되어 있어 죽도와 죽서 한자가 일치하지 않고 있다.

28 앞의 ‘도서’ 편에서는 해리로 나왔다.

29 수로지 기술과 유사하다.

30 앞에서는 울릉도가 강원도 해안에서 80해리 떨어져 있다고 되어 있었는데 여기서는 80리(哩)로 되어 있다. 해리를 잘못 옮긴 듯하다.

31 현재 죽도를 우리나라에서 ‘죽서’로 칭하기도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는 일본이 붙인 이름이다. 우리나라 호칭은 뱃섬, 또는 죽도가 올바르다. 독도에 대한 일본 호칭을 ‘다케시마’라 하지 않고 ‘죽도’로 표기하는 것은 뱃섬인 죽도와 혼동할 염려가 있다.

53분이다.”<sup>30</sup>라고 하였다. 이어 “이 섬의 동쪽에 죽서(竹嶼)가 있다.”고 하고 竹嶼에는 강조점이 놓여 있다. 이는 독도인 다케시마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구분하여 강조한 것이다. 竹嶼 외에 독도에 비정할 만한 ‘양코 도’가 보이지 않으므로 ‘죽서’가 ‘양코 도’를 대체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울릉도를 마쓰시마로 표기하고 있었으므로 ‘다케시마’는 독도 호칭을 의미하며, 따라서 竹嶼는 ‘죽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sup>31</sup>

### III. 1905년 이후 울릉도 · 독도 서술상의 변화

#### 1. 울릉도 속도로서의 ‘양코 도’

한국을 보호국화한 일본은 한국이 자국 판도의 일부가 되었다고 보고 개발론적 시각을 침탈론적 시각으로 바꾸기 시작했다. 『한국 신지리(韓國新地理)』(다부치 도모히코(田淵友彦), 1905)<sup>32</sup>에는 이런 경향이 반영되어 러일전쟁의 승리로 한국이 일본의 판도에 들어왔다는 인식<sup>33</sup> 하에 저술되었다. 이 지리지는 ‘울릉도’를 1편 ‘지문지리’ 도서(島嶼) 부분에서 언급하고, 3편 ‘처지’에서 다른 지역과 함께 하나의 편목으로 다시 나온다. 다만 경위도가 바뀌어 있고 위치는 ‘평해군 월송포 남쪽 40여 리 떨어진 해중에 있는 고도(孤島)로서 면적은 500사방 리’로 되어 있다. 중봉의 높이, 지질, 대두 산출액, 느티나무, 송도동, 산비둘기, 이주민 가호, 가이바라 에키켄의 속도설 등을 인용한 것이 『조선 개회사』, 『한해통어지침』과 유사하다. 독도에 대한 내용은 ‘울릉도’ 안에 ‘양코 島’로서 언급되어 있다.

본도에서 동남방 약 30리(里), 우리 오기 국과 거의 중앙에 해당되는 곳에 무인의 섬이 하나 있다. 속칭 이를 양코 島라고 한다. 길이는 10정(町) 남짓이다. 연안의 굴곡이 매우 많아 어선을 정박시키기에 알맞다고 하지만 뱃감과 음료수를 얻기가 매우 곤란하다. 땅을 파더라도 수 척(尺) 사이에 쉽게 물을 얻지 못한다. 이 섬에는 해마(海馬)가 많이 서식하고 있으며, 해산도 풍부하다고 한다.

이 역시 『한해통어지침』의 내용과 유사한 것으로 보아 이전 지리지를 답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코 도’와 관련된 부분을 보면 1905년 편입 이전까지는 독도를 주로 ‘양코 도’로 호칭하고 울릉도 속도로 기술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대부분의 지리지가 공통적이다.

조선 침탈을 일본의 국권 신장과 연결시켜야 한다는 인식은 지리지도

반영되었다. 『한국지(韓國誌)』(1905)와 『최근 조선사정(最近 朝鮮事情)』(1906)이 이런 목적에서 나온 지리지다. 특히 『한국지』는 러시아 대장성이 조사하여 펴낸 것을 일본 농상공부 산립국이 다시 낸 것이다. 일본 인구가 해마다 50~60만 명이 증가하고 있어 해외 식민지 개발이 중요한 상황이었으므로 식산에 뜻 있는 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낸 것이다. 이 단계에 오면 일본은 조선을 거의 식민지로 보아 지리지도에 식민화정책을 드러내는 한편, 식민지 정당화 논리를 펴고 있다.

#### 2. 울릉도 편목의 구체화

일본에 의한 강제 병합을 전후하여 특정 분야를 다룬 지리지가 출현하기 시작한다. 『한국수산지(韓國水産誌)』는 어업 관계자에게 참고자료로 제공, 일본의 어업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 아래 농상공부 수산국이 발간했다.<sup>34</sup> 통감부와의 협의 하에 조사원을 파견하여 자료를 수집했다는 서문으로 알 수 있듯이 일본 정부의 의도가 드러나 있다. 울릉도 관련 내용은 1집의 7장 ‘연안’의 ‘도서’ 편목, 그리고 울릉도에 관한 사진 설명, 그리고 경상남도 부분 등 모두 세 군데에 나온다. ‘도서’에 실린 설명을 보면,

“강원도 먼 바다에서 40여 리(里) 떨어진 곳에 위치한 울릉도(鬱陵島)<sup>35</sup>(강조점 있음-필자), 폭원(幅員)은 약 5리(里)<sup>36</sup> 사방으로, 동해안에서 가장 큰 섬이다. 본도는 별명이 미쓰시마(松島)라고도 한다. ……”라고 되어 있다. 2집에는 일본인이 별목을 목적으로 도래했으나 지금은 어업이 주가 되었고 어업은 오징어잡이뿐이라는 사실도 덧붙여져 있다. 1집에서는 도서로서의 울릉도를 설명했으나 2집 3장 ‘경상도’의 남도 ‘울도군’ 부분에서는 행정적인 설명을 하

32 1905년 초판 이래 1908년 4판까지 나왔다.

33 “화태섬(사할린-필자)과 함께 만주의 일부 같은 것을 종래 다른 나라처럼 여겨 연구하고 가르쳐왔던 것을 이제는 본방 범역(範域)의 일부로 볼 필요가 있음”(『한국 신지리』 서문).

34 1908년에 1집이 출판되어 총 4집이 나왔는데, 내용은 12도 연해의 어업사정, 외국인 어업, 포경업, 수산행정, 지리정보 등을 다룬 것이며 다수의 사진을 실고 있다.

35 10리로 되어 있는데 ‘울’의 오류이므로 고쳤다.

36 『한국 신지리』에는 500사방 리로 되어 있다.

고 있다. 울도군으로 된 시기가 거의 10년이나 늦게 되어 있다. 울릉도가 강원도 울도군 소속에서 1906년 9월 24일 경상남도로 이관된 사실이<sup>37</sup> 반영되어 있지 않다. 당시 울릉도 인구는 남자가 1916명, 여자가 1116명, 가호 수는 614호였다.<sup>38</sup> 그러나 2집 ‘울릉도’ 관련 내용이 2집의 ‘도서’ 편목 기술과 일치하지 않으며 이전 지리지와도 일치하지 않으나 여러 지명이 나타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독도’에 관한 내용은 1집 7장 ‘연안’ 중 ‘동해’ 부분에 나온다. ‘竹島(Liancourt rocks)’로 되어 있고 위치는 수로부 고시 제2094호를 인용하여 밝히고 있다. 1908년 기준 독도 위치는 오키열도 북서 약 80해리(浬)에 있으며, 두 섬 중 ‘東嶼(女嶋)’의 위치는 북위 37도 14분 18초, 동경 131도 52분 22초로 되어 있다. 독도를 ‘양코 도’가 아닌 ‘다케시마’로 하고 ‘Liancourt rocks’를 병기한 점이 특기할 만하다. 또한 독도를 ‘동서(여도)’로 하여 두 섬으로 구분한 것도 이전 지리지에서는 보이지 않던 양상이다.

조선 지리지는 일본에 의한 강제병합을 전후하여 몇 가지 변화가 보인다. 첫째로는 행정구역상의 변화로, 1독부 13도 체제로 된 사실이 기술되어 있다는 점이다. 또한 대부분의 지리지는 한일병합의 시말을 기술하고 있다. 1907년 7월 24일 한일 신협약이 체결된 뒤에 일본은 경성에 통감부, 지방에는 이사청을 두어 통치했다. 1909년 7월에는 한국 정부로부터 사범 및 감옥사무를 위탁받아 통감부 정치를 확대하면서 경찰권마저 장악하였다. 이로써 부산 이사청이 경상도 남부와 동부, 강원도 동부를 관할하고, 원산 이사청은 강원도 동북부를 관할하게 되었다. 이런 변화가 지리지에 반영되어 있고 『조선 신지지』(1910)에는 이 과정이 잘 기록되어 있다. 울릉도와 독도 관련 내용은 3장 ‘지세와 도서’편에 서술되어 있는데, “강원도 동방 해상 80리(里), 즉 오키도 서쪽 140리 해중에 울릉도라고 하는 하나의 큰 섬이 있습니다. 이 섬은 둘레가 18리(里)나 되고 섬 전체가 산을 이루어 수목이 울창하여 목재가 많이 납니다. 연해에는 어류가 많이 납니다. 이 섬은 마쓰시마[松島]라고도 하는데 우리 구 막부시대에는 밀항자가 있어 한때 소동을 겪은 적도 있습니다. 이 섬 동쪽에 작은 竹嶼[다케시마]라는 섬이 하나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竹嶼[다케시마]’라고 되어 있어 독도가

아니라 ‘죽도’일 가능성이 크다. 『한국지리』(1904) 내용과 흡사하기 때문이다.

### 3. 강제병합 후에도 ‘리앙코루도 락스’로 표기

일본에 의한 강제병합 이후 지리지의 변화는 ‘척식’ 편목이 추가되어 있고 행정구역 및 법률, 지명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조선요람(最近 朝鮮要覽)』(조선잡지사 편, 1910) 역시 이런 경향을 반영하듯 중요한 조약 및 법령을 싣고 있다. 『최근 조선요람』은 1909년 『최근 한국요람』의 개정판으로 국가명이 ‘한국’에서 ‘조선’으로 바뀌어 있으나 울릉도에 관한 내용은 없다. 『한국통람(韓國通覽)』(1910)은 통감부 발행으로 ‘수산’과 ‘공업’ 사이에 ‘척식 사업’이 편목으로 들어가 있다. 재정과 금융기관, 금리, 물가, 공업 소유권 및 저작권 보호 등 경제 관련 편목이 눈에 띄게 많아졌고, 통감부 소속 관서 및 직원, 일본관리 등을 다루고 있으나 울릉도에 관한 내용은 없다. 『조선지(朝鮮誌)』(요시다 히데사부로[吉田英三郎], 1911)는 조선총독 백작 테라우치 마사타케[寺内正毅]가 제자하고 백작 고다마 히데오[兒玉秀雄]가 서문을 썼으며 「조선지부도(朝鮮誌 附圖)」가 실려 있다. ‘경찰’과 ‘사범’ 등의 편목이 보이는데 이후 지리지에도 대부분 이들 편목이 나타나고 있다. 13장 경상남도 ‘울도군’에 나온 ‘울릉도’ 내용은 1905년 이후 정보를 수록하여 자세한 편이다. 울릉도 소속이 1907년(1906년의 오류 - 필자) 강원도에서 경상남도로 이속한 뒤 오늘에 이른다고 했고 부산에서 170해리(浬), 강원도 울진현에서는 80해리(浬) 떨어져 있으며 동서 거리는 5리(里), 남북으로는 4리, 넓이는 9평방 리로 되어 있다. 농업이 주업이지만 어업이 유망하고 어업

37 『各觀察道案』 第1冊, 光武 10年 4月 29日條 報告書號外, 指令 第3號, 『구한국관보』 3570호 부록(광무 10년 9월 28일 금요일) 칙령 제49호.

38 『황성신문』 1906년 9월 26일 : 잡보 : ‘鬱島戶口’.

인 대부분이 강원도 연안과 경상북도 이주자라는 점이 적혀 있다. 조선인 호수는 1,040여 호, 인구는 6,400인, 일본인은 300여 호 1,100여 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도동’에 관해 따로 자세히 기술



하고 있다.

일본은 조선을 병합하자마자 새로운 지리지 편찬에 착수했다. 2년 여의 준비를 거쳐 나온 것이 『최신 조선지지(最新 朝鮮地誌)』(1912)다. 1편 ‘자연 지리’ 10장 ‘도서(島嶼)’ 부분에 “일본해에는 울릉도, 여도(麗島), 마양도(馬養島) 등의 소도가 있다.”고 한 뒤 아래와 같은 내용이 보인다.

이 중에서 저명한 것에 대해 기술하자면, 울릉도는 내지인이 소위 마쓰시마(松島)라고 하는데 강원도 평해군 월송포에서 동북으로 40여 리(里) 떨어진 바다 가운데 있는 하나의 고도다. 동서가 5리(里), 남북이 4리로 면적은 대략 9평방 리다. 중앙에 솟아 있는 하나의 봉우리를 성인봉이라고 한다. 해발 약 1700척(尺)이다. 남별한 결과 과거 같은 모습은 없고 약간의 수목이 있을 뿐이다. 여기서 나오는 느티나무는 내지에서는 마쓰시마동[松島洞]이라 불리면서 진귀한 나무로 여겨지고 있다. 이(울릉도-필자) 부근에 일본해 전으로 이름이 알려진 로크(rock-필자) 리앙코루도가 있다.

1912년의 시점인데 여전히 울릉도 안 부속 섬으로 ‘로크 리앙코루도’ 즉 ‘양코 도’가 나오고 있다. 이는 독도 영유권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한국 신지리』(1905)에 ‘마쓰시마동’, ‘양코 島’ 호칭이 나온 적이 있었다. 독도를 일컫는 ‘로크 리앙코루도’가 이전에는 주로 ‘양코 도’로 호칭되었으나 1912년에는 “울릉도 부근에 일본해 해전(海戰)으로 이름이 알려진 로크 리앙코루도가 있다.”고 하여 ‘로크 리앙코루도’로 바뀌어 있다. 더구나 이 지리지는 1905년에 일본이 독도를 이른바 자국령으로 편입한 뒤의 기술이다. 즉 일본은 1905년 이후 지리지, 그것도 한국 지리지에서 독도를 다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울릉도 부속 도서로서 다루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로크 리앙코루도’는 1894년 일본 해군성 수로부가 발간한 『조선수로지(朝鮮水路誌)』에 ‘울릉도를 마쓰시마[松島], 독도를 리앙코루도 열암’으로 기술한 이래, 대부분의 지리지가 울릉도를 ‘마쓰시마’, 독도를 ‘리앙코루도 열암’ 혹은 ‘다케시마[竹島]’로 기술하던 것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 내용이 조

선 ‘도서’ 편목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일본이 독도를 시마네현으로 편입한 뒤에도 여전히 ‘조선의 섬 울릉도에 부속하는 섬’으로서 인식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다만 1912년 당시에는 울릉도가 경상남도 소속인데 강원도 소속으로 되어 있다.

이 지리지에는 조선 위치가 “극동은 울릉도 동단 동경 130도 54분, 극서는 압록강구 신도의 서단 동경 124도 13분, 극남은 제주도 남단 북위 33도 12분, 극북은 함경북도 북단 북위 42도 2분”으로 되어 있다. 일본이 당시 조선 극동을 동경 130도 54분으로 보고 있었으면서 ‘로크 리앙코루도’를 언급한 것, 1905년에 독도를 ‘다케시마’로 명명했음을 천명했으면서도 여전히 ‘로크 리앙코르도’로 호칭한 것은 두 가지 사실을 시사해 준다. 하나는 지리지에 기술된 경위도가 반드시 영토 범위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1912년 당시에 일본은 독도를 자국의 고유영토로 보는 인식이 희박했다는 점이다. 더구나 이 책의 교열을 맡았던 우에다 이치로[上田駿一郎]는 조선총독부 관리이자 편수관으로서 『(공립보통학교 교원) 강습회 강연집』(1911)의 『조선지리(朝鮮地理)』부분을 담당하는 등 조선 지리 연구에 관여해 온 인물이다. 이는 『최신 조선지지』편찬에 조선총독부가 깊이 관여되었음은 물론 당시 일본 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것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어진 『조선개척지(朝鮮開拓誌)』(하라다 히코구마[原田彦熊]·고마쓰 덴로[小松天浪] 공저, 1913)는 각 도(道)는 물론 울릉도에 대한 내용이 없으며, 다만 경상도 안에 소속된 어업 근거지로서만 소개하는 데 머물고 있어 병합 후에는 지리지에서 ‘울릉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 4. 지리적 관심의 후퇴

1910년 이후 행정구역상 편제가 변화됨에 따라 지리지에서 울릉도와 독도 관련 내용도 바뀌었다. 울릉도는 1906년에 강원도 관할에서 경상남도로 이속되었다가 1914년에는 경상북도로 이속되었다. 조선총독부는 자치행정 기초를 확립한다는 미명 하에 행정 편제를 개편하기 위한 법규를 제정하였

다. 한편 신구 군·면·리의 명칭을 변경하는 작업의 결과로 『신구 대조 조선전도부군면리동 명칭일람(新舊對照 朝鮮全道府郡面里洞 名稱一覽)』(오치 다다시치 越智唯七 편, 1917)이 나왔다. 이 일람에 의하면, 울릉도 행정구역 변경은 1913년에 조선총독부령 111호에 의해 근거가 마련되어 경상남도에서 경상북도 관할로 변경되었고 1914년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다.

『조선지리지(朝鮮地誌資料)』(조선총독부, 54책)는 필사본으로 편찬자는 미상이다. 일본이 1909년에 전국 지명을 조사한 결과물로서 울도군이 경상남도에 속해 있는 것으로 보아 1906년에서 1914년 사이의 자료로 볼 수 있지만, 지명 조사가 1910년에 시작되어 1914년에 마무리되었다<sup>39</sup>고 하므로 그 이후 자료로도 볼 수 있다. 모두 56곳의 지명이 수록되어 있으나 竹島와 독도는 실려 있지 않다. 이후로도 『최신 조선지리(最新 朝鮮地理)』(후지토 게이타 藤戶計太 지, 1918), 『최신 조선지지』(조선급만주사 편찬, 1918), 『신편 조선지지(新編 朝鮮地誌)』(히다카 유시로 日高友四郎, 1924), 『조선지리지(朝鮮地誌資料)』(1-42, 연대 미상), 『조선요람(朝鮮要覽)』(1923, 1924, 1926, 1933) 등의 편찬이 계속되었지만 독도 관련 내용은 없다. 『조선지리지(朝鮮地誌資料)』(조선총독부 임시조사국, 1919)는 조선의 극동을 경상북도 울릉도 죽도에 두고 동경 130도 56분 23초로 보고 있으나, ‘도별 극단 경위도’에 울릉도 위도는 동경 130도 56분 34초로 되어 있다. 제7 ‘도서’ ‘도서의 위치 명칭 및 둘레와 면적’에 경상북도 소속으로 울릉도와 죽도, 관음도가 들어가 있다. 울릉도는 서면과 북면, 남면에 걸쳐 있으며 죽도는 남면에, 관음도는 북면에 소속되어 있다. 울릉도 면적은 4,700방리,<sup>40</sup> 최고 높이는 983.6미터, 죽도 면적은 0.016방리(方里)<sup>41</sup>, 최고 지점의 높이는 105미터,<sup>42</sup> 관음도 면적은 0.011방리(方里), 최고 지점 높이는 107미터로 되어 있어 관음도와 죽도 면적이 보인다.

일제 강점기에 나온 지리지는 시정(施政) 위주로 되어 있는 것이 많다. 『조선십삼도지(朝鮮十三道誌)』(아나기가와 쓰토무 柳川勉 편, 1934?), 『조선현세편람(朝鮮現勢便覽) 1-5』(조선총독부, 1935~1939), 『조선풍토기(朝鮮風土記)』(오노 기요시 小野 清, 1935), 『조선사정(朝鮮事情)』(조선총독부, 1933), 『半島의 近影』(1936), 『조선대관(朝鮮大觀)』(호조 료에이 北條亮英, 1938), 『조선사정(朝鮮事情)』(조선총독부, 1944) 등

은 울릉도 지명을 열거하고는 있지만 내용은 초기에 비해 줄어들었다. 조선총독부 주관의 지리지는 조선 시정 경영과 일본인 발전 상황을 알려주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통계표를 첨부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있지만 울릉도와 관련해서는 행정구역상의 변화를 적고 있는데 그쳐 점차 관심이 후퇴하고 있다.

#### IV. 맺음말

근대 초기 일본이 펴낸 조선 지리지에 ‘울릉도(鬱陵島)’ 호칭은 자산도, 궁승, 다케시마, 죽산도, 무릉, 우릉, 우산국 등이 혼재되어 있었다. 1883년의 수로잡지에 울릉도 호칭으로 ‘마쓰시마[松島]’가 등장했지만 지리지에는 1893년에야 등장했고, 이후로는 다케시마와 마쓰시마, 다줄레 섬 등이 혼재되어 있었다. 1910년 이후에는 ‘울릉도(일명 마쓰시마)’, 혹은 ‘울릉도 일명 마쓰시마(Dagelet island)’로 표기되다가 점차 ‘鬱陵島[松島]’로 정착되어 갔다. 한자로는 ‘蔚陵島’가 함께 쓰였다.

독도 호칭은 1890년대 초까지도 ‘마쓰시마’로 호칭되는 경우가 많았다. ‘양코도’라는 호칭은 지리지에서는 수로지보다 훨씬 늦은 1903년에 처음 등장한 이래 영토 편입에서 ‘다케시마’로 명명된 뒤에도 잔존하여 1912년 지리지에서 여전히 ‘로크(rock) 리양코루도’가 등장한다. 이런 현상은 일본이 독도를 자국의 고유영토로 인식하지 않고 있었음을 보

39 김기혁, 2006, 「조선 일제 강점기 울릉도 지명의 생성과 변화」, 『문화역사지리』 제18권 1호, 44쪽.

40 현재 울릉도의 면적은 72,897,360㎡로 되어 있다(울릉군 홈페이지 참조).

41 0.001469㎡다. 현재 죽도 면적은 207,868㎡로 되어 있다.

42 현재는 해발고도 106미터로 되어 있다.

여준다. 수로지에는 1883년 독도 호칭으로 ‘리양코루토 열암’이 등장한 이래 ‘다케시마(Liancourt rocks)’로 바뀌었다가 ‘리양코루토 열암’과 혼용되는 과정을 거쳐 1907년 이후에는 ‘다케시마(Liancourt rocks)’로, 그리고 1933년에는 리양쿠르 락스가 빠진 ‘다케시마[竹

島]로 정착된다. 그리하여 울릉도 호칭은 ‘마쓰시마’로, 독도 호칭은 ‘다케시마’로 정착된다.

그 사이에 죽도, 즉 ‘죽서(竹嶼)’에 관한 정보도 변전하여 竹嶼(Boussole Rx), 竹嶼(보츠루), 竹嶼(Boussole rock), 죽도(竹嶼, チュクト-원문대로) 등으로 전회되다가 ‘竹嶼’로 정착되어갔다. 일본에서 독도 호칭의 혼란이 가중된 원인 중 하나로 ‘뗏섬’의 존재가 부각된 것을 들 수 있다. ‘뗏섬’ 표기는 ‘竹嶼 [Boussole rock], 竹島(조선인)’에서 ‘竹嶼’, ‘竹嶼’=チュクト(죽도-필자)로 변전함으로써 표기는 竹嶼, 발음은 ‘죽도’로 하는 불일치가 보인다. 이는 대나무 섬이라는 의미를 밝히기 위해 ‘다케시마’로 발음한 것이 독도 호칭 ‘다케시마’와 혼돈을 초래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발음은 ‘죽도’로 한 것이다. 일본 수로지 역시 독도를 ‘竹島[Liancourt rocks]’로 써놓고 ‘竹’자 위에 ‘다케(たけ)’라고 써주어 ‘다케시마’로 읽는다는 점을 밝혔다. 대부분의 수로지는 다케시마를 ‘랑코도’라고 부른다는 점도 병기해 줌으로써 지리지보다 정확성을 기하고 있다. 따라서 지리지에서 ‘죽도’ 발음이 죽서, 죽도, 다케시마 등으로 일정하지 않았던 까닭에 독도인 ‘다케시마[竹島]’와 혼돈을 일으켰고 이것이 지도의 표기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까닭에 지리지 내용으로 보면 ‘다케시마[竹島]’는 독도를 가리키는데, 지도에서 竹島는 죽도를 가리키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이렇듯 지리지의 ‘다케시마’, ‘마쓰시마’ 호칭이 지도상 표기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련의 추이를 추적하기 위해서는 지리지와 수로지, 지도상 표기를 총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지리지에서는 울릉도가 다케시마 혹은 마쓰시마로, 수로지에서는 ‘울릉도’ 일명 ‘마쓰시마, 다줄레 섬’으로, 지도에서는 이들 호칭 외에도 리앙쿠르 락, 호넷 락, 부술 락, 아르코노트 섬 등으로 표기되고 있어 혼란을 더해주기 때문이다. 수로지와 일본 지리지에 대한 고찰은 이 글의 주제가 아니므로 논지 전개에 필요한 한에서 개략적으로 정리해보면<sup>43</sup>, 1920년 『일본 수로지』에 ‘다케시마[竹島]’와 ‘리앙쿠르 락스’가 병기되어 있는 반면, ‘다케시마’ 단일 호칭은 역설적이게도 1933년 『조선연안 수로지』에만 보이고 있어 호칭 혼란은 조선 수로지

와 일본 수로지에 모두 보인다. 이는 수로지가 독도 영유권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일본이 독도를 고유영토로 인식하는 경향이 미약했음을 보여주는 일례다. 또한 1905년 이전의 일본 지리지에서는 일본 영역 밖의 두 섬을 설명하면서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독도)’를 늘 함께 언급하고 있어 조선의 속도(屬島)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조선 경위도에 관한 기술도 지리지마다 차이가 있음은 물론이고 같은 지리지 안에서도 본문의 영토 범위와 지도상 영토 범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이런 불일치는 조선 지리지나 일본 지리지, 수로지의 구분 없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일본이 독도에 대한 고유영토 인식이 빈곤했음을 보여주는 예들이다. 그러나 이런 호칭상의 불일치를 일본이 독도에 대한 고유 영토 인식이 미약했다는 논거로 삼는다면 우리나라도 이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우리나라에서 독도 호칭 역시 우산도, 삼봉도, 가지도, 석도, 독도 등으로 일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불일치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호칭의 변전과정을 보면 약간 차이가 있다. 일본의 경우 울릉도와 독도 명칭이 ‘다케시마’와 ‘마쓰시마’ 두 명칭 사이를 오가면서 혼용과 도치를 반복하다가 서양 호칭의 유입으로 인해 혼란이 가중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울릉도’ 호칭은 비교적 고정된 상태에서 “‘독도’ 호칭에 있어서만 변전의 과정을 보이는 차이가 있다. 게다가 ‘삼봉도’나 ‘가지도’, ‘석도’와 ‘독도’ 등의 호칭은 독도 형상이나 특성으로 인해 붙여진 이름인 데 비해 역사적으로 가장 오랫동안 언급된 호칭은 ‘우산도’였다. 이는 삼국시대 ‘우산국’에서 시작하여 1900년 이전까지 지속되었고, 일본이 펴낸 조선 지리지에도 ‘우산도’가 독도 호칭으로 간헐적으로 등장했다. 그러다

43 유미림·최은석, 2010, 앞의 글 참조.

44 울릉도의 이칭으로 무릉, 우릉 등이 있고 ‘울릉’ 표기에 있어서도 차이가 보이지만 발음상 유사하여 쉽게 울릉도와 연상되므로 우산도에서 독도로의 변화만큼 이질감은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고정적이라고 한 것이다.

가 1900년에 ‘석도’ 호칭이 등장했고 ‘석도’는 이내 ‘독도’로 바뀌었다. 대한제국까지 사용되던 ‘우산도’ 호칭이 어떻게 해서 20세기에 들어와 석도로 바뀌고 다시 독도로 전화되었는지 정확한 경위는 밝혀져

있지 않지만, 한국의 경우 호칭 ‘변천(transition)’ 과정이 있었다고 한다면, 일본의 경우는 호칭의 ‘도치(倒置, inversion)’ 과정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일본의 경우 울릉도 호칭으로 ‘다케시마’가, 독도 호칭으로 ‘마쓰시마’가 오랫동안 사용되다 서양의 호칭 ‘양코 도’가 유입된 뒤 혼돈을 반복하다 양코도 호칭은 사장되는 대신 울릉도 호칭이던 ‘다케시마’가 독도 호칭으로 뒤바뀌었다는 의미에서 ‘도치’라고 한 것이다. 호칭상의 ‘변천’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인식 변화를 반영하여 일어날 수 있는 자연스런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도치’는 어느 순간 갑작스레 뒤바뀌어버린 비역사적인 것이라는 의미에서 부자연스런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이 펴낸 조선 지리지와 수로지에 나온 울릉도와 독도 호칭이 오랫동안 전래되던 호칭을 버리고 일순 인위적으로 도치되어 버렸다는 점 역시 일본의 독도 고유영토론이 허구임을 입증해준다고 하겠다.

#### 국문 초록

일본에 의한 조선 지리지 편찬은 일본의 팽창정책과 식민지 개척의 일환으로 활발해졌는데 그 가운데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이 에도시대부터 관심을 기울여와 한때 조선과 분쟁을 겪기도 했던 지역이다. 그런데 이들 지역에 관한 일본의 기술이 조선 지리지와 일본 지리지, 수로지에 따라 각각 다르게 서술되어 있다.

지리지에 나타난 호칭을 보면, 1905년 편입 이전 독도에 대한 일본의 호칭은 주로 마쓰시마였고, 다케시마는 울릉도 호칭이었다. 독도를 다케시마로 호칭한 것은 1880년대에 보이며 그 후에도 다케시마와 마쓰시마는 독도 호칭으로 혼용되다가 1905년에 자국령으로 불법 편입하면서 독도를 ‘다케시마’로 명명한다고 했다. 그러나 일본이 독도를 ‘다케시마’로 명명하기 이전 가장 많이 사용한 호칭은 ‘우산도’와 ‘양코 도(島)’였다. 이는 일본 스스로 우산도를 독도 호칭으로 인정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한편 외래 호칭 ‘양코 도’는 1890년대

에서 1900년대 초에 걸쳐 구래의 호칭 ‘마쓰시마’보다 사용빈도가 높았다.

이로 인해 일본에서 울릉도와 독도 호칭은 구래의 호칭 외에 리앙쿠르 락스, 호넷 락스, 아르고노트, 다즐레 등의 유입으로 초래된 혼란이 한동안 지속되었다. 울릉도와 독도에 관한 설명에 언제나 ‘다케시마’와 ‘마쓰시마’ 호칭이 함께 언급되고 있고 기호로도 부속 도서임을 나타낸 지리지에 있어 주도와 속도 개념으로 인식되었음을 보여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뱃섬 ‘竹島’의 존재로 인해 지리지와 지도상의 표기에 혼란이 가중되었다.

1905년 일본이 독도를 불법 편입하기 이전 지리지에서는 울릉도 호칭으로 ‘마쓰시마’가, 독도 호칭으로는 ‘양코 도’가 정착해가고 있었다. 그럼에도 1905년 편입 당시 독도를 ‘양코 도’가 아닌 ‘다케시마’로 명명한 것은 역사성을 무시한 정치적 명명이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1905년 이후에도 ‘竹島(Liancourt rocks)’로 병기하는 한편, 1912년의 지리지에서도 여전히 ‘로크(Rock) 리앙코루도’가 등장하여 ‘조선의 섬 울릉도에 부속하는 섬’으로 인식하였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지도상의 표기는 지리지의 ‘다케시마’, ‘마쓰시마’ 호칭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를 엄밀하게 추적하기 위해서는 조선 지리지와 일본 지리지, 수로지, 지도 등을 함께 분석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호칭의 혼란은 조선 지리지와 일본 지리지, 수로지의 구분 없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어, 그 자체가 일본이 독도를 고유 영토로 인식하는 경향이 미약했음을 방증해준다고 하겠다.

#### 〈주제어〉

지리지, 울릉도, 독도, 다케시마, 마쓰시마, 양코 도, 죽서

## ABSTRACT

Japanese Perceptions of Ulleungdo and Dokdo Seen in Japanese Geographical Gazetteers of Joseon in the Modern Era: Focusing on the Confusion of Appellation

Yoo, Mirim  
Korea-Asia Cultural Institute

Many Japanese topographies of Joseon were published as one of the active policies for Japan's expansion and colonization. Among them, Ulleungdo and Dokdo are the region that Japan has paid attention to since the Edo Shogunate and disputed with Joseon once. However, the Japanese description about these regions are different according to Japanese topographies of Joseon, Japanese topographies of Japan and suiroshi(hydrography).

In view of the appellation in topographies, Japan's appellation of Dokdo before being incorporated into Japan in 1905 was mainly Matsushima and Takeshima as Takeshima in 1880s. Since then, the appellation of Dokdo had been used Takeshima mixed with Matsushima and became 'Takeshima' officially when Dokdo was incorporated into Japan's territory illegally in 1905. However, the appellation the most used before Dokdo became Takeshima officially was Usando and Liancourt rocks. It means that Japan admits of its own accord that Usando is the appellation of Dokdo. Meanwhile, Liancourt rocks, foreign name was used more than Matsushima, traditional name, from 1890s to 1900s. This leads to confusion that the appellation of Ulleungdo and Dokdo in Japan are used traditional name mixed with Liancourt rocks, Hornet rocks, Argonaut, Dagelet.

Its confusion had been lasted for a while. Descriptions of Ulleungdo and Dokdo are always mentioned together with Takeshima and Matsushima. In addition, due to some topographies that show the attached islands using symbols, Two islands are recognized as a main island and its attached island. On the other hand, the existence of the attached island, Jukseo(竹嶼) increased the confusion of marking them on topographies and maps.

The appellation of Matsushima as Ulleungdo and Liancourt rocks as Dokdo were taking roots before Japan's illegal incorporation in 1905. Nevertheless, It shows that Japan's appellation of Dokdo as Takeshima, not Liancourt rocks, was political appellation disregarding historicity. The appellation of Liancourt rocks was also described after 1905 and was shown on the topography in 1912. It means that Japan recognized Dokdo is the attached island to

Ulleungdo, Joseon's island.

Since the marks on maps do not occasionally coincide with the appellation of Takeshima and Matsushima on the topographies, the analyses of Japanese topographies of Joseon together with Japanese topographies of Japan, hydrographies, maps need to trace the difference and changes exactly. The confusion of appellation equally shown on Japanese topographies of Joseon, Japanese topographies of Japan and hydrographies definitely reveals that Japan does not strongly recognize Dokdo as its indigenous territory.

〈Keyword〉

Topography, Matsushima, Takeshima, Liancourt rocks, Jukseo

## 참고문헌

지리지는 본문에 나온 것으로 대체하고 생략함.

『各觀察道案』

『水路雜誌』

김기혁, 2006, 「일제 강점기 울릉도 지명의 생성과 변화」, 『문화역사지리』 제18권 1호,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남영우, 1993, 「日本 明治期の 韓國地理 關聯文獻」, 『지리학』 28권 1호, 대한지리학회.

신명호, 2010, 「조선시대 지리지 항목과 부산이미지」, 『동북아시아문화연구』 25집, 동북아시아문화학회.

유미림·최은석, 2010, 「근대 일본의 지리지에 나타난 울릉도 독도 인식」,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현대송, 2010, 「일본 고지도로 본 일본의 독도 인식」, 『지해해양학술상 논문수상집』,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울도군 절목’의 발굴과 그 의미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선포에 따른 울릉도와 독도에 관한  
행정관할 증거

김영수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최근 1902년 4월 대한제국 내부가 울도 군수에게 하달한 ‘울도군 절목’이 발굴되었다. ‘울도군 절목’에는 울도군의 치안상황 및 재정, 조세, 인구 현황 등이 자세히 실려 있다.

‘울도군 절목’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일본인이 몰래 목재를 베어 가는 일을 금지하고, 가옥과 전답의 외국인 매매를 금지했다. 이것을 위반한 사람은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었다. 둘째, 각 도 상선이 울도군에 정박한 뒤 고기를 잡으면 세금을 사람마다 수입의 10분의 1, 화물은 물건값의 100분의 1을 거둔다. 셋째, 관청의 경우 일곱 칸이 되면 그대로 보수해 쓰고, 4~5칸 정도면 약간만 증축하되 민폐를 끼치지 말도록 규정되었다. 넷째, 군수 급료는 봄에 보리 60석, 가을에 콩 40석 등 한 해에 100섬을 지급 받도록 규정되었다.

대한제국 내부의 ‘울도군 절목’ 작성 경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한제국 정부는 1900년 6월 내부시찰관(內部視察官) 울도시찰위원(鬱島視察委員) 우용정(禹用鼎)을 울릉도에 파견하여 울릉도와 독도의 실효적 점유를 강화

했다. 우용정은 울릉도를 방문하여 실효적 지배의 구체적인 활동을 다음과 같이 수행했다. 첫째, 우용정은 1900년 6월 1일 울릉도 주민에게 대한제국의 내부대신 훈령에 따라 울릉도에 파견되었다고 고시(告示)했다. 둘째, 우용정은 1900년 6월 3일 울릉도 관민에게 ‘정부의 금령(禁令)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고시를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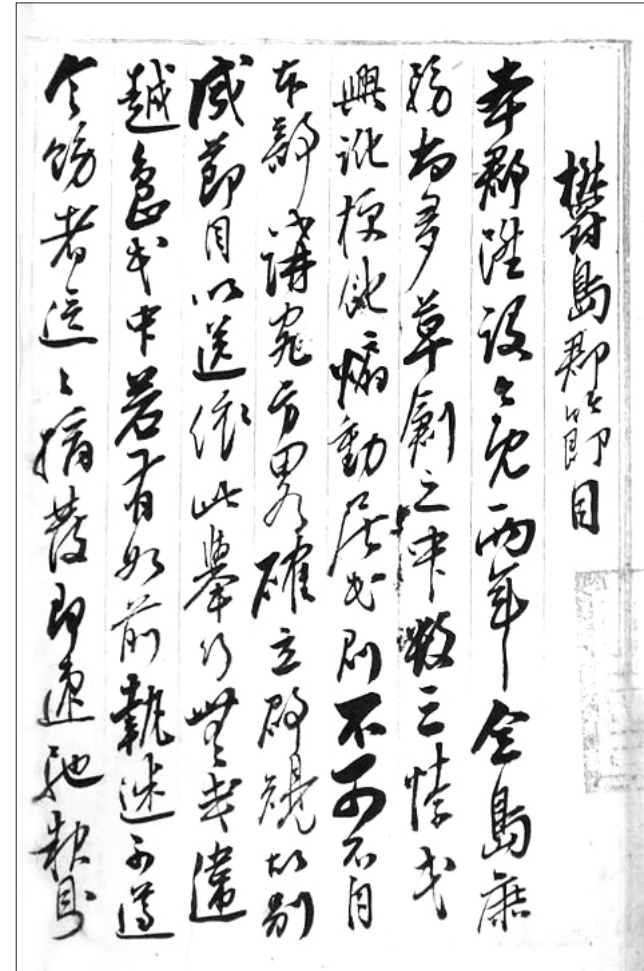
그 후 우용정과 함께 울릉도를 시찰한 일본 정부는 일본인의 울릉도 철수라는 후속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1900년 9월 대한제국 외부대신 박제순과 주한 일본공사 하야시(林權助)는 울릉도 관련 문서를 상호 전달했다. 그중 주한 일본공사 하야시는 “일본 정부가 편선(便船)을 보내주면 주한 일본영사에게 지시하여 소환장을 발부하고 관련지를 일본 법정에서 심문한 후 조치를 취할 것”이라 기록했다. 또한 하야시는 “울릉도에 일본인이 거주하는 것이 조일조약 규정에 어긋난다.”고 스스로 인정했다. 즉 일본은 독도 포함 울릉도에서 일본인 거주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그런데 우용정은 1900년 자신의 보고서인 「울도기(鬱島記)」에서 대한제국 선포 이후 고종의 황제 등극을 표현했다. 이것은 서구 열강과 동등한 근대국가를 지향하려는 모습 중 자국의 영토와 영해에 대한 행정관할 의식을 높이려는 고종과 대한제국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이러한 배경으로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은 ‘울릉도를 울도(鬱島)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할 것’을 공포했다. 대한제국 칙령 41호 2조에서 울도의 관할 범위가 ‘울릉전도와 죽도(竹島), 석도(石島)’로 규정되었다.

그 후 1901년 9월 25일 의정부찬정 내부대신 이건하(李乾夏)는 외부대신에게 울릉도 상황을 다음과 같이 알려주었다. 첫째, 1901년 일본인 1천 여 명이 들어와 울릉도 산을 남·북으로 나누고 700호가 거주했다. 둘째, 내부대신 이건하는 울릉도에 500호, 수천 명의 인구가 흩어져 버릴지도 모르니

기한을 정해놓고 울릉도 거주 일본인을 철수시켜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견하는 외부대신 박제순이 주한 일본공사에 울릉도 거주 일본인 철수 기한을 정한 공문을 발송할 것을 요청했다. 이런 배경으로 1902년 4월 내부가 울도군수에게 ‘울도군 절목’을 하달한 것이다.

이것은 울릉도와 독도에 관한 대한제국의 영토의식과 주권행사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 근거하여 반영되었다는 사실이다. 그 후 대한제국은 1901년 9월 내부대신 이견하의 울릉도 관할 문서, 1902년 4월 내부의 ‘울도군 절목’ 문서 등을 통해서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 즉 행정 관할을 구체적으로 실행했다.



〈그림 1〉 울도군 절목

# 안용복 사건, 과거시험에 출제되다

## 사료 발견과 그 의미

유미립 한아문화연구소

### I. 사료발굴 경위와 저자 소개

1693년에 일어난 이른바 ‘안용복 사건(울릉도 쟁계)’을 숙종이 과거시험에 출제하여 대책(對策)을 구하게 했음을 밝혀주는 문서가 처음 발견되었다.

경상북도 의성지역의 선비였던 신덕함(申德函, 1656~1730)의 문집 안에 실려 있는 대책이 그것이다. 이는 숙종 연간 최대 외교 현안이었던 안용복 사건, 즉 ‘울릉도 쟁계’ 문제를 가지고 출제된 과거시험 문제와 그에 대한 답안이다. 시험문제 1장 반, 답안지 12장 반 모두 14장(A4사이즈)으로 된 이 사료는 ‘울릉도 쟁계’로 인한 대일(對日) 대처방안을 모색하고자 숙종이 조정 대신들의 의견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응시자들의 의견을

1 신덕함이 지은 만사가 『항재집(恒齋集)』(嵩逸, 1631~1698)에 실려 있는 것으로 보아 신덕함은 이송일, 이취일, 이현일 집안과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불망기』(필사본, 연대미상) 안에 「아주申氏世系」, 박주, 「17세기 후반 경상도 의성현의 우씨 열녀의 삶과 생활」, 『史學研究』 제 83호(2006. 9) 163쪽에서 재인용.

3 이 저술에는 自序와跋, 기타 君臣內篇, 君臣外篇, 父子內篇, 父子外篇, 夫婦內篇, 夫婦外篇, 兄弟內篇, 兄弟外篇, 師友內篇, 師友外篇, 變禮 등이 실려 있다.

4 전책: 임금이 직접 책문(策問)하고 자대부가 대책(對策)하는 형식의 과거 형태를 말함.

구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즉 전형적인 ‘책문(策問)’과 ‘대책(對策)’ 형식으로 되어 있어 이 사료가 과거시험에 출제된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

이 문서는 2011년 8월 중순 경상북도 대구지방변호사회 독도분과위원회 활동의 일환으로 방문일 변호사가 의성의 신덕함 후손으로부터 입수하여 필자에게 문헌 검토를 의뢰함으로써 그 내용이 밝혀졌다.

이 글을 지은 신덕함<sup>1</sup>에 대하여 살펴보면, 자는 중유(仲游), 호는 농음(壘音), 아버지 신휴석과 어머니 풍산 홍씨 사이의 장남으로 경상도 의성현 수정리에서 태어나 1730년 75세 나이로 졸했으며, 본관은 아주(鵝洲: 거제현)다.<sup>2</sup> 28세인 1684년에 생원, 진사시 양시에 합격했으나 문과에 실패하여 관직에는 나아가지 못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의 가계(家系) 인물 가운데 효자가 많아 읍지(경상도 읍지)에 많이 등장했으며, 의성 지방에서는 명적으로 알려졌다고 전해진다. 저술로는 『우열녀전(禹烈女傳)』이 있으며, 『처변권형(處變權衡)』(1695, 필사본, 4권 2책)<sup>3</sup>이 성균관 존경각에 소장되어 있다.

### II. 문서의 형식과 시대적 배경

이 문서는 전책(殿策)<sup>4</sup> 형식을 취하고 있어, ‘임금은 이렇게 말하노라 [王若曰]’로 시작하고 ‘신은 답합니다[臣對]’로 끝을 맺고 있다.

책문은 다음과 같다.

임금은 이렇게 말하노라.

울릉도가 멀리 동해(東海)에 있는데 『여지승람(輿地勝覽)』에는 강원도에 속해 있다. 우리나라 땅이라고는 하나 수로가 멀고 험해 사람들이 왕래하지 않아[人煙不通], 조종조에 섬사람들을 데리고 돌아와[刷還洲民]



그곳을 비게 하였다[濫虛其地]. 요사이 일본인이 대나무와 전복, 물고기 등의 이익을 탐해 죽도(竹島)라 가칭하고 그 땅에서 우리 백성들이 경계를 넘어가 어채하는 것을 금해줄 것을 청했다. 근시(近侍)를 자주 파견하여 죽울(竹鬱)<sup>5</sup>의 허실과 경계에 구분 있음을 효유(曉諭)했으나 끝내 들을 생각이 없어 자못 불화(生梗)의 단서가 있다.

내가 이를 염려하여 널리 조정의 의견을 물으니 혹자는 말하기를 “조종의 강토는 남에게 줄 수 없는 것인데,<sup>6</sup> 한번 그들의 소유가 되면 동쪽 경계를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바람을 타고 출몰하면 실정을 헤아리기가 어려우니 변수(邊帥)를 가려 보내 우선 점거해 지키는[據守] 것이 낫습니다.”라고 하였고, 혹자는 말하기를, “바다 밖 조그만 섬은 본래 빈 땅인데 백 년 간의 인호(隣好)<sup>7</sup>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이로 인해 혼란을 만드는 것은 좋은 계책이 아니니, 그들의 왕래를 내버려두고 변방 방비[邊備]를 수칙(修勅)하는 것이 낫습니다.”라고 하였다.

이 두 가지 설 중 어느 쪽이 나은가? 아니면 이 외에 따로 만전(萬全)의 양책(良策)이 있는가? 자대부(子大夫)들은 독서하고 담도(談道)하는 여가에 반드시 ‘변방을 안정시키고 나라를 평안히 할 방책[安邊靖國之獻]’을 강구하여 각자 자세히 대책에 나타내도록 하라. 등(聽)<sup>8</sup>

신덕함의 대책은 아래와 같은 문장으로 시작된다.

신은 답합니다.

신은 듣건대, 보국(保國)의 도는 심세(審勢)에 있고, 집사(集事)의 기틀은 득인(得人)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형세를 잘 살핀다면 보존하지 못할 나라가 없고, 책임자를 얻는다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

책문에 대한 신덕함의 대책은 서두에 ‘심세득인(審勢得人)’으로 시작하면서 이런 문제가 과거시험에 나오게 된 배경을 언급하고 있다. 즉 왕이 이 문제로 깊이 근심하고 필사(拂士)들에게 널리 자문을 구했으나 아직도

빠뜨리거나 실의(失宜)한 점이 있을까 염려하여 이 문제를 시험에까지 내게 되었다는 것이다. “(왕이) 친히 대정(大庭)에 임하여 많은 선비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내어 만전의 계책을 듣고 싶어했다.”는 표현은 왕이 직접 전시(殿試)에 참여한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 전시란 임금이 친림(親臨)하여 행하던 과거의 마지막 시험으로, 여기에서 그 결과에 따라 등급을 정했다. 보통 식년시로 3년에 한 번 치르게 되어 있으나 증광전시와 같이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는 특별히 시행되기도 했다.

신덕함의 문서에는 언제 출제된 것인지가 밝혀져 있지 않다. 그러나 숙종 연간 치러진 전시 기록을 보면 대략 추정할 수 있다. 실록에 ‘울릉도 쟁계’를 전후하여 치러진 전시에 관해서는 모두 3건이 나온다. 숙

5 죽도와 울릉도.

6 『숙종실록』 1694년 2월 23일자 기사에 남구만의 말로 나온다.

7 『숙종실록』 1695년 6월 20일자 기사에 의하면, 남구만이 일본의 개작 서계를 거절하자 차왜 다치바나가 한 말로 나온다.

8 ‘책문’ 뒤에 ‘등(聽)’이라고 적혀 있는 것은 신덕함이 전시에 응시했을 때 나온 문제를 베낀 것임을 나타내나,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이 가져온 기출문제를 베낀 것 혹은 예상 문제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당시 실제로 전시가 있었고 시험문제가 매우 구체적인 사안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아 기출문제로 보아야 할 것이다.

9 『숙종실록』 20년(1694) 2월 23일자 기사에 남구만이 한 말로 기록되어 있다.

10 『숙종실록』 21년(1695) 6월 20일자 기사에 일본이 언급한 것으로 나온다.

11 『숙종실록』과 『승정원일기』에 ‘쓰시마가 울릉도를 죽도(竹島)라 거짓 칭하고, 예도의 명이라고 핑계대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울도에 왕래하는 것을 금지하게 하려는’ 내 용이 실려 있다.

종 21년(1695) 9월 19일 별시(別試) 전시로 11인을 뽑았고, 숙종 22년(1696) 11월 21일 식년 전시에서 35인을 뽑은 적이 있으며, 숙종 25년 즉 1699년 4월 22일 문과 식년 전시에서 40인을 뽑은 사실이 보인다. 그렇다면 이 책문이 나온 시기는 1695년, 1696년, 1699년 중 하나일 것이다. 그런데 책문에서 조종의 강토를 남에게 줄 수 없다고 한 말이 인용된 것,<sup>9</sup> 백 년 간의 인호(隣好)를 잃어서는 안 된다고 한 사실,<sup>10</sup> 그리고 조정에서 이 문제로 숙종과 대신 간의 회동이 잦았던 시기가 1695년 10월경인 점으로 미루어보건대, 1695년 9월의 전시일 가능성은 적다. 또한 책문에 임금이 근시(近侍)를 자주 파견했다는 점이 언급되어 있고 사료의 1696년 10월 13일자 기사<sup>11</sup>가 언급된 점으로 볼 때

1696년과 1699년 전시 중에서도 1696년 전시일 가능성이 크지만 확실한 것은 알기 어렵다.<sup>12</sup>

그럼 어떻게 해서 이런 문제가 과거시험에까지 등장하게 되었을까? 이런 책문이 나오기까지의 시대적 배경을 알아보자. 1693년 봄에 울산과 동래 어부 약 40여 명이 울릉도에서 어로작업을 하다 일본 어부와 만나 충돌이 빚어졌다. 이때 일본 어부들은 안용복과 박어둔 두 사람을 일본으로 납치해 갔다가 조사 후 11월 초에 조선으로 돌려보내면서 조선 어민의 울릉도 출어를 금지하는 서계를 함께 보냈다. 이로부터 양국 간에는 울릉도와 독도를 둘러싸고 영유권 분쟁이 일어났다.

1693년 11월 일본이 안용복을 돌려보내면서 조선인의 울릉도 출어 금지를 요청한 서계를 보내음으로써 시작된 영유권 갈등은 1694년 1월 15일 권해의 회답서계 사본이 다치바나 마사시게[橋 眞重]에게 전해지면서 본격화됐다. 그러나 이를 가지고 쓰시마 번으로 돌아갔던 정관 다치바나가 1694년 중반에 다시 오면서 이 문제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1694년 윤 5월 왜관에 도착한 다치바나는 앞서 조선 정부의 답서에 등장한 ‘귀계(貴界) 죽도(竹島), 폐경(弊境) 울릉도(鬱陵島)’ 부분의 삭제를 요청해왔고, 조선은 집권세력이 바뀌면서 일본 요구에 응하지 않고 대치하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1694년 8월에 동래로 내려간 접위관 유집일은 ‘일본인 왕래를 금지한다.’고 고쳐 쓴 이른바 ‘개작 서계’를 지참하고 내려갔다. 이때 동래에서 유집일은 안용복을 심문하여 안용복이 나가사키에서 침책당한 사실과 쓰시마의 농간을 폭로한 정상을 알아냈고, 9월에는 조정에서 무신 장한상을 파견하여 울릉도를 조사시키기도 했다.

<sup>12</sup> 다만 1699년 4월의 전시일 가능성이 낮은 이유는 이때는 일본으로부터 도해금지령이 조선에 공식적으로 전해진 뒤이고, 『속중실록』 1697년 4월 13일자 기사에도 유상운이 “울릉도에 대한 일은 이미 명백하게 한 곳으로 귀착되었다.”라고 하고 있어 더 이상 이 문제를 전시에 낼 필요가 없어진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sup>13</sup> 『속중실록』 21년(1695) 6월 20일.

유집일로부터 개작 서계를 전달받은 다치바나 마사시게는 1693년의 서계를 수정해줄 것을 요구하며 1년 넘게 왜관에 머물러 있다가 쓰시마 번주의 병사에 따른 귀국조치로 인해 왜관을 떠나게 되었다. 1695년 6월 10일 다치바나는 왜관을 떠나면서 4개조의 힐문(詰問)을 동래부사 앞으로 보냈다. 이때 그는 답서를 두고 돌아가면서 “양국 화호(和好)는 답서를 화관(和館)에 남겨 두는 데 있었습니다. 답서가 한 번 바다를 건너가게 되면 두 나라는 백 년 우호를 상실할 듯합니다.”<sup>13</sup>라고 하였다. 이를 두고 조선 조정에서는 제2의 임진왜란이 다시 일어날까 염려할 정도로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고 한다. 안용복 일행이 비변사 취조를 받게 되는 시기는 1695년 9월이고, 쓰시마 번주가 에도 노중에게 안용복 사건을 보고하는 시기는 1695년 10월 경이다. 그리고 에도 막부가 돗토리번으로 하여금 울릉도와 독도에 관한 조사를 지시하는 시기는 1695년 12월 중순이다.

속중실록과 승정원일기, 비변사등록에는 숙종이 ‘울릉도 쟁계’로 인해 냉각된 대일 관계와 안용복의 처리를 둘러싸고 조정 대신들과 논의한 사실들이 1694년 2월부터 1696년 10월에 걸쳐 여러 건 실려 있다. 조정에서 안용복 사건에 대한 논의가 가장 활발하던 시기는 1695년 가을부터였고 일본의 분위기가 조선에 전해진 시기도 1695년 가을 경이다. 책문과 대책 안에 안용복에 관한 언급은 없지만, 숙종이 이 사건에 대해 숙지하고 있었음은 책문의 행간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울릉도 쟁계’ 자체를 과거시험 문제로 출제한 것은 안용복 사건에 대한 이해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III. 질문과 답안 내용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보면 당시 조선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 우선, 시험문제(策問)를 통해 숙종의 ‘울릉도’ 인식을 살펴보자.

王若曰鬱陵島在東海中與地勝覽屬之江  
 原道距云我國地而水路險遠人烟不通 祖宗  
 朝刷還遼民遂虛其地矣近來倭人貪其餘蕩  
 餓魚之利假名竹鬱指為厥土請禁我民越境  
 漁採屢違近侍狀論竹鬱之虛宗境界之有別  
 而終無聽順之意頗有生梗之端予用先慮廣  
 詢朝議則或以為 祖宗疆土不可與人而一為倭  
 有則東界無蔽候風出沒情偽難測莫如擇遠  
 邊帥先自振守或以為海外小島自是空地而  
 百年隣好不可相失因此構費非計之得莫

〈그림 1〉 시험에 출제된 문제

숙종은 동해상 울릉도를 강원도 소속의 분명한 우리 땅으로 보고 있다. 다만 수로가 험하고 먼 까닭에 사람들을 데리고 돌아오는 이른바 ‘쇄환정책[刷還洲民]’을 취한 결과 섬이 비게 된 것[遂虛其地]일 뿐 우리 땅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명기하고 있다. 일본은 그 사이를 틈타 울릉도의 자원을 탐내 울릉도에 죽도라는 다른 이름을 붙여 우리 백성의 어채를 금해줄 것을 청했다. 이에 숙종은 죽울(竹鬱)의 허실과 경계에 구분 있음을 일본인에게 자주 효유했으나 그들은 듣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를 보면 당시 숙종이 울릉도를 죽도로 가칭하여 취하려던 쓰시마의 농간을 간파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사실들이 『숙종실록』과 『승정원일기』에 남아 있어 책문과 부합된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대한 조정의 의견이 크게 두 가지로 갈리고 있었다.

如任其往未修初邊備而已惟此二說何者為  
 得而抑此外別有萬全之良策歟予大夫讀  
 書誅道之餘必謀安邊靖國之敵其名悉著  
 于篇  
 臣對臣聞保國之道在於宿勢非李之概係於  
 得人能審其勢則國無不保苟得其人則李高  
 不集是以漢元之奔珠在臣於慶王損威而中  
 國得以無虞者以其當勢而處之也齊威之用  
 田盼不過守邊一吏而趙人不敵東魚者以其得  
 人而任之也此豈非用李之明驗而後王之可監

〈그림 2〉 시험문제에 대한 대책

하나는 변수(邊帥)를 보내 우리 쪽에서 먼저 울릉도를 점거하여 지키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일본과의 우호가 더 중요하니 일본인의 울릉도 왕래를 허용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변방의 방비를 잘하도록 신칙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숙종은 두 가지 방안 중 어느 것이 나은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과거에 출제하게 된 것이다. 이에 숙종은 자대부들에게 ‘변방을 안정시키고 나라를 평안히 할 방책[安邊靖國之敵]’을 자세히 쓰도록 했다.

답안지에서 신덕함은 책문에 제시된 두 가지 의견을 모두 비판하고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신덕함이 제시한 방법은 이른바 ‘심세득인’의 설(說)이다. 그는 자신의 설을 개진하기에 앞서 현 상황을 진단하고 있는데 그는 조종조가 울릉도 쇄환정책을 편 것은 형세상 어쩔 수 없어서일 뿐 우리 땅을 포기해서가 아니라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 우리 백성들의 왕래가 끊어

저도 울릉도에는 여전히 초목과 물고기류가 풍부하여 일본이 물산과 땅을 넘보고 있다는 것이다. 신덕함은 일본이 울릉도를 죽도라 가칭하며 조선인의 어채 금지를 요청하여 우리를 시험해보려는 계책은 그 마음과 말이 매우 교활하고 방자하다고 보았다. 이런 일본인에게 덕으로 대하고 사신을 보내 허실을 분변해도 결정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탐욕 또한 끝이 없어 두 나라 간 갈등이 생기리라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진대 조정의 대신들이 제시한 두 가지 방법은 충분한 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신덕함의 주장이다.

신덕함에 의하면 첫 번째 방법 즉 ‘변수를 보내 접거하여 지키자’는 방법은 울릉도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쓸모없는 섬인데다 우리 군사들이 수로에 익숙하지 않아 가다가 표류하거나 역병에 걸려 죽을 가능성이 크므로 ‘수경지정(守經持正)’한 의논이긴 하지만 실패하기 쉬운 계책이라는 것이다. 두 번째 방법 즉 ‘그들의 왕래를 허용하고 우리가 변방 방비를 잘하자는’ 방법은 일본처럼 국가 간 성약(成約)을 잘 지키지 않고 끝없이 남의 땅을 넘보는 탐욕스런 상대에게는 통하지 않을 것이므로 ‘심세권의(審勢權宜)’한 의논이긴 하지만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이 방법을 쓴다면 일본은 기탄하는 바가 없어서 작게는 공갈하여 요구하는 폐단[恐喝徵索之弊]이 있을 것이고, 크게는 기회를 엿보아 삼켜버릴 근심[覬覦吞噬之患]이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신덕함의 대일관은 기본적으로 교활한 일본에 대한 불신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대일관 위에 펼친 그의 방법은 조정 신하들이 제시한 두 가지 방법이 모두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고 보았다. 그가 보기에 일본의 울릉도 점거 책략에 맞설 수 있는 대책은 ‘형세를 잘 살피고[審勢] 적임자를 얻어 처리하는[得人] 방법’만이 근본적인 것이었다. 그리하여 이 ‘심세’ ‘득인’의 요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부연하고 있다. 신덕함에 의하면, ‘형세를 잘 살피는 방법’에는 세 가지 요체가 있다. 바로 지세(地勢), 시세(時勢), 병세(兵勢)를 살피는 것이다. 바닷길이 험한 지역에 보낼 때는 뱃길과 노 젓는 일에

익숙한 사람을 보내는 것이 지세를 잘 살핀 것이며, 기근이 거듭되어 백성이 죽어갈 때는 땅을 개척하는 데 백성을 부리지 않는 것이 시세를 잘 살핀 것이며, 병력이 약할 때는 군사에 익숙하지 않은 백성을 오랑캐에게 내몰지 않는 것이 병세를 잘 살핀 것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적임자를 얻는 방법’에는 세 가지 요체가 있는데, 바로 상신(相臣), 수신(帥臣), 사신(使臣)을 얻는 것이다. 오랑캐가 조정을 가벼이 여기지 않도록 재상의 임무를 제대로 하는 것이 올바른 상신이며, 국경의 범위가 줄지 않도록 장수가 위엄으로 제대로 대적하는 것이 올바른 수신(帥臣)이며, 일본의 요구를 잘 물리치는 것이 사신을 제대로 얻은 것이라는 것이다.

결국 그가 내린 ‘안변의 대책’은 ‘심세득인’보다 시급한 것이 없다는 것이다. 이 여섯 가지 조목만 잘 실행된다면 일본이 울릉도를 노릴 이치가 없는, 이른바 ‘만전의 양책’인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어디까지나 ‘외양(外攘)’을 위한 대책이므로 이에 앞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내수(內修)’라고 보았다. 신덕함이 보기에 “안을 닦는 것은 본(本)이고 밖을 물리치는 것은 말(末)인지라”, “내수를 다한 뒤에 외우(外憂)는 자연 없어져” 버리는 것이니 임금은 내수에 힘써야 한다고 결론짓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의거하는 한, 울릉도를 가지고 일본과 다투는 문제는 “탄환만 한 조그만 땅을 가지고 바닷속에서 다투고 있는” 형상에 불과하다. “땅을 넓히려 힘쓰는 자는 황폐[荒]해지고, 덕을 넓히려 애쓰는 자는 강(疆)해진다고 했으니, 아! 전하께서는 힘쓰십시오.”라는 진언으로 마무리된 그의 답안지는 이런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 IV. 사료의 역사적 의미

신덕함은 과거에 급제하지는 못했다. 동시대 다른 응시자 혹은 급제자의 답안지가 현재 알려진 것이 없으므로 신덕함의 논지를 다른 것과 비교해보

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신덕함의 답안지로 우리가 이 사료의 가치를 생각해본다면, 두 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다. 하나는 '울릉도 쟁계'가 과거시험에 출제된 사실이 지니는 역사적 의미고, 다른 하나는 답안지 내용이 지니는 의미다.

우선 첫 번째 의미와 관련해서는 이 책문의 존재가 당시 '울릉도 쟁계'가 얼마나 중대한 국가적 사안이었는지를 단적으로 말해주는 점이다. 보통 왕이 내는 책문은 국가경영의 방도로써 개혁의 방책 내지 현안을 묻는 경우가 많아 이 범주에는 정치와 경제, 외교, 국방, 교육 등의 모든 분야가 망라되었고 응시자의 대책 역시 이에 대응하는 답변이므로 임금에게 가장 절실한 답변을 제공하되 유학적 사고에 따른 원칙론을 개진한 것이 많았다. 그런 가운데 숙종 연간의 전시에 '울릉도 쟁계'가 시제로 나왔다는 사실은 당시 숙종을 비롯한 조정 대신들이 일본의 침탈 의도를 간파했음은 물론이고 울릉도 침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 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두 번째 의미와 관련해서는 신덕함이 현안의 핵심을 알고 있었던 데 비해 답안은 그다지 현실적인 방책이 되지 못했고, 결국 이런 원칙론은 적극적인 울릉도 개척론으로 이어지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또한 일본은 울릉도 쟁계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케시마(울릉도)뿐만 아니라 마쓰시마, 즉 독도를 한 세트로 다루어 두 섬 모두 일본 이나바국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그 결과 '다케시마 도해금지령'을 냈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동해상의 울릉도 범주 안에 '독도'를 포함하고 있었으면서도 그 존재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어 이 점이 아쉽다고 하겠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 사료가 지니는 가치는 '울릉도 쟁계' 관련 기록이 『조선왕조실록』 등을 비롯한 관찬 사서에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 책문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지게 됨으로써 당시 이 사건이 얼마나 국가적인 중대사였는가를 상기시켜주는 데 일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울릉도 쟁계' 당시 관찬 사서 외에 개인 문집에 남아 있는 글로는 1977년에 발굴된 장한상(1656~1724)의 「울릉도 사적」과 2001년에 알려진 박세당(1629~1703)의 미간행 문집 안의 「울릉도」가 알려져 있다. 박세당은 안용복 사건에 직접 관여했던 남구만이 그의 처남인 점에서, 그리고 장한상은 안용복 사건이 계기가 되어 1694년 가을에 어명을 받고 울릉도를 수도한 자라는 점에서 둘 다 이 사건과 직·간접적인 연관성을 지닌다. 장한상의 글은 경상북도 의성에서 발견되었는데 이번에 발견된 책문 역시 의성지역에서 발견되었으므로 앞으로 이 지역에서 더 많은 사료가 발굴되기를 기대해본다.

# 동해 표기 문제의 현황과 전망

장동희 대사 · 주성재 교수

사회 : 심정보 동북아역사재단  
정리 : 신승혜 동북아역사재단

2012년 4월 국제수로기구(IHO) 총회를 앞두고 동해 표기 문제와 관련하여 학계와 언론, 국민들의 관심이 크다. 이에 심정보 연구위원의 사회로 동북아역사재단 장동희 국제표기명칭대사와 주성재 경희대 교수의 대담을 통해 동해 표기 문제의 현황과 과제, 앞으로의 전망을 들어본다.



왼쪽부터 심정보 박사, 장동희 대사, 주성재 교수  
2011년 11월 21일, 국제표기명칭대사 집무실

**심정보 박사** 한국 정부는 1992년 제6차 유엔지명표준화회의(UNCSSGN)에서 일본해 단독 표기의 부당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이래 동해 표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와 관련해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

**장동희 대사** 1992년에 동해 표기 문제를 국제사회에 처음 제기한 이후 정부, 학계, 관련 민간단체가 많은 노력을 해왔다. 그 결과 2000년에 2.8%에 불과하였던 세계지도상 동해(East Sea)/일본해(Sea of Japan) 병기 비율이 2009년에는 28%를 넘었다. 최근의 비공식

조사에 의하면 30%가 넘는다고 한다. 이처럼 동해 병기 비율이 증가한 것이 일단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주성재 교수** 또한 1992년 이래 20년 가까이 이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국제사회가 우리와 문제의식을 공유하게 되었다는 것 자체도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한국 사람들이 쓰는 '동해'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표기가 문제라는 인식이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유엔에 20년간 참여하면서 활동영역을 조금씩 확대해 나가 동해 표기와는 또 다른 차원에서 유엔지명회의 운영에도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한국이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유엔의 지명 관련 참여국으로 알려지게 된 것도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심정보 박사** 이러한 성과가 있었음에도 언론에서는 걱정하는 분위기가 있다. 한국 정부의 이러한 동해 표기 확산을 위한 노력과 전개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장동희 대사** 사실 동해 표기 문제는 일본과의 문제다. 일본 측이 우리 입장을 이해하고 일본해 표기가 잘못된 역사의 유물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데, 일본 측에서 완고한 입장을 고수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완고한 일본 측과 협상을 진행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그런데 국민들은 조급함에 이른 시일 내에 해결해달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부분을 충족시키기가 어렵다. 이 사안이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라는 걸 인식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주는 자세를 보여주었으면 한다. 또한 일각에서는 동해만 단독 표기해야 한다는 주장, 한국해로 표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 나아가서 제3의 명칭을 써야 한다는 등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가 대외적으로 교섭할 때는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국민적 성원이 필요하다.

**주성재 교수** 전적으로 동감한다. 동해 표기 문제는 일본이라는 상대방이 있

기 때문에 상대방이 거부하며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면 이 문제는 고착상태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 고착상태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큰 과제인데, 이때 국제사회의 피로현상을 극복하는 게 중요하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다. 왜 자꾸 이 문제를 제기하느냐?”라는 피로현상을 보이기 전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신선한 전략을 도출해 내야 한다. 동해 문제 해결이 국제사회 평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단순히 한일 간의 문제일 뿐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라는 점을 보다 부각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외적으로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점에도 당연히 동의한다. 다양한 의견들을 어떻게 포용하느냐, 단계별로 어떻게 참을성 있게 접근하느냐가 관건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이해와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심정보 박사** 언급된 것처럼 최근 동해 표기 문제는 국민적 사안이 되었고, 이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면서 언론 등을 통해 정치인이나 국민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동해와 일본해 병기가 아닌 동해 단독 표기를 해야 한다면, 동해가 아닌 한국해가 더 타당하다는 주장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장동희 대사** 동해 표기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사실 그 의견들도 나름의 근거를 갖고 있다. 우리가 이천 년 이상 ‘동해’라고 불렀으므로 동해 단독 표기가 국민정서상으로는 더 부합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는 모든 사안에 상대방이 있다. 주장을 하려면 논리적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경위야 어떻게 되었든 지난 백여 년 동안 국제사회에서는 ‘일본해’를 써온 것이 현실이다. 안타깝지만 우리가 하루아침에 전부 동해로 바꾸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동해 병기를 주장하는 것이다. 병기 주장에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 유엔과 국제수로기구에서 채택한 결의를 보면 2개 국가 이상이 공유하는



지형물에 대해 각 국가가 다른 이름을 사용할 경우 공통된 이름을 갖도록 노력하고,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는 함께 적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동해보다는 ‘한국해’라든지 ‘조선해’로 표기할 고지도를 다수 찾아볼 수 있는데, 이런 서양 고지도를 근거로 들어 동해(East Sea)보다 한국해(Sea of Korea)로 표

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Sea of Korea’로 표기된 고지도는 거의 유럽에서 제작한 지도이다. 서양의 탐험가, 지도제작자들이 갖다 붙인 이름이 ‘Sea of Korea’인 것이다. 지도를 제작하는 데는 외부인이 갖다 붙인 외래지명(Exonym) 보다는 토착지명(Endonym)을 우선시하는 원칙이 있는데, 이 원칙에 비추어 봐도 동해라는 이름이 타당성이 있다. 1992년에 우리 정부가 동해의 영문표기 명칭을 결정할 때는 이런 의견들을 모두 고려하여 결정한 것이다. 다른 의견이 있더라도 대외교섭에서의 일관성 유지 차원에서라도 동해 병기를 지속해서 추진해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주성재 교수** 동감한다. ‘한국해’보다는 ‘동해’로 추진해야 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요약해 다시 한번 말하고 싶다. 첫 번째, 한국인들이 2천여 년 이상 사용한 이름은 동해다. 두 번째, 여러 나라로 둘러싸인 바다에 일본이라는 특정한 나라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붙이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입장에서 ‘한국해’라고 하자는 것은 자기모순이 될 수 있다. 세 번째, 우리가 1992년부터 동해 표기를 주장하며 점차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는데 이제 와서 한국해를 새로 주장한다면 혼란만 야기될 수 있다.

**장동희 대사** 한 가지 덧붙이자면, ‘청해’, ‘평화의 바다’ 등 제3의 명칭을 사용하자는 의견도 있는데 그것은 일본이 일본해라는 이름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야지 가능한 이야기이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제3의 이름을 주장할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

**심정보 박사** 세계지도상 동해, 일본해 병기 비율이 30% 가까이 된다고 언급

했는데, 어느 정도 비율이 되어야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분위기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장동희 대사**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다. 최소한 50%는 넘어서야 일본도 생각을 해보지 않을까 싶다.

**주성재 교수** 비율을 높이는 것, 즉 양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측면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세계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출판사와 지도제작사의 표기가 동해를 인정한다면 훨씬 힘이 있게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점을 고려한다면 비율보다도 얼마나 영향력 있게 인식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최근에는 주요 지도제작사와 출판사의 표기 현황 분석에 기초하여 이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는 것을 중요한 전략으로 채택하고 있다.

**심정보 박사** 그렇다면 ‘동해’ 명칭 자체가 갖는 정당성은 무엇인가?

**주성재 교수** 앞서 언급했듯이 2천 년 이상 사용해왔고 오늘날에도 7천만 명 이상의 인구가 사용하고 있는 이름이라는 것, 그 자체가 정당성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많은 인구가 이렇게 오랜 세월동안 사용한 이름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일이다. 그런 기본적인 사실, 그로부터 파생되는 다양한 역사적인 근거, 우리 삶에 뿌리박고 있는 동해라는 실체,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인정이 필요하다. 그것이 큰 정당성이다.

**심정보 박사**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북한과의 공조도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 북한의 입장은 무엇이고 북한과의 협조방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장동희 대사** 북한이 우리와 비슷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니 남북한이 공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북한은 초기에 ‘조선동해(East Sea of Korea)’를 주장하기도 했는데, 국제적으로 볼 때 그것은 또 다른 이름이다. 그래서 같은 이름과 입장을 취하는 것이 중요한데 다행히 최근 북한도 ‘동해’라는 이름에 동의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11년 5월 이 문제에 관해 협의하자는 제의가 북측에

서 온 적이 있고 우리도 적극적으로 협의에 임하고자 회신하였으나 그 이후 북측의 회신이 없어서 이쉽게 생각하고 있다. 기회가 된다면 적극적인 입장에서 북한과 공조를 논의할 준비는 되어 있다.

**주성재 교수** 2011년 5월 이전에도 전문가 차원에서 몇 번의 만남이 있었다. 사실 국제회의의 석상에서 북한과 같은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동해 표기 문제는 민족적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단, 모든 정치적인 색채를 배제하고 전문가 차원에서 해결방안을 찾는 만남이 중요할 것이다. 이 만남에서는 내년에 있을 중요한 회의에 대한 대비뿐만 아니라 남북한 지명의 단일 로마자 표기법에 대해서도 논의되어야 한다. 남북한 지명의 로마자 표기법을 통일하면 한글이 유엔 회원국의 중요한 언어로서 위상을 높일 수 있다고 본다.

**심정보 박사** 동해 표기와 독도 관련 사안을 연관 짓기도 하는데 두 문제의 차이점과 유사점은 무엇인가?

**장동희 대사** 국민정서상 민감한 문제라는 공통점이 있다. 또 한 가지는 일제 강점과 관련이 있다. 일본이 1905년 시마네현 고시로 독도를 편입했는데 같은 해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박탈하고 1910년 한일합방을 하게 된다. 결국 독도가 한일합방의 최초 희생물이 된 셈이다. 한편, 일본해라는 이름이 국제사회에 널리 보급된 결정적 계기가 된 것은 1929년 국제수로기구(IHO)에서 발행한 해도(S-23)에 동해 수역의 명칭이 일본해로 표기된 것이었다. 즉, 일제 강점 하에서 우리나라는 IHO에 대표도 파견하지 못한 가운데 이루어진 IHO의 일본해 표기 결정이 우리가 동해라는 이름을 잃는 결정적 계기가 되어 버린 것이다. 이것이 바로 독도와 동해 표기 문제가 일제 강점과 관련이 있다고 한 이유인 것이다. 다만, 여기서 가장 큰 차이점은 독도는 영토 주권에 관한 사안이고 동해 표기 문제는 이름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다.



- 주성재 교수** 덧붙이자면 독도는 영토 문제기 때문에 명확한 결과가 존재하는 문제다. 대한민국이 역사적, 지리적 정당성을 보유하고 있는 명확한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말이다. 반면, 동해는 한국, 북한, 일본, 러시아가 공유하고 있는 바다다. 이 공유된 바다의 명칭을 어떻게 붙일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가 필요하다. 명칭과 관련된 생각이 서로 다르므로 그 생각을 다 인정해야 한다. 명칭 문제에 대해서는 그만큼 유연성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한국인들이 인식하고 있는 동해, 일본인들의 일본해를 동등한 취급을 해줘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독도 문제는 그렇지 않다.
- 장동희 대사** 영토 문제는 양보나 타협의 여지가 없다. 그렇지만 명칭 문제는 상호 간의 합의를 통해 충분히 합의점을 모색할 수 있다. 사실 독도 사안에 대해서는 ‘문제’라는 단어를 붙이는 것도 거부하고 싶다. 독도는 우리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소유하고, 영토의 일부로 관할·관리하며 자유롭게 이용하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조금할 게 없는 사안이다.
- 주성재 교수** 명칭 문제와 연결해볼 때, 독도를 어떤 지도에서 ‘리앙쿠르 록스’나 ‘다케시마’로 표기하고 있다면 영토의 명확성에 비춰볼 때 이것은 전혀 적절하지 않은 표기다. 독도는 한국의 영토로 한국에서 쓰는 공식 이름 ‘독도(Dokdo)’로 써야 한다. 동해 문제와 하나씩 주고받는다는 입장에서 동해 병기를 하는 대신 독도와 다케시마를 병기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것은 성격이 다른 문제를 동등하게 취급하는 치명적인 오류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차이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보다 강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 심정보 박사** 한국과 일본 정부는 동해 해역의 명칭을 둘러싸고 분쟁 상태에 있는데 양국에서는 서양 고지도를 제시하며 각각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고지도가 시사하는 바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 주성재 교수** 지도라고 하는 것은 당대에 지도를 만든 사람의 인식이 반영

-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서양 고지도에서 어떤 영역을 어떻게 경계 짓고, 어떤 표기를 했나는 것은 당시 그 지도를 만들고 사용한 사람들이 그 지역을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동해 수역에 대해서는 ‘Eastern Sea’, ‘Oriental Sea’, ‘Sea of Korea’, ‘Sea of Japan’ 등 다양한 명칭이 사용되었고, 중요한 것은 절반 이상의 지도가 아무 표기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 수역에 대한 인식이 서양인들에게 뚜렷하게 존재하지 않았으며, 어떤 이름도 광범위하게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 제국주의가 확산된 19세기 중반 이전에는 오히려 한국과 관련된 이름이 더 많이 등장한다.
- 심정보 박사** 근거가 될 수 있는 고지도도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으로 나눠 생각해볼 수 있는가?
- 주성재 교수** 사실 고지도 통계는 모집단을 모르는 통계기 때문에 몇 퍼센트의 지도가 특정 지명을 사용했다는 것을 갖고 일반화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단, 흐름을 보는 것은 가능하다. 그 저 양적인 측면에서, 절대적으로 어떤 표기가 많이 됐다고 중요한 주장의 근거로 삼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 장동희 대사** 고지도에서도 관찬지도와 사찬지도에 대해서는 다르게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 주성재 교수** 그렇다. 우리는 일본이 만든 지도에서 조선해로 표기한 지도를 사례로 많이 들고 있는데 조사에 의하면 일본이 당시 공식적으로 만든 관찬지도에서 동해 수역을 조선해로 표기했다. 조선의 영역이라는 인식이 있었다는 것이다.
- 장동희 대사** 어떻게 보면 그때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이 그 당시에는 ‘조선해’였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가?
- 주성재 교수** 그렇다. 사실 일본 국토 발전의 역사를 볼 때 발전의 축은 일본의 동쪽에 치우쳐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본 사람들은 열도의 동쪽 부분을 중심으로 한 인식을 키워나갔다는 것이다. 서쪽에 대

해선 별로 관심이 없었다. 역사적 기록을 봐도 (일본열도의) 서쪽 바다에 대해서는 단순히 ‘카이[海]’ 또는 ‘호카이[北海]’로 부르는 정도였고 이 바다를 적극적으로 인식한 사례는 많지 않다고 알고 있다.

**심정보 박사** 동해 표기 문제의 직접적 해결에 앞서 우선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는 어떤 것이 있는가? 국제기구의 결의 적용이나 한일 양자 간의 합의, 제3의 명칭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듣고 싶다.

**장동희 대사** 사실 동해 표기를 둘러싸고 IHO와 UN지명표준화회의에서도 논의가 많이 되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한일 간의 합의다. 양국 간 합의가 이뤄진다면 국제기구에서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문제는 한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니 국제기구에서 논의하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지만 UN이나 IHO에 지명의 명기와 관련된 결의가 있다. 그런데 문제점이라면, 이 결의들이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이들 결의에는 ‘should’를 사용하고 있는데 법적 구속력을 가진 의무를 규정할 경우에는 ‘shall’을 사용한다. 따라서 UN이나 IHO 결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의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무시해도 좋다는 의미는 아니다. 국제기구 결의는 구성원들의 의견을 집약한 것이기 때문에 회원국은 그 기구 회원국들의 총의로 채택한 결의를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당연히 일본도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일본 자신이 회원국으로 있는 UN이나 IHO의 결의를 따르도록 국제사회에서도 많이 의견을 모아주는 등 국제적 환경 조성도 중요하다고 본다.

**주성재 교수** 적극적으로 동의한다. 결국 어떤 국제 기준, 즉 글로벌 스탠다드에 근거한 합의가 중요하지만 합의가 안 될 때 UN이나 IHO 같은 국제기구가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양자 간 합의가 안 되니까 삼자에게 문제를 떠넘기는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 현실적인 문제가 그렇다. 한일 간의 미묘한 관계 때문에 해결이 어려우니 국제기구들이

양자의 입장을 고루 고려한 다음 역할을 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심정보 박사** 2012년 4월 말에는 차기 IHO 총회가 개최된다. 이 회의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그 결과 및 향후 동해 표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는가?

**장동희 대사**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현재 IHO에서 발행한 해도에는 일본해로 표기되어 있는 것이 바로 현실이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세계에서 발행되는 지도 중 다수가 일본해로 표기되어 있다. 이 현실을 우리가 바꿔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IHO에서 발행할 개정판 해도에 일본해가 단독 표기되는 것을 막고 장기적으로 동해 명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주성재 교수** 동감이다.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정성껏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2012년 4월 이전까지 남은 기간 IHO 총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적극적인 사전 교섭이 필요하다. ‘일본해’ 단독 표기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모두 인정한 사실이기 때문에 IHO 총회 이후에도 세계 각국의 민간 지도제작사와 지명위원회 관계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이 사실을 효과적으로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동해 표기가 IHO에서 어떻게 결정이 되든지 우리는 민간 제작사의 표기가 바뀔 때까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들을 초청하고 찾아다니면서 우리의 입장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장동희 대사**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결국 정부, 재단, 학계, 민간단체,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방향을 두 가지로 나뉘볼 수 있다. 하나는 국제수로기구의 해도에 동해 명기를 관철시키도록 노력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학계나 민간단체들이 합심해 세계에서 발행되는 지도에 동해 표기가 확산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이렇게 ‘트랙 시스템’으로 노력해나가야 할 것이다.

# 『유럽의 독도 인식』

(민유기 · 최재희 · 최호근 · 민경현, 동북아역사재단, 2011)

윤유숙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 1. 머리말

현재 한일 간에 첨예한 외교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독도와 동해 표기 문제를 살펴보면, 의외로 유럽의 자료가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게 된다. 독도와 동해 표기 문제는 한일 간의 사안이기 때문에 이 문제의 연구에 활용되는 한국과 일본의 자료는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거의 전 시대에 걸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이 사안의 당사국인 한국과 일본이 아닌 제3자가 작성한 자료 쪽으로 눈을 돌리면 앞서 언급한 유럽의 자료를 발견하게 된다. 이런 자료 대부분은 독도 영유권 문제보다는 동해 표기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발굴된 유럽의 고지도류(古地圖類)이다. 그것들은 주로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에서 제작된 세계지도 또는 아시아 지도로, 제작된 시기는 17~19세기 중반에 걸쳐 있다. 이러한 지도들은 조선과 일본이라는 두 나라를 포함하여 동아시아 지역에 관해 당시 유럽인들이 갖고 있던 지리 정보의 현황을 말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가치를 지닌다.

한편 독도 문제 연구에 활용되는 유럽의 자료는 전근대에 작성된 소수의 지도류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20세기 이후에 생성된 근대자료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그 이유는 근대일본이 독도의 강제편입을 본격화하는 시기가 20세기 초<sup>2</sup>이고, 그 편입과정에서 역사적인 배경이 된 것이 러일전쟁이기 때문이다.

그러던 독도 관련 자료 상황은 20세기 중반 이후가 되면 일변한다. 무엇보다도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독도 문제를 논하는 데 중요한 획기 중의 하나인 대일평화회담(샌프란시스코 평화회담)의 조약문과 그 이후 한·미·일 삼자 간 외교관계의 추이는 커다란 관심의 대상이어서, 미국의 방대한 외교문서를 분석한 연구 성과들이 발표되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근래에 들어와

주로 역사학과 정치학 분야에서 발표되고 있어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sup>3</sup> 혹은 최근 10년간 미국의 방송과 신문보도를 분석하여 미국 언론계의 독도 인식을 살펴본 논고도 확인된다.<sup>4</sup>

또한 국제법 분야에서는 독도 문제에 관한 일부 영어권 국가 학자들의 입장을 소개, 분석한 논저가 출판되기도 했다.<sup>5</sup> 이러한 성과는 모두 한국과 일본이 아닌 제3국의 입장이나 정책을 분석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 또한 제3국 중에서도 미국이라는 특정 국가에 한정하여 독도 문제를 분석한 것이어서, 오늘날 미국 이외의 지역 특히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과연 독도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하는 점은 사실 학계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진 적이 없는 실정이다. 그런 의미에서 『유럽의 독도 인식』은 전통적인 유럽 강대국 4개 국가의 비교적 '현재의' 독도 인식의 흐름을 엿볼 수 있는 흥미로운 저서이다. 주제의 희소성에 한정하여 논

1 독도에 대한 유럽의 시각을 고찰한 성과로는 파리제 대학 한국학과 이진명 교수의 저서를 꼽을 수 있다. 그의 저서 『독도, 지리상의 발견』은 서양의 고지도와 옛 자료들을 근거로 해서 20세기 이전 서양의 독도 탐사활동이나 지도상 표기의 실체를 규명한 것이다. 이진명, 2005, 『독도, 지리상의 발견』, 삼인(초판 1998). 이 책은 동북아역사재단에서 2010년에 영문판 『Dokdo, A Korean Island Rediscovered』로 출간되었다.

2 일본은 1905년 2월 22일 독도를 시마네현으로 편입하였다.

3 정병준, 2010, 『독도 1947: 전후 독도 문제와 한·미·관계』, 돌베개. 장박진, 2011, 『대일평화조약과정에서 일본 정부의 영토인식과 대응 분석』, 『영토해양연구』1,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4 김보림, 2011, 『한국과 일본의 독도 문제에 대한 미국의 인식』, 『한국일본교육연구』 15.

5 이석용·박찬호, 2007, 『제3국 학자의 독도관련 입장 분석』,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다면 『유럽의 독도 인식』은 독도를 주제로 한 수많은 연구서와 논문 가운데 거의 유일한 성과물이 될 것이다.

## II. ‘독도와 유럽’이라는 새로운 시도

이 책은 2010년 동북아역사재단의 연구지원 사업에 채택된 과제로, 수정·보완을 거쳐 2011년에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총서 61’로 출간되었다. 이 책은 최근 15년간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에서 나온 언론 보도 기사를 분석하여 각국이 독도 문제를 어떻게 보도했는지를 검토하고, 그들은 과연 독도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여 왔는가 하는 점을 고찰한 것이다.

본서는 프랑스·영국·독일·러시아 언론의 독도 인식(계제순서)이라는 4개의 장으로 구성되었고, 각 장의 집필자는 민유기, 최재희, 최호근, 민경현 교수로 전원 서양현대사 전공자다. 각 장에는 연구논문과 함께 논문에서 분석한 언론 자료를 원문과 한글 번역문(6개~13개)의 형태로 별도 수록하고 있다. 별도로 수록된 보도문은 유럽의 언론이 독도 문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서술하였는지 그 전문(全文)의 논조가 궁금한 독자들에게는 반가운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0세기 이후 독도 문제와 직·간접적인 관련성을 갖는 유럽의 국가는 유일하게 러시아뿐이라서 얼핏 생각하면 나머지 국가들로부터 독도 관련 자료를 추출해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상상을 하게 된다. 더구나 한일관계의 정책 결정 수준에서 항시적인 영향력으로 존재하는 미국과 비교해보아도 유럽국가들은 상대적으로 관련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외교문서와 같은 성격의 자료를 생산했을 여지도 낮다.

그러한 상황에서 본서의 집필자들이 현대사회에서 가장 일반적이지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언론이라는 매체(신문, 주요 일간지, 주간지, 혹은 TV 방송물 포함) 특히 ‘유럽의 언론’에 주목하여 이를 발굴, 분석 재료로 삼았다는 점은 신선한 시도로 다가온다. 본서에서 민유기 교수가 지적하고 있듯이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은 외교정책 결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 특정한 정책에 대한 언론의 보도가 해당 국가의 정책결정권자들은 물론 이익집단과 대중에게 영향을 미치고, 언론보도에 영향을 받은 이익집단과 대중이 다시 정책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이미 다양한 연구를 통해 입증된 바 있다.

따라서 언론보도를 통해 유럽 4개국의 독도 인식과 이해의 수준이 어떠한지를 조사하는 것은 국제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한 번쯤은 짚고 가야 할 과제일 것이다. 더구나 그들이 국제무대에서 미국 못지않게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면 본서가 지니고 있는 실용적인 가치는 결코 가볍지만은 않다.

또 하나 주의를 끄는 부분은 본서가 4개 장 전체에 걸쳐 통일적인 분석 방법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인 공동 저서는 여러 저자의 논고가 단순하게 나열되거나, 또는 각 저자들의 분석과 고찰의 틀을 제각기 설정하는 등 통일성이 결여되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다. 본서는 4명의 저자 전원이 언론보도라는 동일한 자료를 활용한 닷인지 같은 분석방법을 관철함으로써 공동 저서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했다.

즉 프랑스, 영국, 독일, 러시아 언론의 독도 인식이라는 4개 장에서 저자들은 모두 공통으로 해당 국가 언론의 독도 관련 기사들에 대해 정량적 분석과 정성적 분석을 행하였다. 독도 관련 보도의 빈도, 보도 기사의 분량, 보도의 시점이나 배경, 기사 작성자나 정보의 출처, 독도 표기법 등 언론 보도의 프레임을 분석하였다. 또한 본서에서 주목할 곳은 바로 독도 관련 기사들의 내용에 담긴 담론을 분석한 부분이다.

이들 언론의 보도 내용이 독도 문제의 근원이나 본질에 대해 과연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독도 문제로 야기되는 한일 갈등 상황이나 긴장감 형성의 촉발 요인을 무엇으로 파악하고 있는지, 독도 문제를 정치, 외교, 국제 협력, 안보,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특히 일본의 우경화가 초래하는 군국주의 미화나 역사왜곡 문제와 어떻게 연결하고 있는지 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각국 주요 언론의 독도 관련 보도 내용을 통해 어떤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 틀의 통일성으로 인해 본서에는 다양한 종류의 수량적 데이터가 등장하고 있고, 전문적인 연구서의 체제를 갖추고는 있지만 책 전체의 내용이 그다지 난해하지 않다. 추측건대 지적 호기심이 풍부한 독자로 하여금 4개국의 독도 인식을 다양한 각도에서 횡적으로 상호 비교하게 만드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 III. '독도를 바라보는 유럽의 눈'과 남겨진 과제

각 장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프랑스 언론의 독도 인식」에서는 1995~2010년까지 발행되는 프랑스 중앙일간지 11종에서 스포츠와 종교 신문을 제외한 9종을 조사하여 5종의 일간지에서 발견한 총 19건의 독도 보도, 그리고 프랑스 3대 주간지에 실린 관련 기사 5건을 분석했다.

이들 기사는 일간지에서 1996년, 1997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8년, 2009년에 등장했다. 저자 민유기는 이들 기사 대부분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선포, 독도 우표발행 중단 요청, 역사교과서 왜곡, 독도 인근 해양 탐사, 문부성의 독도 영유권 교육에 대한 지침 등 일본이 독도와 관련하여 일으킨 각종 논란과 이로 인한 동북아 긴장감 고조 시점에 집중되어 있다고 보았다.

담론의 시각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독도 보도에서 중심적이고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논조는 일본의 우경화와 역사왜곡에 대한 비판적 인식으로, 주로 진보적 언론에서 나타난다. 한편, 독도 문제를 경제 경쟁이나 협력, 동아시아 안보 문제와 연결하는 담론도 있는데 이쪽은 부차적인데다 비중이 작고, 주로 보수적인 언론의 기사에서 나타난다.

두 번째, 「영국 언론의 독도 인식」은 1995~2010년까지 영국의 일간지 14종을 조사하여 7종의 일간지에 실린 54건의 독도 관련 기사를 다루었다.

저자 최재희는 영국 언론에서 2000년대 중반 이후 독도 기사가 증가한

것은 이 지역의 전략적인 중요성과 경제적인 위상이 커졌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고, 영국 언론에서 독도 문제는 영토 문제임과 동시에 전반적인 한일 관계를 상징하는 중심고리이자 동북아 불안정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로 파악하고 있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했다.

저자는 영국 신문이 독도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영유권 주장의 근거를 비슷한 비중으로 소개했고 중립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았다. 영국 신문은 한일 독도 갈등 이유로 풍부한 어존 자원과 천연가스를 포함한 잠재적 광물자원을 거론하였고, 식민지배의 역사로 거슬러가는 한일 간의 민족 감정을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다. 전체적으로 양국 간 갈등과 긴장의 촉발 요인은 일본이라고 파악하였으며, 한일 갈등의 원인을 제공한 사건으로 야스쿠니 신사 참배,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 일본의 독도 소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의 일본 교과서 수정, 일본의 독도 해역 탐사 등을 거론하였다.

세 번째, 「독일 언론의 독도 인식」에서 행한 저자 최호근의 조사에 의하면 독일과 독일어권 스위스의 주요 언론이 1995~2010년까지 독도 문제를 다룬 것은 총 125건에 이른다. 국가별로는 독일이 99건, 스위스가 26건이며 독일 언론의 보도를 보면, 4대 일간지가 71건, 양대 주간지가 6건, 기타 일간지와 주간지가 14건, 방송이 8건에 이른다. 독일 언론이 독도 문제에 대해 집중적인 관심을 표명한 때는 1996년, 2005년, 2006년, 2008년으로, 독도에 관한 보도가 가장 빈번하게 등장한 2005년에 갈등의 진원이 된 것은 일본의 우익 역사교과서에서 촉발된 과거사 극복 문제였다.

독일은 현재에도 과거사로부터 연유하는 주변국들과의 불화의 불씨를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독일 언론은 동아시아 지역의 영토 분쟁에도 상당한 관심을 보여 왔다. 저자는 독일 언론의 최근 15년간 독도 관련 보도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단편적 성격의 사건 보도에서 상황에 대한 분석, 역사적 연원에 대한 설명, 해석, 그리고 독자적인 판단으로 점차 나아가고 있다. 둘째, 독도 문제를 다루는 보도의 틀이 어류와 해저자원에 주목하는 경제적 차원에서 과거사, 집단기억, 민족감정, 정체성과 같은 역사·

문화적 차원으로 확대되어 왔다. 셋째, 2005년은 독일 언론의 독도 관련 보도에서 분기점을 이룬다. 이때를 계기로 독일 언론은 독도 문제의 뿌리가 식민 지배 과거사와 함께 과거사에 대한 책임을 거부하는 일본의 자폐적인 태도에 있다고 인식하였다. 넷째, 독일 언론은 식민지 지배와 과거사 극복의 틀 속에서 독도 문제를 설명하는 경우가 많으며, 북한 문제가 함께 취급되는 경우도 많다.

마지막으로 「러시아 언론의 독도 인식」은 1995~2010년까지 러시아의 주요 일간지에서 발견된 총 104건의 독도 관련 보도를 검토하였다. 독도 문제에 관한 러시아의 관심은 각별하다. 그 이유는 독도를 둘러싼 한일 갈등의 시점이 러일전쟁 당시 일본의 독도 편입에 있기 때문이고,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쟁점이 되고 있는 쿠릴열도 문제가 독도 문제와 매우 유사하게 전개되기 때문이다.

1995~2004년 기간에는 러시아 언론에서 독도 관련 기사가 대단히 미미하게 언급되다가 2005년 이후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다. 저자 민경현은 그 이유를 소련 해체 이후 10여 년이 지나 사회가 안정되고, 러시아의 국제적 위상이 강화되면서 국제 문제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동북아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과 경제적 위상이 커졌다는 사실에서 찾고 있다.

저자는 2000년대 중엽부터 러시아 언론은 독도 문제를 현재의 영토 문제로 파악하지 않고 역사적 관점으로 설명하였으며, 독도 문제에 대한 남북한의 공조를 강조하기도 했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2000년대 후반 러시아 언론이 독도 문제를 쿠릴열도 문제와 본격적으로 연관 지어 설명하고 다른 한편으로 일본의 교과서 문제와 관련시켜 설명하는 등 독도 문제의 역사와 한일관계를 잘 파악하고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비교사의 시각에서 살펴보면, 본서에서 다룬 유럽 4개국의 최근 15년간 독도 관련 보도 횟수는 러시아가 가장 많고, 다음이 독일, 영국, 프랑스 순서다. 그것은 러시아가 쿠릴열도 문제로 일본과 대립하고 있어서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독도 문제를 좀 더 이해 관계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독도 표기에 있어서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언론들은 모두 독도와 다케시마를 함께 쓰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독도와 다케시마를 함께 적더라도 1990년대에는 다케시마를 먼저 쓰는 기사들이 많았으나, 2000년대 들어와서는 독도를 우선으로 표기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독도의 위치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과거 일본해라는 명칭만을 사용하다가 최근 들어 동해와 일본해를 공동 표기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 책의 저자들은 언론 기사 내용 분석에서 얻은 결과로부터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즉 '많은 유럽 언론은 일본이 올바른 과거사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 독도 문제와 관련해 일본의 주장이 역사적으로 올바르지 않으며 일본의 역사왜곡이나 우경화와 군국주의화 연상과 연결된다는 것을 서양의 주요 국가들에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할 때 나치와 전쟁범죄에 대해 선명한 비판의식을 가지고 있는 서양인들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잘못된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독도 주권을 수호하려는 한국인들의 노력을 지지해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점이다. 이 점은 앞으로 독도 문제에 대응하고 나아가 전 세계를 시야에 넣은 홍보 전략을 구상함에 있어 한 번쯤 깊이 곱씹어 보아야 할 시사점이 아닐까 생각된다.

# 영토·해양 관련 일지

조윤수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2011년	국내	국외
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9일 : '국회독도특별위원회' 활동 시한 2011년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국, 일본 측에 오키나와 해저분지 등 2건의 해양조사 신청</li> <li>4일 : 중국 보하이 만에서 원유유출 사고 발생</li> <li>23일 : 러시아, 미국 측에 러·일 영토 분쟁에 간섭하지 말 것을 종용</li> </ul>
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국, 이어도 남서쪽 0.8km 해역에서 침몰한 벌크선을 인양하던 대한민국 예인선과 바지선에 관공선을 보내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허가 받지 않은 인양작업은 중단할 것을 한국 측에 요구</li> <li>8일 : 시마네현[島根縣] 의회, 일본 내각에 「竹島 영토 확립을 위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li> <li>12일 : 이스라엘, 레바논과의 해양경계 분쟁에 있어 UN에 지중해 북부 해양경계에 대한 성명을 기탁. 이스라엘 베냐민 네타냐후(Benjamin Netanyahu) 총리는 "레바논이 UN에 제출한 해양경계는 이스라엘이 제안한 해양경계보다 훨씬 더 남쪽으로 내려와 있다."라고 지적, 레바논 주장에 대하여 공식적 반대를 표명</li> <li>25일 : 필리핀 아키노 대통령, 남중국해 영토 보호를 위해 무력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국정보고에서 밝힘</li> <li>27일 : 러시아 정부의 '남쿠릴열도 4개 섬(북방 4개 섬) 사회경제 발전계획'의 일환으로 주택건설을 위탁 받고 있는 러시아 기업이 중국인 10명을 고용한 것에 대하여 일본 정부는 "일본이 남쿠릴열도(북방 4개 섬)의 러시아 관할권을 인정한다고 하여 북방영토에 대한 외국인 고용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을 러시아에 전달</li> </ul>

2011년	국내	국외
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일 : 자민당 신도 요시타카[新藤 義孝] 의원을 포함한 3명의 의원이 울릉도를 방문하겠다고 김 포공항에 도착. 한국 정부는 입국 거부 조치</li> <li>8일~19일 : 문화재청, '우리땅 독도, 그 아름다운 섬 이야기' 전시</li> <li>8월 5일 : 경북도교육청, '2011 독도 수호 음악회' 개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일 : 베트남, 중국 조사선의 영해침범을 중지하라고 요구</li> <li>4일 : 레바논 의회가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경계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해양경계분쟁이 심화</li> </ul>
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5일 : 미국과 호주 정부,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외무방위 담당 각료회의에서 남중국해의 영유권을 둘러싼 위압행위 혹은 무력행사에 반대하고 관계국에 국제법 준수를 요구하는 공동 성명 발표</li> <li>27일 : 일본 정부, 중국 조사선이 사전에 동의를 얻은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벗어나 조사를 실시한 것에 대하여 베이징의 일본 대사관을 통해 중국 측에 항의 전달</li> <li>27일 : 일본 노다[野田] 수상과 필리핀 아키노 대통령의 회담에서 해상안전 확보를 위해 '공통의 전략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에 합의</li> </ul>
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2일 : 중국 - 베트남 간 해양문제 협약체결</li> <li>일본 도쿄도 교직원 노동조합, "독도가 일본 고유영토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공식 견해 밝힘</li> </ul>
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8일 : 교육과학기술부, 동북아역사재단, 광주시 교육청은 18일부터 12월 16일까지 광주 민속박물관에서 '나선을 타고 울릉도·독도를 드나들던 전라도 사람들'이라는 특별 주제로 제4기 독도 전시회 개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2일 : 미 하와이에서 개최된 러시아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일본 노다 수상의 회담에서 남쿠릴열도(북방 4개 섬)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 실질적 논의를 한다는 것에는 일치했다고 『마이니치 신문』 보도</li> <li>20일 : 중국 해양순시선 센카쿠(다오위다오) 주변 수역에 출몰</li> <li>21일 : 일본 시민단체는 초당파 국회의원 43명과 함께 '센카쿠(다오위다오) 체도를 지키는 전국 국민집회' 개최</li> <li>22일 : 일본 『산케이 신문』은 '방위계획 대강'에서 일본 정부가 중국에 대한 경계감을 군사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보도</li> </ul>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7일 : 한·일정상회담 개최 중 일본의 겐바고이치로[玄葉光一郎]외상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강하게 주장</li> <li>18일 : 일본 시마네현 현립 도서관, '제2회 竹島문제를 생각한다' 강좌 개최</li> </ul>

### [ 『영토해양연구』 간행 및 논문 심사 규정 ]

1. 『영토해양연구』에는 다음과 관련된 특집, 논문, 연구노트(단보 등), 자료소개, 서평 등의 글을 게재한다.
  - 1) 독도와 관련된 주제
  - 2) 영토 및 해양과 관련된 주제
  - 3) 본 재단의 목적에 부합하는 논문
2. 『영토해양연구』는 6월 30일, 12월 31일 매년 2회 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원고를 다음과 같은 과정과 내용으로 심사한다.
  - 1)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모든 원고를 논문 제목, 형식요건, 원고분량의 적절성, 재단 목적에 대한 부합성 등을 기준으로 1차 심사하고, 참석 편집위원 과반수 통과 판정을 얻어 2차 심사에 회부한다.
  - 2) 편집위원회는 투고원고 중 논문류의 경우 편당 관련전공자 3인의 심사자를 선정하여 2차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2차 심사 때에는 공정성을 위해 필자명을 반드시 지운 뒤 심사한다.
  - 3)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된 논문을 편집위원회의 정해진 양식에 따라 ‘수정 없이 게재(A)’,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사(C)’, ‘게재불가(D)’의 네 등급으로 판정한 후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중 B·C등급의 경우 수정사항이, D등급의 경우에는 게재 불가 이유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 4) 편집위원회는 심사 통과 논문 편수가 『영토해양연구』의 일반적인 분량을 초과할 경우 편집위원회의 기획과 심사 성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 게재 순위를 정한다.

4.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과 심사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일체를 대외 비로 한다. 이외 투고자는 게재가 결정된 논문이라 할지라도 심사위원회의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5.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투고자에게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보한다. 논문은 아래와 같은 항목에 의하여 심사한다.
  - 1) 논문 제목의 적절성
  - 2) 형식요건 및 체제의 정연성
  - 3) 논리성 및 독창성
  - 4) 학술적 가치
  - 5) 인용자료의 적절성
  - 6) 분량의 적절성
  - 7) 요약문의 적절성
6. 편집위원회는 『영토해양연구』에 투고된 일체의 원고에 대해 심사 종료 후 돌려주지 않는다.



**〔 논문 심사 내규 〕**

1.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다음의 네 가지로 처리한다.
  - 1) 게재 가 : 3인 모두 A로 판정한 경우  
예 : (A, A, A)
  - 2) 수정 후 게재 : 3인 모두 B 이상으로 판정한 경우 / 2인이 A로, 나머지 1인이 C로 판정한 경우  
예 : (A, A, B) (A, B, B) (B, B, B) (A, A, C)
  - 3) 수정 후 재심사 : 2인이 A와 B 이하로 판정하고 나머지 1인이 C로 판정한 경우 / 2인이 B 이상으로 판정하고 나머지 1인이 D로 판정한 경우 / 1인이 A나 B로 판정하고 2인이 C로 판정한 경우  
예 : (A, B, C) (A, B, D) (B, B, C) (B, C, C) (A, C, C)
  - 4) 게재 불가 : 2인 이상이 C나 D로 판정한 경우(A, C, C와 B, C, C는 제외) / 1인이 D로 판정하였는데 A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예 : (A, C, D) (A, D, D) (C, C, C) (B, B, D) (B, C, D) (C, C, D) (D, D, D)
  - 5) 재심사 : 2인이 B 이상으로 정하였는데 1인이 D로 판정한 경우, D 판정 1건에 대해서만 심사위원을 교체하여 재심사함.
2. 편집위원회는 논문 편수가 『영토해양연구』의 수록 분량을 초과하거나 또는 편집위원회의 기획상의 우선순위 등의 사정에 따라 심사 통과 원고 가운데 일부를 필자의 양해 하에 차기 호 또는 차차기 호에 실을 수 있다. 이 가운데 단순히 『영토해양연구』 수록 분량 초과만이 원인일 때에는 투고 및 심사 성적 순위로 해당 호 게재를 결정한다.
3. 심사 결과 통보는 심사위원이나 과정을 대외비로 한 상태에서 심사 결과와 수정 제의 및 게재 불가 사유를 통보한다.

**〔 투고 요령 〕**

1. 『영토해양연구』는 전문적인 학술지로서 논문, 서평, 연구노트(단보 등), 회고와 전망, 영토·해양 관련 일지, 자료소개 등이 게재된다. 투고하고자 하는 원고는 4월 31일 또는 10월 31일까지 투고신청서와 함께 『영토해양연구』 편집위원회 앞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원고는 반드시 컴퓨터 파일로 작성하여 『영토해양연구』 실무총괄담당자 메일(tas@nahf.or.kr)로 보내야 한다. 또한 최종 원고 제출 시 사진(해상도 300dpi 이상) 및 기타 자료는 별도 제출한다.
3. 원고분량은 200자 원고지 100장 내외를 기준으로 하되 충분한 논지 전개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50장 이내로 초과할 수 있다. 그림과 사진의 수량은 원고분량에 포함하지 않으나 논지 전개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한다.
4. 원고는 제목, 필자(소속기관, 직위), 머리말, 본문, 맺음말, 국문 및 영문초록, 국문 및 영문 주제어, 참고문헌(필요 시)의 순서로 구성한다.
5. 논문의 목차와 소제목은 머리말로부터 순서에 따라 I>1>1)>(1)로 번호 매김을 한다.
6. 인용문헌은 가급적 각주로 표기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참고문헌의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7. 각주에서 현대문을 인용할 때에는 “필자”, “연도”, “논문”, “서책(출판사)”, “쪽수”의 순서로 한다. 앞서 인용한 문헌을 재인용할 때에는 바로 위의 문

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필자”, “연도”, “위의 글(책)”, “쪽수”의 순서로, 바로 위 이전의 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필자”, “연도”, “앞의 글(책)”, “쪽수”의 순서로 인용한다.

예) 김홍도, 2010a, 위의 글, 78쪽.  
홍길동, 2002, 앞의 글, 29쪽.

8. 각주에서 고중세 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작자(필요시)”, “서책”, “편목”, “인용문”의 순서로 한다. 이중 고중세문헌은 필요할 경우 판본명이나 영인본명을 밝힐 수 있고, 인용문 중 전략, 중략, 후략 등은 “……”로 표기한다. 이외 본문 중의 인용문은 문장 가운데에 삽입되는 경우 “” 표시로 묶고, 인용문이 길어 문단을 나눌 경우에는 “” 표기 없이 서술한다.

예) 東北人, 『東北集』(東北文化社影印本), “東北有高士, 東北公賢裔鶴擁, 是人世”

9. 서양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책명은 이탤릭체, 논문은 큰따옴표로 표기하고 다음과 같은 순서와 방식으로 인용한다.

예) V. G. Childe, 1932, “Chronology of prehistoric Europe : a review,” *Antiquity* 6, pp. 206~212.

10. 참고문헌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본문의 인용처를 밝히고자 하는 곳에 괄호를 치고 그 안에 필자와 인용문헌의 간행연도 및 필요시 인용 쪽수를 표기한다.

예) (동북인, 2006 : 24)



초판 1쇄 인쇄 2011년 12월 23일  
초판 1쇄 발행 2011년 12월 27일

펴낸이 정재정  
펴낸곳 동북아역사재단

등록 제312-2004-050호(2004년 10월 18일)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1(미근동 267) 임광빌딩  
전화 02-2012-6065  
팩스 02-2012-6189

ISSN 2234-3296  
비매품

이 책의 출판권 및 저작권은 동북아역사재단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으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어떤 형태나 어떤 방법으로도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